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2월 1일(음력 1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563 호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포교 '전문가' 시대 왔다

조계종 포교원 '전문포교사 선발…' 입법예고…금년내 실시

계층·분야별 포교 활성화 기대…교육·관리 등 과제

조계종 포교사 활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포교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포교사가 육성돼 포교전문화가 가능해진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령'은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포교원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수행 등 각 분야의 전문자질을 갖춘 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환영' 분위기다. 포교활성화를 위해 전문포교사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포교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전문화 시대에 맞는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곽명희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은 "전문포교사 제도가 실시되면 4500여 포교사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2000여명의 포교사들에게는 사기진작의 계기가, 그렇지 않는 포교사들에게는 분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포교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해당 분야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갖춰지도록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즉 종단 내에서 일반 문화유산해설사나 사회복지사보다 문화나 복지 전문포교사의 활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교원은 2월말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한 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종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내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선발은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자격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포교원장은 10인 이내 전문포교사 선정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전문포교사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선정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전문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일반포교사 활동 경력사항 및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전문포교사 지원 분야에 관한 활동 계획서 △포교사단(팀장, 지역단장) 추천서 △교구포교국장 의견서 등을 첨부해 포교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교사단 중앙단장도 응시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포교사로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일반포교사로서 팀장 경험자 그리고 일반포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 졸업자 △전역 군승(재가자), 교법사 △종단으로부터 자격(국제포교사, 어린이지도사)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포교활동중인 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3귀의계→5계→보살계

조계종 포교원 신도수계원칙 정착키로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 5계 수계를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도관리와 수계체계 확립에 적극 나선다.

포교원은 1월 24일 열린 제30차 계단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신도의 5계 수계는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찰마다 보살계와 5계, 3귀의계를 아무런 원칙 없이 수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정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불자들에게만 계를 주는 것이 맞다"며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계사 영산율원율주 철우 스님은 "신도는 3귀의계를 수해야만 5계를 받을 수 있는 '계체(戒體)'가 주어지고, 5계 수지후 3~5년 동안 신도의 위계를 체득하면 보살계를 수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은 방침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포교원은 사찰마다 수계체계가 명확치 않아 체계적인 신도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불자(넓은 의미의 불교인)'와 '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3귀의계-5계-보살계 수지의 원칙을 종단차원에서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포교연구실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로 조계종 신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신도법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1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연석회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불교 대표) 외에도 정재계, 사회각계의 대표 33인으로 구성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지속성장을"

종교·사회 대표들 연석회의 구성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교·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1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 경제 사회적 과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지 100여 일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연석회의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경제·여성·시민사회·종교·학계 등 각 분야에서 참여했다. 종교계에서는 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 천주교주교회의 등이 동참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설 연휴관계로 지역에 따라 신문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찰문화재 관람료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70%

본지 교계 여론 주도층 67명 긴급설문

문화재관람료 받아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최근 정부와 조계종 간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의가 오가면서 합동징수인 문화재관람료 존폐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출가자 25명, 재가자 27명 등 불교계 여론주도층 52명과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폐지여부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폐지 찬성(29명)보다는 반대(38명)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29명 가운데는 재가자가 25명이나 됐고, 반대한다는 38명 가운데에는 출가자가 33명이었다.

종단이나 사찰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가자들의 반대가 높고, 상대적으로 재가자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폐지에 반대하는 38명 가운데에서도 절반가량이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것.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인 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 15명 가운데 12명이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10명 중 7명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인 셈이다.

폐지 견해를 보인 사람들은 관람료 폐지가 불교 이미지 제고, 사찰 재정 투명화, 포교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사찰 경제 효율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기사 4면**

노병철·유철주 기자

동대 일산병원 불자회

'연우회' 창립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불자모임 연우회(회장 이석현)가 1월 25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병원직원 354명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연우회 창립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현해, 포교원장 도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우회는 정기법회와 각종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회에서 현해 스님은 "연우회가 창립함으로써 병원불자들이 수행으로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원력을 이어가게 됐다"고 격려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단청장 만봉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두루미 박사' 진익태씨
천태·진각종 신년계획 8면
인생을 경영하라 10면



대중공양가던 날 9면
묵조선의 모든 것 18면



만해마을 집필실 탐방 23면
'티 소믈리에'의 세계 26면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면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고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지 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이메일 : mw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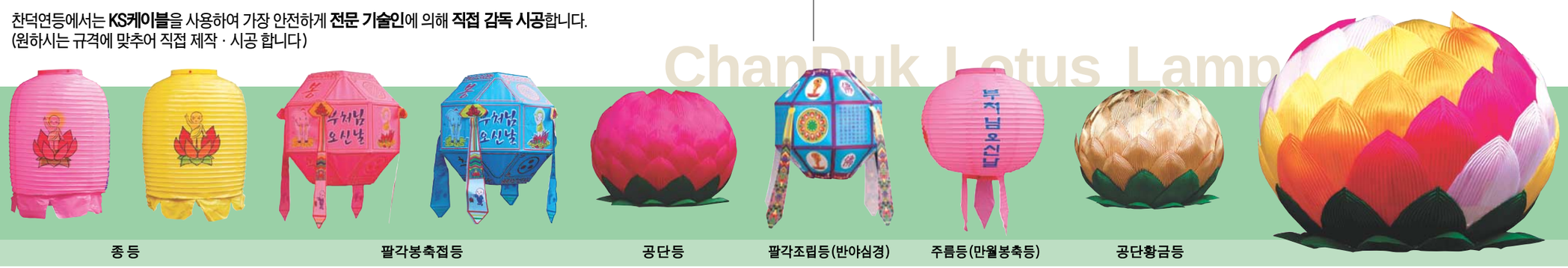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종헌·종법 인터넷으로 본다

조계종 1월24일부터 서비스 개시
현행법령 전체 검색·인쇄가능

종교계 최초로 조계종은 종헌·종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1월 24일 정식개통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각 부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종법령 정보시연회'를 열고 종법령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 조계종의 각종 종법령 관련 내용을 확인 하려면 기존의 두꺼운 <법령집> 대신 인터넷 http://buddhism.mten.co.kr을 검색하면 된다. 조계종은 종법령 정보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무팀(총무행정·기획·전산·종회사무행정팀)을 구성, 법령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인 (주)엠텐과 함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법령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등 일부 정부기관에 국한 되어 있다.

조계종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도들의 종법령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도와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종법령 정보홈페이지의 개통으로 종법령 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인터넷 서비스, 이력관리를 통해 종법령에 근거한 종단행정 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지금까지는 문서로 된 종단 법령집에 의존해 법령 확인과 공포 등 이력관리가 미흡했으며 종도들에 대한 종법령 안내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행 종법령 목록 및 법령 전문으로 검색과 인쇄, 저장이 가능하다. 또 게시판을 통해 종법령 관련 문의나 유권해석 질의를 하면 조계종 법무전문팀이 답변해준다. 또 2월 이후 법령개정의 이력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연혁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조용수기자



지관 스님이 '위자야 시리' 대사에게 보자기에 새겨진 친필휘호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스리랑카 대사 "한국불교 못 잊을것"

본국 귀환 앞두고 지관스님 예방

위자야 시리 주한 스리랑카 대사 부부가 1월 24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 3년간 한국불자들과 인연을 맺어왔던 위자야시리 대사가 3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전 지관 스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지관 스님은 "2월 중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 복지센터가 본격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도 조계종이 직접 의료봉사를 나섰다"고 말하고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스리랑카에 쏟았던 정성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자야시리 대사도 조계종이 그동안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위자야시리 대사 부부에게 스님의 친필 휘호가 담긴 보자기와 전통한과를 선물했다.

조용수 기자

'정화' 인가 '법난' 인가

<태고종사> 발간으로 조·태 견해차이 재확인

<태고종사(太古宗史)> 발간으로 해방 이후의 불교사를 바라보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입장차가 얼마나 컸는지 재확인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산하 종단사 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 스님)가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불교 태고종의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의 일부 문구들이 조계종을 폄하했다며 조계종이 기관지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은 청담·동산·금오·월하 스님 등 1950년대 당시 분규를 주도한 스님들을 '종권 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종단 주도권에 눈이 멀어버린 비구수행승' 등으로 표현한 것.

<불교신문> 1월28일자에 따르면 "조계종단과 종단 스님들 그리고 정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 글은 수도 없이 많다"며 "특히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종권을 탈취한 어용 비구승단'이라거나 '원(原)조계종을 강탈한 종단'이라는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태고종측의 폄하와 왜곡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수열 스님은 "분규당시의 성명서와 재판자료 등에 근거해 책을 썼으며 이 책은 어디까지나 한국불교사가 아니라 태고종 종도를 위한 태고종 역사일 뿐"이라며 "과거에 편찬됐던 조계종사도 조계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번 책도 태고종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쓴 것인데 일부 문구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스님은 "두 종단의 시각차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시중에 시판하지 않고 종도들을 위한 비매품으로 출간했다"며 "조계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조계종도 이승만 정부에 대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승려를 본떠 결혼한 승려는 중이 아니니 절에서 떠나라'는 유시를 내리자 분파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정화'라고 명명했지만, 태고종은 '법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처승(帶妻僧)'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또한 이 책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지왕 김춘삼을 직접 불러 폭력배들을 동원해 태고종 스님들을 협박하도록 지시한 증거를 김춘삼의 자서전을 밝히는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해 한국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한 김광식 교수(부천대 교양학부)는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단순한 자료집 수준"이라며 "역사서는 보는 사람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인 관점이 전혀 배제될 순 없지만 이 책에는 역사적인 해석이나 설명보다는 법령 등 자료의 나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역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지양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배려하는게 필요한데 이 책에는 폄하한 문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태고종사>에는 이승만 정권이 불교계 내부문제에 개입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정권 의도, 태고 보우 종조설이 보조 지눌 종조설로 바뀌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불교 분규의 지속으로 야기된 불교계의 피해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김주일 기자

태 - 불교사 아닌 종단역사
조 - 폄하·왜곡부분 많다

3월은 스님들 '연수의 달'

조계종 10년·20년·25년차 이상 연수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승랍 10년차, 20년차, 25년차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지도자연수'가 개최된다.

승랍 10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1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1994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94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 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한다.

승랍 20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5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87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87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한다.

승랍 25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5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82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82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 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한다.

각각의 연수에서는 △불교지도자론 △불교지도자 진단 △리더십, 기획력 향상/도반과의 시간 △도제양성 및 지도 방법론 △워크숍(불교지도자의 과제) △불교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연수는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20만원.

입교를 희망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로 신청하면 된다. (02)2011-1807~8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11곳 신규지정

문화관광부는 최근 죽림사를 비롯, 제천 한산사(주지 동범), 고창 참당암(주지 법만), 성주 심원사(주지 본해), 제주 보덕사(주지 혜전), 진주 총림선원(주지 보안)과 홍천 쌍계사(주지 정달), 남제주군 선광사(주지 수열), 북제주군 월영사(주지 정우), 강릉 청학사(주지 법타) 등 11곳을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조용수 기자

지관스님 회장에 추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1월 20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한일불교교류문화협의회는 이날 서울 하림각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을 부회장으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이사장으로,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조용수 기자

여래종 총무원장에 혜안스님

성남 약사사 주지 혜안 스님이 한국불교 여래종 제10대 총무원장으로 1월25일 추대됐다.

혜안 스님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종단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여래종은 원로원장에 전곡 일흥사 주지 일흥 스님, 종회의장에 함양 도선암 주지 법수 스님, 교육원장에 부산 보국사 주지 보당 스님, 호법원장에 원주 대성암 주지 법룡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031)734-3205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고려 초조대장경 '대반야경' 해외 유출 우려

<고미술 저널>서 김호년씨 주장… "문화재로 지정해 막아야"

일본 안국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려 초조대장경 인출본 <대반야바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 수백 권이 국내 반입돼 있으나 문화재 지정 등의 보호장치가 없어 해외 유출마저 우려되고 있다. 초조대장경 <대반야경>은 1988년과 1995년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미술 전문가 김호년씨는 <고미술저널> 최근호에 기고한 글 '고려 초조대장경판 <대반야경>의 고독한 귀향'에서 <대반야경>의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반야경>은 김해 부근 서백사에 봉안돼 있던 것으로, 일본이 약탈해갔다. 591권이 일본 안국사에 보관돼오다, 1994년 493권을 도난당했다. 이후 <대반야경>이 국내 반입돼 유통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는 <대반야경> 3권이 국보 제284호로 지정됐는데, 안국사에 보관돼 있던 것과 유사하다 해서 일본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 후로는 유사한 <대반야경>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반야경>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입수 경위는 알 수 없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인만큼 적극적인 문화재지정을 통해 <대반야경>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 내용	강의내용	강의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 예수재,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서예(범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우승가대학학장

동국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될까?

동국대 이사회가 교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 인력도 총장이 될 수 있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 24일 제215차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복수의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추천위는 총학생회, 학교노조, 교수회, 총동창회, 조계종단 관계자 등 학교와 관련된 약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들의 추천을 받은 복수 또는 삼배수 교수나 외부 전문 인력은 이사회의 최종 결정으로 총장에 당선된다. 이전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치른 뒤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규정 없이 진행돼 왔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와 관련해 23일 이사장, 교수회, 노조, 총학생회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현해 스님은 "금번 이사회를 통해 총장선출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하는 진정한 뜻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통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고뇌에서 출발되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회장 염준근)는 "새해 벽두부터 그 동안 풍문으로 나돌던 재단과 학교당국의 재집권 음모설이 재단 · 학교당국 일방 주도의 '총장후보자추대위 규정' 제정으로 현실화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또한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총장이 자신의 후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 최광제)도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규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들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려는 학교 당국의 형태는 온전히 동의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차기 이사회로 안건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사회, 학생 · 노조 · 교수로 33명 계획
교수회,"협의과정 없었다" 절차 문제제기

이에 대해 현해 스님은 "'집권연장'이니 '총장의 무모한 욕심'이니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수호와 차기총장에 대한 가감 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총학생회(회장 정성전) 또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며 학교 당국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가는 교수회의 태도는 변화에 둔감하고 개혁을 부정하는 또 다른 수구의 전형일 뿐"이라며 교수회를 공격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변민우 노조 사무국장은 "규정제정 내용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장선출제도에 대해 아무런 논의나 절차도 없이 학교와 노조가 협의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제정을 하려고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사회가 차기 이사회 이전 교수회, 학생회, 노조 등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총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떡국 드시고 오래 사세요"

양정복지센터, 저소득 어르신에 떡국거리 전달

나눔의 온정기 우리이웃 buddhanews.com

1월 25일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 가족 없이 외롭게 일상을 이어가던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가 주최한 설날맞이 떡국거리 전달식에 참석한 지역 150세대 어르신들은 용호어린이집 원생들이 펼치는 재롱잔치에 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날 행사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떡국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르신들에겐 아이들의 귀여운 율동이 그 어떤 선물보다 반가운 눈치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설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떡국거리를 마련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해, 떡가래와 떡국 고명으로 사용할 표고버섯, 김, 소고기 등을 정성껏 마련했다. 또한 간식인 사탕까지 준비해 함께 전달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혜총 스님은 "큰 선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떡국을 어르신들의 새해 아침으로 드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천원 이상의 후원금과 쌀, 가래떡, 과일, 김, 라면, 음료수 등의 후원물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051)866-0454 **천미희 기자**



▲나눔성금 1월 입금자
안현정 3,000 / 박상환 30,000 / 신금례 50,000 / 김애자 30,000 / 백석주공열쇠 44,680 / 박찬도 30,000 / 변융태(천일이앤씨) 100,000 / 김호란 50,000 / 조근영 1,000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478,320

▲나눔성금 지출내역
사업진행비(저금통 및 스티커 발송, 택배비, 운송비 포함) 782,020
스리랑카 쓰나미 취재비 지원 100만원
1차 장학금 25,946,990
2차 장학금 14,274,250

나눔성금 총 잔액 11,188,380

진각복지재단 화두는 '네트워크'

지역 심인당-시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기대

'진각종의 새해 복지 화두는 네트워크 구성.'

진각복지재단은 1월 17일 총인원에서 열린 산하시설장들의 신년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법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법인사업계획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산하시설 지도스승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산하시설 지도스승제'는 각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심인당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제도다. 주요 산하복지시설에 지역의 심인당 지도스승을 위촉해, 기관 운영에 정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또 지도스승제가 도입되면 지역 심인당의 신도, 청년회 등과의 교류도 증대돼 자연스럽게 복지시설 자원봉사도 활발해 질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덕대 산하 진각사회복지연구소와의 협약체결을 완료해 복지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99년 발족 이후 활동이 부진했던 봉사단도 서울산하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조직해 재출범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밖에도 올해 중랑노인전문요양원(6월 개원), 대구서구노인전문요양원(8월), 포항위덕노인요양원(10월), 미혼모시설 및 울릉군립 어린이집(5월) 등 5개 시설을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지율스님 광주 병원으로 이송

24일부터 치료받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해있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월 27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취재진 등의 방문이 잦아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지율 스님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 지인들과 동생 조경자씨의 권유로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갑자기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월 5일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후송된 지율 스님은 계속 치료를 거부해오다 입원 19일만인 1월 24일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해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된 수액공급 수준의 치료만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이사회 연기

제215차 동국대 이사회가 성원 미달로 연기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 24일 동국대 본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총원 13명 중 6명이 참석, 과반수인 7명에 못 미쳐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비집행관련 교육부 시정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무효소송 및 업무방해 고소자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이사회가 열릴 본관 앞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강 교수 직위해제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3000배 릴레이 기도 정진에 들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농업 농촌 살리기' 좌담

무너져가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1월 23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모심과살림연구소, 초록정치연대가 주최한 '2006 생명과 평화의 조건을 찾아서' 좌담회는 생명과 평화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주제 강연을 발표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공동체는 생명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생명 평화적 가치척도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박사는 "정부의 탈농재촌 정책이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소정 형태의 합의를 통해 대안적 사회 프로그램 마련과 논의체계 정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농촌을 살리는 대안은 유기농'이라고 입을 모으며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해 판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동백림 간첩단 아니다'
과거사委 발표 환영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이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의 '동백림 사건' 발표와 관련해 "동백림 사건이 40여년 만에 가해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내용이 발표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월 26일 발표했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성명서에서 "발표 내용 모두에 대한 수용여부는 향후 관련 단체 및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정확한 진상 규명작업이 참여정부의 다른 과거사 조사 기관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심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연 기자**

연등축제 율동 자료집 나와

봉축위원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공동으로 1월 16일 연등축제에 사용됐던 율동을 총정리한 <연등축제 율동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그동안 연등축제를 위해 작곡한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27곡이 각 노래마다의 율동 사진과 함께 들어 있다.

특히 율동 하나마다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달아 놓아 사찰이나 신행단체의 행사나 법회 때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목탁소리

승복연합회에 바란다

최근 '전국승복연합회(임시회장 임판수)'라는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생겼다.

40여 년 전부터 의제를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조계종이 올해 종단차원의 직접 가사를 제작하겠다고 나서면서 300여 승복업체가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불심으로 스님들의 법의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는데, 종단이 직접 스님들의 옷을 만들 경우 대부분 영세 업체인 승복제작사들은 혹시나 생계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보륜 가사천의 의장 등록과정에도 특정업체와 관련한 총무원의 특혜시비가 무성하다.

하지만 스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처지에 종단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 대놓고 반대를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연합회를 급조하는 등 부산한 이들에게 동정적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승복업체들은 종단의 의제통일 노력에 뒷짐만 지고 있었고, 스님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긴다는,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요며칠 총무원 주변의 소동을 보면서 의제통일 불사가 여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무원도 이들을 이윤만 밝히는 승복업자 취급을 하며 배척하기보다, 실질적 전문가 집단인 승복연합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奉 道唵 性道 大宗師 1주기 추모재 行



도암 성도 큰스님께서 열반하신지 1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명당수에 나투신 영롱한 사리가 큰스님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1주기를 맞이하여 전 문도스님들은 물론 전 종도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큰스님의 위덕을 다시한번 새겨주시기를 앙망 하나이다.

도암 문도회 명단(무순)

법효 법정 법청 법천 법상 법호 법서 법진 법운 법웅 법현 법오 법인 법전 법장 법두 법우
법관 법연 법화 법신 법광 법선 법성 법관 법명 법공 법춘 법윤 법종 법산 법도 법타 법경
법흥 법화 법혜 법계 법등 법열 법덕 법륜 법수 법창 법찰 법칠 법암 법향 법일
지법 혜광 혜천 일봉 묘심 성명 벽송 벽암

[재가불자]

황흥기 대광명 고윤동 죽 산 박영숙 관음행 김명옥 자비행 엄경숙 환희심 배상옥 김순덕
신선자 우순복 정영순 진인복 김선애 송석희 김선희 박상옥 서길순 박신자 이래춘 이경순 신통력
흥도사신도회 회장 서운자 총무 이지희

일 시 : 불기 2550년 2월 13일(음력 1월 16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 흥도사 대웅전
문의처 : 02)2234-2198 / 문도회 총무 011-507-2837

대한불교 대승종 종찰 흥도사 주지 법운 성원 합장
도암 성도 대종사 문도회 회장 법호 서호

대한불교 대승종 임원공고

부 종 정 법청 천광
총무원장 법천 청화
중앙종의회 의 장 법호 서호
중앙종의회 부의장 법서 청원
감 찰 원 장 법상 심곡
고 시 원 장 법성 정산
교 육 원 장 법진 도일
기 획 실 장 법웅 정관
총 무 부 장 도인 지법

재무부장 법웅 정관 교육부장 법창 덕문
복지부장 법연 덕운 의정국장 원도

서울교구 종무원장 법암 혜심 경기교구 종무원장 법신
강원교구 종무원장 탄오 충청교구 종무원장 혜능
전북교구 종무원장 법전 법현 군산교구 종무원장 덕일
경남교구 종무원장 법인 운남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암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수 청운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부산 남구 우암1동 174-32 진원암 TEL 051)638-4088



지난해 4월 불의의 화재 사고를 당한 양양 낙산사는 사찰 복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비록 '사고'에 의한 미징수이지만 불교계에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문화재 관람료 없어져야 한국불교가 산다?

지난해 4월 불의의 화마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된 양양 낙산사의 복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88억원에 달하는 복원비를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와 관리 비용으로 징수되는 것인데, 또다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수백억에 달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정확한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낙산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계 안팎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합동징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란 점검에 이어 문화재 관람료 문제 논란을 짚어본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로 일반인들 불만 고조
관람료 의존 포교·수행 소홀 우려 … 자생력 저하
폐지 반대 불교계 인사들도 "대안만 있다면 찬성"

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앞과 뒤
2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할 것인가?

#1962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시작된 시기는 1962년이다. 팔만대장경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해인사에서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에 도입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보다 8년이나 앞서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제도는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에 비해 문화재 관리와 보수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①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문화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요금 징수는 당연하다"면서도 "불교문화재의 경우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해당사찰이기 때문에 관람료 문제에 있어서 일반문화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 불투명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왜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도 합동징수 형식으로 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강제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사찰을 들르지 않는 입장객으로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마치 물건을 사지도 않고 돈을 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징수 당한 관람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입장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내놓았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문화재 보수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의 원인이 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조계종 문화재 관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수백억에 달한다. 2005년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2000여억원 중 236억이 넘는 돈이 조계종 문화재 보수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교계의 자생력 실종을 근거로 꼽는다. 조계종 주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면서 포교와 수행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신도운동50년 평가와 올바른 신도상 정립'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박희승 차장은 "문화재 관람료에 의지하여 사찰을 유지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스님들이 신도 교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계 여론주도층의 생각은?

이러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에 대해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의 생각은 어떨까? 본지가 출·재가 인사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결과 42.3%인 22명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찬성입장을 보였고 57.7%인 30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재가자 27명 중 20명은 폐지를 찬성한 반면, 출가자 25명 중 23명이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한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스스로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불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람료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경우 사찰에 가면 시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찰입구에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관리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를 반대하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문화재보호법에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찰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를 여론에 휩쓸려 폐지하자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부천대 철학과 김광식 교수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징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찰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관람료 징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20개 사찰을 대상으로 폐지 여론을 살펴본 결과 관람료 수입이 많은 절일수록 폐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자급자족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이와 같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관한 여론에서 또 눈여겨 볼 대목은 관람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안이 있다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보전해준다면 폐지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불교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를 당분간 보전해주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또 "포교를 해야 불교가 산다"며 "현재와 같은 체제에 안주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조계종이 요청을 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를 주장해왔던 문화연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 사용 투명화를 위한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제기가 옳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불교계 미래를 위해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대안을 준비할 때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문화재 관람료 관련 설문 명단

● 스님(25명)

동선(조계종 기획실장), 정만(조계종 재무부장),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일관(조계종 포교부장), 정념(월정사 주지), 진각(마곡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영조(송광사 주지), 몽산(대흥사 주지), 철안(봉선사 주지), 일면(군종교구 주지), 법산(동국대 교수),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의연(중앙종회 의원), 종훈(중앙종회 의원), 초격(중앙종회 의원), 장적(중앙종회 의원), 지홍(불광사 회주), 장곡(갑사 주지), 현각(성불원 원장), 세영(신륵사 주지), 금강(미황사 주지), 동출(설법연구원 원장)

● 재가불자(27명)

임완숙(前 교사불자연합회장),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김광식(부천대 교수), 공병수(부산불교신도회장), 허통(감정평가사불자회장), 박경준(동국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교수), 송도근(건교부불자회장), 남지심(소설가), 김종두(경향신문불자회장), 김익석(대불청회장), 황진수(한성대 교수), 김용표(교수불자연합회장), 박노영(공인회계사불자회장), 권준희(광동중 교법사), 김재일(동산반야회장), 이탁수(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식(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장),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장), 윤천수(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정병조(한국불교연구원장), 신보라(대불련 회장), 박광서(재가연대 상임대표), 김의정(중앙신도회장), 김영주(해인사 종무실장) (무순)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2005년 11월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의 공연모습. 왼쪽부터 리더 정성민 조창준 추현철 박윤규 류재용씨.

불음 전하는 날개짓 훨훨~

부산 불교계 첫 남성중창단 '청공(晴空)' 5월 창단

1월 22일 밤, 부산동의대학교 음악대학의 한 연습실. 저음의 노래 소리가 새어나온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찬불가다. 열린 문을 밀고 들어서니 부산불자성악가협회 남성 쏠리스트 중창단 청공(晴空) 멤버들이 연습에 한창이다.

청공의 멤버는 리더 정성민(39)씨를 비롯, 류재용(39), 조창준(34), 박윤규(33), 추현철(32) 등 모두 5명. 이들 모두 음악을 전공한 불자들로,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올 5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정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창단연주회도 갖는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남성중창단이 공식적으로 창단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창단은 5월이지만 청공은 부산불교계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남성중창단이다. 2004년 1월 9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꾸준한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한달에 2~3회 정도 부산불교계 행사에서 축하공연도 가져왔다.

찬불가 담은 CD 제작 계획
지휘자 모임 정례화 모색

또한 멤버들 모두가 성악을 전공한 석사들이고, 홍법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원불교 경남교구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으며 대구시립합창단 단원이거나 전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지낸 실력을 갖추고 있어 청공에 거는 기대는 높다.

그러나 청공이 넘어야 할 산은 더 높다. 우선 최초의 남성중창단이라는 자부심만큼이나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게다가 청공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청공의 멤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래 소리가 조그마한 산사에서, 또 저자거리에서, 가정집에서 늘 메아리치길 서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찬불가를 담은 CD 제작을 계획 중이다.

시디 제작 비용 마련이 벌써부터 걱정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출 수 없듯, 음악 포교의 꿈도 멈출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지휘자들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학술적인 발전방향 모색에도 노력하겠다는 포부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힘을 모으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 닿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교육대 '시끌'

학장 선임관련 갈등 해넘겨 도출
"문제 당사자 학장 추대 상식 밖"

재가 교육의 일번지로 통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시끄럽다.

최근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정상화에 나섰던 수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법산 스님(원효정사 주지)이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오랜 갈등이 표면화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은 2005년 9월, 강선태 학장의 후임자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2003년 박주천 부학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시작된 부산불교교육대학 차기 학장 문제가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재학생과 총동문회와의 갈등, 강선태 학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혜총 스님과의 갈등으로 확대됐다. 수습위원회가 꾸려지고 강선태씨가 차기 학장으로 추대됐지만 법산 스님이 다시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법산 스님은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강선태 전 학장이 수습위원회를 통해 합의했던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학장에 취임함으로써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며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는 사람이 재가 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새로운 교육의 터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산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태씨는 법산 스님의 주장에 대해 "수습위원회의 다수가 다시 학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다시 왔다. 앞으로 원만하게 수습할 때까지, 또 사옥 이전 등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준비중인만큼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을 지켜봐온 부산불자들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가불자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철저한 자기비판과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마창불교련 불우이웃돕기 행사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1월 20일 마산시청 6층 회의실에서 제16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이사장 이보리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는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20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 840만원, 마산 가포요양원 내 법당 관해사와 환후 후원비로 6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가정 밑반찬비 200만원 등을 전달했다.

마창불교연합회 이사장 지태 스님,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전달식에서 원정 스님은 "더 많은 분들의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촐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6개국 주한 대사들 범어사서 다도체험



26개국의 주한 대사 부부 및 가족들이 1월 22일 범어사를 찾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칠레, 이집트, 오만, 페루, 태국 등 26개국의 주한 대사 가족 60명은 범어사를 방문, 일주문을 출발 대웅전을 참배하고,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과 함께 다도 체험(사진)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성 스님은 "인류, 종교, 민족, 국가를 모두 뛰어넘어 세계는 하나"라며 "참선을 통해 종교를 초월 참다운 내면의 세계를 밝혀 종교 갈등과 국가간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도천 스님 유고집 출판 기념회

신부전증으로 20년여를 넘게 투병해오다 지난해 12월 3일 입적한 도천 스님의 유고집 <살아생전 단 한번 만이라도>(날마다 좋은 날)' 출판 기념회가 1월 20일 부산 영도 미룡사에서 열렸다.

49재 막재와 함께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스님의 유고집을 낸 박동범 부산불교교육원장과 도천 스님의 고향 친구들, 미룡사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의 유고집은 병마와 싸워야 했던 긴 시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특유의 유머와 수행의 힘으로 이겨냈던 얘기들을 담담하게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재통합 위한 첫 단추

부산지역 청년불자 범어사서 간담회


범어사에서 열린 부산 청년불자들의 간담회.

부산의 청년불자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1월 21일 범어사 설법전에 둘러앉은 불교청년단체는 모두 17개.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떻게 하면 청년불교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것인가'를 화두로 머리를 맞댔다.

이날 모임은 1993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이하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의 양분으로 침체일로를 걷던 청년불교운동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1993년 40개에 달했던 청년단체 수가 2005년 16개로 절반 이상 격감한데다, 이제는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가 손을 잡고 청년불교운동의 새틀을 짜야 한다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청년,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부산지역 청년불자 간담회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박정현 범어사 신도회장, 이승룡 범어사 청년회장,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날 범어사 청년회가 그동안의 골 깊은 갈등을 뒤로 하고 대불청 부산지구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 재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범어사 포교국을 주축으로 꾸준히 준비돼 왔다.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 지역 청년단체 임원들의 모임인 청년불교연대가 정기 모임을 열며, 청년불자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자리에 마주앉게 된 청년불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밝았다.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청년센터 건립, 1만 청년 전법단 결성 등이 제안됐다.

오는 6월 10~11일 범어사에서 열리는 제25차전국청년대회를 청년불자들의 힘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억 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에는 그동안의 갈등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범어사 청년회 이승룡 회장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의 모든 청년법우들이

대불청 · 조계종불교청년회 통합 노력 구체화
청년대회 · 센터 건립 · 전법당 결성 등 의견 나눠

힘을 모아 차근차근 불교운동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청년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대불청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도 "앞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의 힘이 청년운동의 힘이 되도록 하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합을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천미희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
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읍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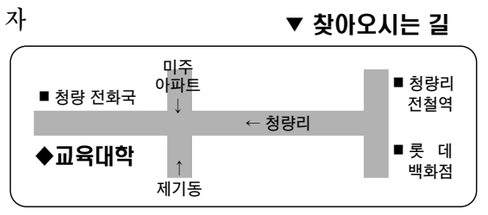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6年 1月 25日 ~ 2月 15日
▶ 입 학 일 : 2006年 2月 16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대광맹인불자회 법인화 추진

재활교육 · 장애인 안마사업장 등 사업안 마련

"모든 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품에서 깨어나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제2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1992년 창립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불심을 다져 온 대광맹인불자회는 "부처님 품에서 재활의지와 용기를 얻었으면 부처님의 세상을 실제 삶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 걸고 올 해부터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활교육사업과 장애인안마사업장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고 있다. 법인설립은 맹인불자회의 도약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토대'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40평 남짓되는 법당 하나밖에 없는 상황. 주변에서는 장애인들만의 힘으로 무모한 꿈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지만 회원들은 시각장애를 딛고 맨손으로 법당을 일궈온 14년 동안 무한한 가능성을 수없이 느끼고 체험했기에 누구보다 자신에 차 있다.

무일푼에서 푼푼히 돈을 모아 5년 만에 대광맹인불자회를 창립하고 법당을 만든 이들이다. 처음 16명의 회원이 160여명으로 늘었다. 1992년부터 시행한 '시각장애인 갓바위 등반대회'는 매년 전국의 시각장애인 200여명이 참가해 용기를 얻는 대규모행사로 발전했다.

또, 장애인으로서 도움만 구하지 않고 먼저 돕겠다고 나선 안마봉사활동은 장애인들과 사회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93년 청송감호소 안마봉사를 갔을 때는 수많은 재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기도 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구현하기위한 원력을 세우고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1년간 여러 법인체를 방문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 제반여건을 배우고 갖췄다. 필요한 구비서류도 모두 준비한 상태. 이사진만 확정되면 2월 중 종교 법인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법당을 100평 이상 규모로 확장 이전 하기 위한 원력도 세웠다.

그러나 불사금 마련이 숙제다. 불사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바자회도 개최하고, 스님들의 서예작품전시회와 각종 공연 등도 구상중이다. 일단 법인화작업이 마무리되면 후원회 구성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경림 사무국장은 "장애인불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053) 256-0114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하재웅

대구 구도회 회장

1월 23일 오후 3시, 대구 남구 대명동 구도회 법당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며 바쁘게 움직이는 이가 있다. 자그마한 사무실 방에서 전기 난로 하나로 추위를 쫓으며 컴퓨터 앞에 몰두해 있는 하재웅(66세) 회장이다.

"열면 미결이고 펴면 완결입니다."

하던 일을 덮으며 슬쩍 던진 한 마디에서 지혜와 깊이가 묻어난다. 하 회장은 1982년 이기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충만감을 느껴 평생 구도회에서 신행활동을 해 왔다. "안동사범학교시절에는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기도 했지만 이기영 박사의 강의는 불교가 현대적 학문으로 정련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회고다.

하 회장은 초등학교 교사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도회에서 청년회 총무, 일반회 총무를 거쳐 대구구도회 회장만 10년을 맡아왔다. 특히 몇 해 전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불사관계로 해체 위기를 맞게 된 구도회를 맡아 위기를 수습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2004년부터 활동을 대구불교계로 확대해 나갔다. 대구신행단체연합회장으로서 지역 신행단체의 발전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 하 회장은 지역교계에서 존경할만한 재가불자로 단연 꼽힌다.

교계에서 활동하던 청년 불자가 주례를 부탁할 정도다. 지난해 연말에는 동화사로부터 포교대상까지 수상했다.

하 회장은 지극히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 웬만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60을 훌쩍 넘기는 세월 속에서 하 회장은 1996년 단 하나뿐인 아들을 몹쓸 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3자는 모른다. 태산보다 큰 아픔이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픔마저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녹여내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주변에 감동을 주었다. 그만큼 공부가 깊고 집착 않는 삶에 적응이 됐다는 것일 터이다.

"아들이 나에게 진 빚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이것저것 해달라며 귀찮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이 떠난 아픔을 제3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정리해 나간 하 회장은 하나의 아들을 잃었지만 세 아들(아들 친구 둘이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떠난 아픔을 삭이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사미 스님을 아들로 삼게 됐다)을 얻었다. 또, 기독교인이었던 부인이 독실한 불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이 곧 기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하 회장. 그는 불교계가 응집력이 부족한 것을 아쉬움으로 꼽는다. 재가 출가 승단을 막론하고 순수한 불교인으로 행동해야한다는 것이 하 회장의 지론이다. 지역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재가불자의 참여가 넓어져야 하며, 스님들이 수행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승가노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기영 박사 강의 듣고 발심 '구도회'서 신행
10년간 회장직 맡으며 지역 단체 활성화 앞장

배지선 기자

일연스님 탄신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7월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7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위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은 1월 24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일연선사 탄신 800돌을 기념하는 일연삼국유사대제전의 일환으로 국내외 20여명의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가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학술대회는 삼국유사를 문학과 역사학 민속학 불교학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독일과 호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한국고대사와 불교사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청해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학자 초청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과 경북대 사학과 주보돈 교수, 상주대학교 한기문 박물관장 동국대사학과 김상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인각사 불상 봉안 발원문 발견

군위 인각사 극락전 불상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발원문이 최근 발견됐다.

경주 동국대 황상주 교수가 인사동에서 접하게 된 발원문에서 '안우 인각사(인각사에 봉안한다)'란 글귀를 확인한 후 인각사로 연락해 확보한 것이다.

인각사(주지 상인)는 2004년 5월 극락전 해체복원을 위해 아미타불 복장을 개봉했을 때 아무런 유물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미뤄 도난당한 복장 유물일 것으로 보고있다. 발원문에는 강희 27년(1688)이란 연대와 발원내용, 시주자 이름 등이 쓰여 있다.

인각사는 17세기에 봉안했다는 명문이 기록된 발원문을 발견함에 따라 아직 정확한 조성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인각사 극락전과 아미타불 좌상의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과 문화재 지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 주민 위한 떡국잔치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지역장애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 맞이 떡국잔치'를 펼쳤다.

떡국은 선본사 갓바위 등에서 후원한 쌀로 만들었고, 복지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경주시여성의용소방대 회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해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됐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지성 스님 총재 위촉
대구경북불교합창단연합회

대구경북불교 합창단연합회는 1월 24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제4대 회장단이 · 취임식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총재로 추대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 불교방송사장 법조, 태고종 종무부원장 현수, 천태종 대성사 총무 보광,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회장 경희 스님, 동화사 신도회 허석구 신도회장, 대구불교음악협회 이달철 회장 등 교계 내빈과 200여명의 대구지역 교계 합창단원들이 참석해 대구경북불교합창단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도울 것을 약속했다.

대구경북불교 합창단연합회는 동화사, 은해사, 직지사, 영남불교대학 진각종, 천태종 등 종단을 초월한 대구경북 지역 18개 불교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배지선 기자

독거노인들에 생필품 전달



군위사원연합회와 군위불교대학, 군위불교신행단체인 봉사단, 합창단, 산행단이 설을 앞두고 군위군 7개면과 읍의 독거노인 25명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각 면단위 소방파출소에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 라면, 떡국, 강정, 밀가루, 식용유 등 모두 2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원됐다.

배지선 기자

외국인근로자 위한 눈썰매축제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인 관오사 부설 마하부다 대구 보현의 집(대표 지도)이 대구 우방랜드의 협찬을 받아 1월 22일 대구 우방랜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눈썰매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 참석한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은 난생 처음 타 보는 눈썰매의 재미에 푹 빠졌다(사진).

배지선 기자

한국불교문화 콘텐츠연구소 설립 예정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1회 세미나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은해사에서 열렸다.

'한국기층문화로서의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의 '민족통합이념으로서의 불교와 한국문화' 국사편찬위원회 김근태 연구위원의 '불교문화의콘텐츠 개발현황과 미래' 명지대 문화콘텐츠 연구소 최경국 소장의 '일본 불화 속에 나타난 힘의 표현' 등이 발표됐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몇 차례 모임을 가졌던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연구소 개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정식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감통증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난치불치해방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完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 : 1 완전 맞춤 치유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닥터스® 02)782-0022

병술년 불기255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홍파

부원장 황법명

총무부장 김대홍 / 종회의장 정법륜
총무국장 신성법 / 부의장 김경철 / 부의장 강백제
재무부장 박지열 / 호법원장 김경철
재무국장 박지성 / 교육원장 김동령
감찰부장 이의선 / 수교부장 이효천 / 역경부장 이대광
교무부장 권종일 / 수교국장 최법주 / 역경국장 한진각
교무국장 신도중 / 포교원장 김지섭
사회부장 조법호 / 포교부장 황혜광 / 조직부장 임법경
사회국장 이도각 / 포교국장 김법경 / 조직국장 정도명
감찰국장 임현묵

원력을 창출하는 종단! 깨어있는 종단!

(재)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0054, 3345 / 팩스 02)763-5851
www.kwanum.or.kr

봉 丙戌年 새해 2천만 불자가정에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축

본회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의 각 종정예하님의 助言과 기존 佛教宗團振興會員任의 一致團結로 擧國的 佛教中興을 위해 乙酉年 庚振月에 새로 태어난 組織團體로 명실공일 중생제도에 앞장 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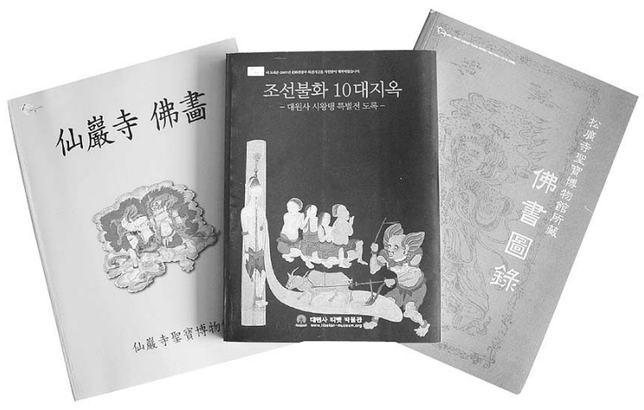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한국불교정토종 회암 총무원장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고 문 대한불교 현수종 총무원장 무송
■고 문 대한불교 불이종 종회의장 예원
■총 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부 회 장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종무총리 마정
■부 회 장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부 회 장 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정림
■부 회 장 대한불교 불이종 총무원장 학운
■감사위원장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지암
■종무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총무원장 법인
■포교위원장 국제불교 선덕종 총무원장 법성
■문화위원장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향운
■조직위원장 대한불교 선화종 총무원장 법천
■복지위원장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의전위원장 대한불교 삼계종 총무원장 일처
■사정위원장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회의장 구화
■호법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종회의장 덕진
■간사위원장 대한불교 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선관위원장 세계불교 미륵대종 총무원장 법홍
■이 사 용화불교 총무원장 법각
■이 사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동선
■이 사 대한불교 불광종 총무원장 청원
■이 사 세계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정산
■이 사 대승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혜공
■이 사 대한불교 홍재종 총무원장 운공
■이 사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청호
■이 사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이 사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
■이 사 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이 사 한국불교 미륵선종 총무원장 혜인
■이 사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회범
■이 사 대한불교 남파종 총무원장 법륜
■이 사 대한불교 미륵선교종 총무원장 법장
■감 사 대한불교 종회의장 대광

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총무원장 법봉

◆ 본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건물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0796
◆ 행정사무처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667-1 전화 051)335-2210 / 팩스 051)331-6210



송광사 · 대원사 · 선암사가 잇따라 성보문화재도록을 발간했다(사진 오른쪽부터).

‘성보유물’ 도록 3권 나왔다

송광사 선암사 대원사 박물관 수장고 유물 모아 불서·불화 도록 잇따라 출간

예향 전라남도의 사찰에서 잇따라 성보문화재 도록이 발간됐다.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선암사 성보박물관(관장 승범)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유물을 모아 <불서도록> <선암사 불화> <조선불화 10대지옥>을 각각 출간했다.

송광사 <불서도록>은 송광사에 소장중인 불교도서 가운데 경전류, 율전류, 논서류 등 3개분야를 모은 것으로 경전류 101권, 율전류 3권, 논서류 2권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불서는 화보와 함께 한글 한문 불서명칭, 간년, 판식, 반곽, 유 무계, 어미, 간기를 기재하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발간한 <선암사 불화>는 수장고에 있는 2300여점의 성보문화재 가운데 불화와 조사 진영을 담고 있다.

이 도록에는 괘불을 비롯한 불 · 보살, 나한, 신중탱과 조사 진영 111점, 복장물, 도량장엄번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각 불화마다 도판번호, 작품 · 작가명, 시대 또는 제작년도, 재질, 작품크기가 표시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각 작품의 해설을 담고 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 장모창 학예사는 “태고총림 선암사가 지난 2001년 숙원불사인 성보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불화를 정리해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며 “불교회화 연구가는 물론 불자들의 신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사가 지난해 개최한 시왕탱 특별전 도록으로 발간한 <조선불화 10대지옥>은 조선 영조 42년(1766) 비구니 묘성 스님이 주변의 여러 스님들과 함께 시주자가 되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지장탱과 10분의 시왕도를 담고있다.

특히 대원사 시왕탱은 사세가 기울어 광주 덕림사에 모셨다가 2003년 대원사로 돌아와 이듬해 유형문화재 266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 부록에는 불모 석정스님과 불화가 이경화씨의 시왕탱 해설, 김범수 교수(원광대)의 논문 ‘조선불화 재료와 기법’을 담았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수장고에 한낱 고서나 불화로만 보관되어 있던 성보가 밝은 세상 속으로 귀중한 보물이 되어 나왔다”며 “송광사 선암사 대원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불교문화를 선도한 대찰로 같은 시기에 성보문화재 도록이 발간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불교도시 구례에 사암련 창립

종파 초월해 화엄사 등 38개 사암 참여 지역문화 활성화 · 사회 참여 전개키로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불교도시 구례에 사암연합회가 창립됐다.

1월 24일, 화엄사 광학장에 30여명의 스님들이 모여 ‘구례불교사암연합회(이하 구례사암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는 구례사암련 창립은 물론 종파를 초월해 지역 사암스님들이 모여 불교 활성화를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참석자들은 총회에서 정관 및 회칙 확정과 사암련 준비위가 선출한 회장단을 추인했다. 또한 구례사암련 첫 행사로 4.8연합행사와 구례군민과 함께하는 ‘봉축예술제 및 제등행진’을 펼치기로 했다.

총회를 마치고 연곡사 주지 종지 스님은 “그동안 구례 불교는 개별 사찰의 신행에 머물렀다”며 “불교계도 지역문화와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해 불교위상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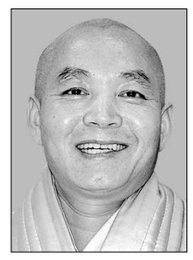
구례 사암련은 화엄종찰 화엄사를 비롯한 지역내 38개 사암 주지 스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불교 활성화와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보존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 및 임원단은 회장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 상임부회장 상훈(불락사), 부회장 묘희(백련사), 해명(봉성사), 진오(약천사), 총무 종지(연곡사), 사회 혜관(도계암), 섭외 연광(수미정사), 재무 덕해 스님(화엄사 교무)으로 구성되었다.

이준엽 기자

“잃어버린 불교 위상 찾겠다”

interview 구례사암련 초대회장 종삼 스님



“구례는 경주에 이어 사찰과 불교 문화재가 많은 제2의 불교도시입니다. 근래 들어 이 지역의 불교가 외형에 치우쳤다면 이제 사암연을 중심으로 불교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출범한 구례불교사암련합회 초대회장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은 “그동안 구례불교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미미했다”며 “사암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한사람의 문제의식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 발걸음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화엄사 주지를 맡아 ‘향후 천년의 화엄사 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교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종삼 스님은 “이제는 도량불사보다 템플스테이, 봉사단 발족, 사찰개방 등으로 내실을 기해 미래를 선도하는 사찰이 되도록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시내에 명상도량 자비선원이 문을 열었다.

도심속 명상도량 자비선원 개원

2월7일부터 ‘자비수관’ 정진

광주 시내에 명상도량이 문을 열었다.

옛 전남도청 옆 장동 사거리에 위치한 자비선원(주지 부민)이 1월 21일 개원 법회를 갖고 명상 수련을 통한 본격적인 도심 포교에 나섰다.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개원법회는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초청법회로 진행됐다.

지운 스님은 법회에서 “명상은 경제”라며 “마음이 편해지면 통찰력과 창의력이 생겨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도 설명했다.

자비선원은 2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자비수관 특별정진’을 한다. (062-228-7701)

몽골 대학생불자연합 지원 결의 송광사 교구종회 신년계획 수립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지난 1월 20일 사자루에서 신년도 첫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교구 본, 말사 스님들은 이날 종회에서 신년인사와 새해 예산, 분담금, 몽골불교 후원 등을 논의했다.

특히 몽골불교 후원사업을 펴고있는 송광사는 이날 몽골 대학생 불자연합회를 지원키로 결의하고 후원사업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마을’ 어디로 가야 하나

임대해 쓰던 폐교 공개매각 이전부지 마련못해 발 동동

장애우 요양시설인 부처님마을(원장 선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지만 부지 마련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면 덕성리 덕성폐교를 임대해 입주한 부처님 마을은 천안시 교육청이 폐교를 공개 매각함에 따라 오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을은 폐교 인수를 위한 공개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자금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 했으며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을 개최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시 교육청에 새로운 터전 마련에 대한 협조를 의뢰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부처님 마을 신도회는 1월 21일부터 부지마련을 위한 바자회(사진)를 개최하는 한편 천안시 교육청에부지 마련에 대한 협조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옥천사암련, 새 회장 현관 스님

충북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24일 정기총회를 갖고 현관 스님(용암사 주지)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상임부회장에 우담 스님(혜안사 주지), 내무부회장에 명안 스님(대약사사 주지), 감사에 묘희 스님(덕수암)을 각각 선출했다.

연합회는 이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경로잔치 및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신도단체 구성 △산사 음악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직지찾기 축제 등 올 사업 확정 청주 청원불교연합회

청주 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1월 24일 총회를 갖고 올 사업을 확정했다.

연합회는 오는 4월 교도소 방문 법회를 시작으로 봉축행사(5월)와 직지찾기 유등문화축제(9월), 연합합창제 개최(10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또 2월 7일 오후 2시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신년교례회 및 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1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2월 17일 금요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불사통해 내적 기반 다진다

천태종, 새해는…



유물전시관 · 구인사 광명당 건립 가속
북한과 교류 박차…자원봉사단 조직

천태종 올해 사업 키워드는 불사를 통한 내적 기반 조성, 복지활동 및 대외홍보 강화다. 천태종은 1월 25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지표와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사진)은 △종단 발전의 내적기반 조성 △대사회 참여 및 복지활동 강화 △종단 정보화 실현 및 대외홍보 강화 등 3대 종무지표와 18개 종무계획을 제시했다.

천태종이 내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불사'다. 우선 현재 30% 정도 시공된 천태유물전시관 건립에 올초 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구인사 광명당 불사(연건평 3600평)와 천태조사전의 연내 준공을 목표로 본산 성역화사업에 진력을 다할 방침이다. 3600평에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하는 금강대 불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6월에는 국내 학술대회를 11월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천태문화 학술 진흥사업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대사회 참여 및 복지활동 강화를 위해서 천태종은 남북불교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원된 개성 영통사의 성지순례를 위해 올 초부터 북측과 협상중이며, 개성국청사 발굴복원도 함께 서두를 생각이다.

운덕 스님은 "천태종이 북한과 교류를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후원이 아니라 불교문화의 교류에 원칙을 두고 있다"며 "경제지원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남북교류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 운덕 스님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대비해 현재 사찰내에 65명의 관리요원과 조선불교도연맹측 스님 9명을 배치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천태종이 올해 6월 안으로 의료봉사 등 기능별 직능별로 전국 사찰에서 5백여명을 선발해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구성된 간다라문화예술협회를 통해 파키스탄 지역의 고대사원 발굴 복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덴마크 고광사와 연계해 입양아들의 부모찾기 운동지원과 신도 3명이 한 불우 가정을 책임지는 3:1 결연사업도 확대한다.

종단 정보화 실현과 대외 홍보강화를 위해 천태종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강불교신문의 주간 발행이다. 7월부터 명실공히 범불교적인 주간신문으로 재창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사내 금강미디어센터를 설치해 인터넷불교뉴스를 동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군승파송문제도 올 3월말 국방부의 회신을 받고난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창종 60주년 준비의 해' 선포

진각종, 새해는…



기념사업회 구성, 교육·포교 비전 수립
밀교 전통의례 복원·탈북자 취업 지원

진각종이 올해를 '창종 60주년 준비의 해'로 선포하고 한국불교문화센터건립 추진 등 종단의 종책 불사 심화를 통해 대사회적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23일 통리원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창종 60주년을 기념해 4월 안으로 기념사업회를 구성, 교육과 포교 및 복지분야 등 종단의 전방위 분야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 · 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 우선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각종은 한국밀교 전통의례 복원사업과 한국불교문화센터 건립 및 총인원 환경정비 사업, 민족 복지를 통한 남북한 교류 사업 등 3대 종책 불사의 지표를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회정 정사는 "'가족 포교의 해'로 정한 포교사업 부문에서는 '건강한 가정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주에 있는 산내 연수원을 재정비해 주말수행센터로 탈바꿈시켜 불자들이 주말에 수행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법과 의례의식 재정비와 교육을 통한 스승 및 신교도 위계체제 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불사 및 법회 의식은 물론 조직과 교법 등을 현대 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개혁한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언, 찬불가 등 진각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리의 통일화 작업을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

또 사회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구호제도인 '진각복지 119'와 '진각복지 24시'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신행단체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한 '진각리더스클럽'과 불자 기업인들의 모임인 '진각실업인회'를 창립시킬 예정이다.

복지사업부문에서는 진각복지재단을 통해 국내 탈북자들의 취업알선 사업을 펼치며,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만경대 건너편 두루섬에 조성되는 비닐하우스 농장 사업도 북한측과 협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과 대구 포항에 노인시설과 미혼모 시설을 4곳 정도 올해안에 개원시킬 예정이다. 해외 복지사업으로는 현재 유아교육과 정화보화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스리랑카 JGO 센터에 불당을 개설한다.

이외에도 영상, 출판, 신문사업을 총괄하는 '밀교미디어센터'를 개소해 사이버 홍보사업을 강화한다. 또 천태종과 합심해 군승파송도 올해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김주일 기자



정억순 보살 좌복 2500채 기증

2월7일 강원도 일대 군법당에 전달 예정



정억순 보살이 군종특별교구에 좌복 2500채를 기증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양호 군종특별교구 상임자문위원, 이상무 50사단 군법사, 정억순 보살, 김기원 (사)새생명광명회봉사단 대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의 첫 번째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

군법당에 좌복 5000채를 기증하기로 약정한 정억순 보살이 지난 1월 24일 경북 칠곡 화랑선원에서 군종특별교구 상임자문위원 손양호 예비역 군법사와 50사단 이상무 군법사가 참석한 가운데 1차분 2500채의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 보살이 기증한 좌복은 10톤 트럭 한 대분으로 2월 7일 강원도 원주, 홍천, 인제 등으로 배송되어 각 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 보살이 군장병을 위한 좌복을 보시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평소 소신과 열악한 군포교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 그래서 10년 전부터 솜 · 양단지 등 재료를 모아왔다.

정 보살이 제작한 좌복은 군법사용, 장교용, 사병용 등 3종류. 각각의 좌복은 1kg 내외의 솜을 잘라 속지를 입히고 그 위에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가 입혀져 있다. 마지 위에는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양장재로 싸여 있어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작 공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 솜을 속지에 삽입할 크기로 잘라 하루를 재운 다음 속지 재봉을 한 이후 마지와 겨울용 양장재 제작을 해 속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좌복이 완성된다.

장교용 좌복에는 화랑이 말타는 모습과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래도 모자라면 이 몸도 던지라라'라는 문구가, 사병용에는 '조국을 위한다면 무엇인들 아까우리오!'라는 문구가 각각 수놓아져 있다.

1주일에 2~3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새생명광명회봉사단 대표 김기원 전주산업대 명예교수는 "좌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며 "수천만원의 빚을 얻어 군법당에 좌복을 보내기 위해 헌신하는 정 보살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말했다.

정 보살은 그동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무료로 이불을 보시해 왔으며 화랑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때 3천만원어치의 초코파이를 구매해 군법당에 보시하는 것으로 49재를 대신하는 등 군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이제 스님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불자기업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사 신도들이 서울을 출발해 봉암사로 가는 버스안에서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법문을 듣기전 잠시 선정에 든 신도들.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한 신도가 대웅전 불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봉암사에서 희양산 계곡을 따라 10분정도 걸어가면 만나는 마애보살좌상을 참배하는 조계사 신도들.


1월24일 조계사 스님과 신도 90여명이 대중공양을 위해 봉암사 법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신도들은 봉암사 대중들에 공양금을 전달하며 정진중인 스님들을 응원했다. 오른쪽 두 스님은 조계사 총무국장(맨 오른쪽) 지월 스님과 원주 도경 스님.

대중공양

부처님 재세시부터 내려온 전통
최근엔 음식보다 '공양금'으로

대중공양은 불자들이 하안거(음력 4월 15일~7월 15일)와 동안거(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에 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들께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대중공양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다. <사분율> 제13권에는 부처님당시의 대중공양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공덕을 묻는 신도에게 "비구들이 너의 밥 한 덩어리만 먹더라도 그 복덕은 한량이 없다"고 설한다.

이러한 대중공양 전통은 최근 들어 생필품이나 음식이 아닌 '공양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은 "예전에는 과일이나 떡과 같은 음식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사중에서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구입하도록 공양금을 보내 온다"고 설명했다.

장성 백양사(1월 9일), 의성 고운사(1월 16일)에 이어 세번째 현지 대중공양을 진행한 조계사 대중들은 설 이후 합천 해인사와 예산 수덕사에도 '온라인'으로 공양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중공양 문화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다.

정진 열기 뜨겁네요

조계사 신도들 '대중공양' 가던 날

90여 신도, 특별선원 봉암사로 동안거결제 스님들 찾아
선원장 정광스님 "정견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 돼야"
정성껏 모은 '공양금' 전달… 마애보살좌상 친견후 귀경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는 스님들의 구도열을 느끼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만 잃지 않으면 굳이 방부(房付)를 들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수행해 깨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몰아치는 겨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0여곳 선원에서 2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 정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사 스님과 신도 90여명이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태고선원이 있는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 희양산 선기(禪機)를 온몸으로 느끼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가 다시 찾아온 1월 24일 새벽 6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 두툼한 옷으로 무장한 신도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신도, 겨울방학을 맞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온 보살, 휴가를 내고 대중공양에 동참한 거사 등이 두 대의 버스에 오른다. 신도회 이종대 사무총장이 봉암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문경 봉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대 조계종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린 곳입니다. 1947년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청담 · 자운 · 우봉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결사를 시작한 곳이지요. 현재 80여명의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좀처럼 가기 힘들다는 봉암사에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신도들은 이 사무총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봉암사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수행도량이다. 또 언론매체가 취재하기 가장 힘들다는 '난공불락'의 도량이기도 하다. 취재의뢰가 들어오면 전체 대중들이 모이는 '대중공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봉암사다.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날 하루 일정이 공지되자, 신도들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다. 새벽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다. 달리는 버스에서 예불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지만 그렇기에 더욱 심신을 가다듬는다. 조계사 원주 도경 스님의 집전으로 새벽 예불이 시작됐다.

반야심경을 끝으로 예불이 끝난 후 도경 스님은 "사찰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신행활동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대중공양도 공부다"고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 수좌스님들과 함께 한 사시예불 '장엄'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문경 희양산. 그리 높진 않지만 큰 바위들이 온 산 전체를 호령하는 듯하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으니 봉암사의 전각들이 눈에 들어온다.

조계사에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엄마를 졸라 대중공양에 동참한 대일(19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이는 "너무 조용해 '진짜' 절에 온 것 같다"며 대웅전, 조사전, 금색전, 산신각 등의 전각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조계사 신도들은 대웅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리는 10시 30분까지 참선을 하며 선정(禪定)에 들었다.

잠시 후 태고선원에서 오전 정진을 마친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막 선원생활을 시작한 듯한 젊은 수좌부터 여유가 느껴지는 구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스님들이다.

선기(禪機) 넘치는 조계종 '최고' 선원의 수좌들을 직접 만나서인지 신도들의 눈빛은 더 반짝거린다. 그래서인지 150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올리는 예불이 어느 때보다 장엄하고 힘찼다.

예불이 끝나자 태고선원 선원장 정광 스님이 조계사 대중들을 위한 소참법문(小參法門)에 나섰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당부한 정광 스님은 "평소에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일상생활에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 스님은 또 "정견(正見)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병술년 새해에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양에 동참한 조계사 대중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공양금을 봉암사에 전달하고 마애보살좌상을 친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달리는 법당에 오른 신도들은 '이른' 저녁예불을 올리며 봉암사에서 훌륭한 선지식이 나와 중생들을 구제해주길 기원했다.

문경/글=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의 향기 삶의 향기를 추구하는 주)만복향당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거듭 태어난 저의 주)만복향당이 지면을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株)萬福香堂 MANBOKHYANGDANG CO., LTD.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전통향 시리즈 2 (보원 · 백화 · 침향)


보원
침향과 백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고급 한방향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
–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기를 고르게 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백화
고대로 전해진 처방에 따라 천연 약재들로 구현된 아름답고 매혹적인 향취의 한방향
– 신체의 악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보호한다
– 피로로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한다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제거한다


침향
침향과 한방의 독특한 향취에 청량감이 더해진 부드럽고 고풍스런 전통 고급향


신제품
진품 향기인
青雲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항균작용과 개미,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E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 향당(NK)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운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화풍 시리즈


라벤더 백매 히노끼 대나무 아쿠아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잔향이 긴 시간 남아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 시켜 줍니다. 또한 각종 악취(담배연기, 지하실의 습한 냄새등)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히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맑은 공기를 유지하여,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내가 만든다



불교 · 경제 영역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안돼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삶 가치 실현 못해
"보시 · 나눔 통한 행복 추구 생활속에 존재"
뚜렷한 목표, 바른 안목 지니면 모두가 CEO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② 인생을 경영하라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은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불교가 '나의 가치'를 찾는 지도라면 경제는 그 지도를 활용한 '나'의 생활이다. 불교와 경제는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차이이다.

그러나 불교와 경제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 속에 담긴 경제관과 경제논리를 지나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와 경제의 출발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다.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에 주체적인 '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인생경영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경영법이다.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 '나'를 경영하는 지혜

대학시절 같은 과 단짝이었던 염석준(서울시 한남동 · 38)씨와 조일국(서울시 신당동 · 37)씨. 12년전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사업에 뛰어들었다. 염씨는 직원이 8명인 공작기계 부품회사를 인수했고, 조씨는 10여명의 종업원을 둔 전자제품판매업체를 차렸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인간경영'을 중시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것은 외환위기 때였다. 염씨는 고비를 넘기고 20여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성장한 반면, 조씨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나'를 경영하는 기술에 있었다. 공동의 기업 운영을 꿈 꿨던 염씨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들에게 보상하면서도 사내 복지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힘썼다. 한편으로는 매일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오늘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조씨는 바쁜 일상에 쫓겨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빠른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수익금 전액을 회향보다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경영하지 못하고 주변여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조씨는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변화에 순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CEO가 될 수 있는 반면,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삶은 늘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은 "보시와 나눔을 통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복을 얻지 못할 뿐"이라며 "불교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경영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CEO는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주어져 있고, 그 인생을 경영하는 모두가 CEO이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경영하는 셀프매니저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바른 안목과 판단으로 살아간다.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추구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당히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부처님이 제시한 인생경영의 기본원칙은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 카르마경영으로 대변되는 그의 성공철학은 부처님이 제시한 인생경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분명한 목표와 책임감, 성찰과 정진 그리고 비전과 안목, 회향으로 요약되는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대로 이루어진다' '인생이든 경영이든 단순명료한 원리원칙이 좋다' '인격 수양과 이타행으로 살아가라'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를 카르마경영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인과응보와 카르마, 육바라밀, 자리이타 등과 같은 불교적 가르침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두 힘이 작용한다. 운명과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좋은 걸 생각하면 운명이 바뀌고 이게 또 좋은 결과를 낳는다. 결과에 노심초사할 이유는 없다. 원인과 결과는 놀라울 만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청운(靑雲) 아모레



가격 30,000원

평온함을 느끼는 후로럴 우디(Woody)의 향기를 내는 선향 청운(靑雲)아모레.
명수백선으로 선택된 일본 도치기현 시오타니마찌 쇼우진자와의 깨끗한 용수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천연 목단, 생약, 천연 식물정유, 항산화작용이 있는 비타민E를 특별히 첨가했으며, 연소 후는 향기가 온화하게 퍼져 없어집니다. 출시기념으로 청운아모레 50pcs 1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분다의 경제학 (2)

분배의 형평성

인간의 욕심 존재하는 한 양극화 해소 어려워
가정의 해체가 가난을 더욱 절망스럽게
정부, 공정한 '경기룰' 제정 지켜지게 해야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던진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 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수많은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

직설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요약컨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내놓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것을 내놓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법이어서 많이 내놓게 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받고서 어려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지도 않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씩 양보하자고 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은근히 가난하게 된 원인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분배에 있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못사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도움을 줘야할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같이 양보하자고 하지만 보시해야 할 사람들을 원망하는 듯 한 말을 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기원을 가까이는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에게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현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 작업과 대기업 적대시 정책은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과연 지금 가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친일파 때문이고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때문인가. 저임금과 실업의 원인이 제3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친일파 때문인가.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 소유의 양극화라는 문제는 영원히 존재한다. 욕심은 경쟁을 필연적으로 잉태하기 때문이다. 정도에 따른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빈곤에 대해 정부가 안전판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양극화가 왜 문제인가를. 양극화라는 것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의 양극화가 아니다. 행복의 양극화가 문제이다.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단 말인가? 정부에서 기업이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 새로이 많은 기업이 생기고 기존의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비로소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가난하게 된 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자본가가 착취해서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식의 시각은 곤란하고 또 틀리다.

절대 빈곤층의 25% 정도가 빈곤하게 된 원인으로 사업 실패를 들고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구조적인 잘못으로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 100% 자신의 잘못이거나 100% 구조적인 잘못이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가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경기의 룰을 제정하고 또 그 룰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그 누구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경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면 문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가정의 해체, 더 근본적으로는 대가족 제도의 해체가 가난을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아미타 삼존도 출시

서방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영접나온 아미타불

금세기 최고의 불화로 평가!

500점 한정 99.9%순금제작
사찰에 한점 스님께서도 소장가치충분



아미타불은 무량수불(無量受拂),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서방극락정토의교주로 인간이 수명을 다하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극락세계로 인도해 가는분이다. 상배의 사람은 직접 아미타불과 보살의 내영을 받고, 중배의 사람은 아미타불의 화불과 성중의 내영을 받으며, 하배의 사람은 꿈과 같이 내영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보리심을 발하고 무량수불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여러가지 선근공덕을 쌓아 저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들을 말한다. 중배자란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자하는 사람이 출가하여 선근공덕을 닦지못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일심으로 무량수불을 생각하며 더러는 착한 일도 하고 재계도 지키며,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사문에게 공양하며, 꽃과 향을 사루며 이 공덕을 희향하여 저 국토에 나기를 발원하는 이를 말한다. 하배자란 중생들 가운데서 여러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한결같은 정성으로 열번만이라도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이를 말한다.



아미타 내영도, 105×75cm

아미타삼존도는 금세기 최고의 불화로 평가 받고 있으며 大韓民國佛敎 美術大展 大賞, 傳承工藝大展(불화 대통령상) 大韓佛敎曹溪宗(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佛畵專門作家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완성시킨 아미타삼존도는 100%천연코튼 특수제작한 판화용지에 99.9%순금을 녹여 판화 인쇄와 순금처리외 부분의 변색을 막기 위해 베르린왁시 처리하고 최고급공단표구로 천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500점한정불화로 이제는 똑같이 만들기 어려운 세기의 작품이다. 출가하여 보리심과 무량수불을 일심으로 생각하고 선근공덕을 쌓는 스님과 불자께는 뜻있는 귀중한 불화로 깨끗한 마음과 착한정성으로 전생에 지은 무명업보와 업장을 녹이고 오는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받을 수 있는 불자로부터 보시 받는것이 불자를 위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보급대행은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정중히 모셔다 드립니다. 순금으로 제작하지 않고 일반 옵셋인쇄한 유사품이 나올수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시고 품질보증서내에 500점 한정이므로 번호와 소장자 란이 있고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한 불자님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란도 있습니다. 가격1,350.000원

문의(02)735-6923
농협 053-12-102911 김남룡

수월관음도 출시

불자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만사형통의 영험!



높이 88cm, 폭58cm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02)735-6923
농협 053-12-102911 김남룡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재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장터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륙	시			전
식	49재	재	식	물	충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학인스님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제2기 범음범패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천도재,천수바라작법
011-9601-66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秘法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작용법(甁)
2 달마사연 장중도법(道)
3 빠른 명상법(禪)
4 돌아가신 조상 무덤 보는법(業)
5 빙의 정신병 치유법(癨)
6 영가천도비법(癨)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010-3189-3525
경남의령 해용사 -법 경-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승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역학방문지도
명리학, 관상, 수리신점
초보에서 고급까지 창업책임지도
스님 특별대우
자연이치가 곧 명리이다
해임법사 ※전화상담환영※
02)3437-8433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동자승 모집
◆ 대상 : 만 5~10세 미만의 남·여 아동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 연락(문의처)
054)338-1117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육임개인지도
육임정단, 육임운명학, 상수 추명법, 택일법
기초에서 고급까지 책임지도
스님은 방문지도 가능함
대육임연구소 여여학장
02)6404-3540
010-5516-1687
cafe.daum.net/yikim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 전북 고창
063)564-2861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기도스님 모십니다
031)533-2855
011-491-9227

평생도반 모십니다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19-406-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0세)
경력있으시면 좋고 월 보시금 50만원
▷ 충북 영동
016-9255-8090

부전스님 모십니다
(45세-60세)
▷ 종파불문
마음착하고 성실한 스님
054)452-0845

팔공산 청정지역 비구니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부처님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을 마음편히 살아가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 동참금 : 2천만원
기도할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철학이나 침술하시는 스님이나 처사환영
011-790-4809
033)631-4831

마음 착하고 살림 알뜰히 살아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452-0845
011-539-084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854-9810

기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51)542-484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 80만원
무보시로 절에서 일하실 보살님 및 행자모집합니다
▷ 경기 파주
010-3070-3535

사주와 주역을 통달한 스님입니다
사찰의 주지나 포교당 주지원합니다
60세 비구승
010-4812-7075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포교당 연락주십시오
의식여법하게 하는 비구입니다(100일기도 가능)
010-8482-0075

물좋고 산좋은 조용한 오래된 암자 황토방 필요하신 비구스님 모십니다
50세이상.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9126-226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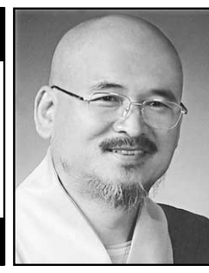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 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혜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MAHAMALL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제 1 기생 모집
2006학년도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동방문화의 중심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세계 풍수지리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

교육내용

음양오행론, 십이포태법	명리학 기본이론 및 감정법
산형론(龍, 穴, 砂, 水)	주역의 원리와 응용(상수역)
심혈법, 정혈법	구성학 이론
나경 패철사용법	동양 천문 해석
형국론	서양 천문 해석
팔십팔향법	민력 이해와 활용법
장택법	택일법
양택삼요, 동서사택론	수맥
가상학	응용풍수, 풍수인테리어
유년도, 본명궁	현공풍수

입학자격
◆ 입학자격 : 풍수지리학 분야 기초이론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상담사, 권위 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81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20만원 (1학기)

교 수 진
한중수/최병용/곽민석/최경준/박영창/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및 졸업패'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풍수지리사'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양택감정사'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교육기간
◆ 입학식 : 2006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개 강 : 2006년 3월 4일 토요일
◆ 교육기간 : 1년 (2학기)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15:00-19:00

입학안내
◆ 접수기간 : 2006년 1월 5일 ~ 2월 24일
◆ 접 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문화교육원 교학과 (또는 소개해 준 담당 교수)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
담당 011-9902-464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76평 ● 가액 : 2억 (융자 7000포함)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6억 (즉시법회가능)
● 위치 : 전남 ● 법당 : 18평 ● 요사 : 37평 ● 부지 : 15600평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근교
● 평수 900평정도, 실평수 2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총각 2평 요사채 방6개 주방시설완벽
● 특징: 부산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 요세의 사찰임 사찰연역 약 60년 도량
● 가액: 5억
010-4877-59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중산리
● 토굴 기도처 암자110평 상,하채
● 가액: 6500만원
011-827-8191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1-9105-7240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 (방10개)
● 가액: 3억9천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 임야 13,000평. 과수원 4,300평 대지 100평
● 남향 주택 30평 (황토방 있음)
● 가액 : 6억5천만원
※산머루, 옻나무 심어져 있음 산에는 밤나무 정원 잘 꾸며져 있음. 누각 있음
011-232-1993

토 굴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통 고속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전체평수: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4평 황토2중 흑벽돌집
● 신축한지 1년 토굴 또는 별장으로 적합함 부처님 신중탱화등 다 모셔져있음
● 가액: 1억7천만원
016-337-973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황금알땅 종교부지 (5160평)
● 천하명당 화장터옆 납골당 터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시유지한필지
● 관리지역 형질변경완료 토목공사중
● 매가 : 10억 투자자 모심
● 위치 :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 290평 건평 110평
● 새건물 통나무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10개
● 사찰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11-9004-361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건물 : 요사채, 법당 : 45평
● 특징 : 소원불, 800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층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누타원지역으로 허가됨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9
011-894-280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도보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창고,주차장,환기시설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271-7603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소재
● 법당 : 70평
● 특징 : 교통편리, 건물3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사찰 안내
● 위치: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가액: 9천 5백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011-9502-3235

암자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근교 동강앞
● 대지: 200평, 전: 70평
● 건축물: 30평(임법당)
● 가액: 8500만원
※ 주인직접(절충가능)
011-792-8969
033)378-431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흥덕동
● 3층건물에 3층
● 평수 : 70평 시설완비
● 중생제도에 원을 가지시고 부처님의 법을 펴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신 스님
● 저렴한 돈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010-6530-9183

사찰안내
● 위치 : 창원
● 대지 : 800평 공찰 40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조계종스님이시면 거래가 원만함)
055)291-640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교촌동 225-3
● 대지 : 117평
● 법당 한옥 스님방(18평) 삼성각 용왕 큰공양간방, 심야보일러
● 특징 : 시외정류장 인접(최고좋음) 주위아파트 밀집지대, 포교하기 좋음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4)331-5519
011-595-7360

암자안내
● 위치: 전주시 화산공원내
● 평수: 건물 35평 (법당,대중방,주지실, 입식주방,목욕탕) 외 산신각
● 토지는 제외
● 가액: 2천6백만원
010-6657-0733

절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임야
● 평수 : 33,300평
● 계곡 있음, 도로 확보
● 가액 : 평당 25,000원
011-472-4053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160-273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대지 : 60평, 건물40평(삼존불-동불)
● 부산 오륙도 태종대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조용한 기도처 잡신한 인연 있으면 반값 5500만원에 드립니다
※ 사찰,암자,포교당,사찰부지 다량확보
부산 사찰전문 부동산 연산공인중개소
011-560-8522
051)863-666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010-4215-911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우체국옆
● 시설(40평), 법당, 삼존불, 각탱화, 방2, 부엌,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협의절충
016-542-10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 600평 법당 : 25평 요사 : 37평
● 가액 : 3억
055)271-8496
011-768-87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10-9929-2907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 개강일: 2006. 2. 2 18:00 - 22:00 (12회 과정)
금요반 ● 개강일: 2006. 2. 3 18:00 - 22: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문화재청 홈페이지 오류 많다

복원 10년된 폐탑, 복원前 모습·정보 그대로
네티즌 민원 제기해도 수정않고 방치 일쑤

문화재청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네티즌들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불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9월 경주문화유적답사회 김환대 회장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황당한 정보를 접했다. 엄연히 창녕 술정리 309-1번지 길가에 서있는 술정리 서 삼층석탑(보물 제520호)이 창녕문화원이 위치한 공원 안에 서 있다고 돼 있었던 것.

김 회장은 급히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위치정보 오류를 수정해 달라 요청했다. 만약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만 믿고 답사에 나섰다가는 본의 아니게 창녕문화원에서 허탕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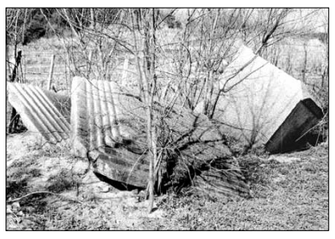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술정리 서 삼층석탑의 현 위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동 사항을 수정토록 하겠다"라고 민원 회신을 했으나 2년이 넘도록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안동 봉황사 대웅전(경북유형문화재 제141호)의 설명에서 '극락전 관음전 범종각 만세루'가 3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 등 잘못된 정보 수정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도 문화재 정보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등으로 인해 문화재의 정보가 변경된 것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반영 안 되기는 마찬가지.

김천 금릉 서부동 폐탑(경북유형문화재 제122호)의 경우 97년에 이미 복원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서부동 마을 뒤 호두산 아래 골짜기에 남아 있는 탑의 일부분들이다…'는 설명과 함께 폐탑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108호인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도 최근 복원되었으나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학습 자료를 습득하고 있는 학생이나 문화재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네티즌은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이기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김천 금릉 서부동 폐탑사진(위)과 1997년 복원된 탑의 모습.

문화재청의 늦은 대응으로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 최연규 기록정보담당관은 "민원처리가 다소 늦어지거나 자료가 빨리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은 현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도 전문가 10인을 위촉해 감수토록 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설명에서 전산상의 오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리귀부의 설명에는 '만들어진 연대는 삼국통일 후인 7세기…' 등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사적 제169호 창녕 영산석빙고의 경우 설명에는 '<여지도서>와 조선 후기의 읍지에 따르면 현감 윤치일이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전문설명에는 '현감 윤이일'로 표기되는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등 문화재의 부분적인 정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박사는 "문화재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의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잘못된 정보의 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정보의 습득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불교학회 2월 11·12일 '계율과 현대사회' 워크숍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2월 11·12일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계율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첫날 3편의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강사가 '율장을 통해 본 계율과 현대사회의 조화'를, 무관 스님이 '계율과 현대사회-북방계율을 중심으로'를, 마성 스님이 '계율과 현대사회-남·북방 계율의 비교 고찰'을 발표한다.

또 허남결 동국대 교수, 임승택 경북대 교수, 조준호 동국대 강사, 김준호 부산대 강사가 패널로 참가한다.

둘째 날에는 '한국불교학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 수주, 정기학회, 봄·여름 워크숍, 기금 마련 등 학회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금강학술총서' 논문 공모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최기표)는 <금강학술총서> 시리즈에 수록할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금강학술총서>는 불교학의 제반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자격은 불교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원 분야는 △주석과 해제논문을 포함한 불교원전의 번역 △독립된 주제에 대한 독창적 연구 △사료 정리 및 번역 분야 등이다.

지원 금액은 1500만원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구 과제를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과제는 <금강학술총서> 시리즈로 출간된다. 지원서 제출 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041)731-3601~3

경복궁 관람권있으면 고궁박물관 무료입장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소재구)은 오는 2월 1일부터 경복궁 또는 국립민속박물관 입장권 소지자에게 국립고궁박물관 무료관람을 허용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에만 적용돼오던 통합관람이 국립고궁박물관에까지 확대 적용되게 됐다.

통합관람요금은 현재와 같이 경복궁 관람요금(성인 3000원, 소인 1500원)으로 3개소를 함께 볼 수 있으며, 고궁박물관만 관람할 경우에는 기존 관람권(성인 2000원, 소인 1000원)을 구입하면 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관람편의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고궁박물관의 관람객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성보' 제7호 발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는 <성보> 제7호를 최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 8월 30일 열린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원고와 토론내용, 그리고 문화부 박물관팀 심주완 주임의 '서울 개운사 성보문화재 조사보고'가 수록됐다.

특히 '개운사 성보문화재 조사'는 개운사에 대한 종합적 학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개운사와 그 소속사찰인 보타사에 봉안한 성보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성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유희좌상(사진)은 조선 전기 유희좌보살상에 대한 연구자료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크고, 대웅전에 있는 4점의 탱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작품으로 당대 불교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8>

Q팩터

우주만물 원하는 파장 골라내는 능력 보유
관계속에 존재한다는 인연법 원리와 상통

전기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회로는 주어진 입력을 받아 필요한 출력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라디오나 핸드폰의 튜너 회로가 대표적인 경우다. 튜너 회로는 여러 방송국의 전파 중에서 원하는 전파만을 골라내는 회로다.

즉 입력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진 전파이고, 출력은 우리가 듣고자하는 전파이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신호가 매우 미약하므로 이 신호를 잘 골라낸 후, 다음 회로에서 증폭하여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너 회로의 역할이다.

마치 기타나 바이올린 줄의 길이를 왼 손가락으로 짚어줌으로써, 퉁기는 오른 손의 진동에 의해서 원하는 파장(음의 높낮이)만을 만들어주는 악기 줄과 마찬가지로 라디오의 튜너 회로는 외부의 전파 중, 원하는 파만을 골라낸다. 여러 가지 파장 중 원하는 파장을 골라내고, 원하지 않는 파장을 버리는 정도를 Q팩터(quality factor)라 부른다.

Q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원하는 파장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능력이 우수함을 뜻한다. 오래된 라디오를 들을때 다른 방송도 섞여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즉, Q팩터가 불량한 라디오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단하게 라디오나 핸프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신호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현상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의 빛 파동에 대해서는 Q팩터가 매우 낮은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동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빨갛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표면의 분자 구조가 빛에 대해서 독특한 Q팩터를 가짐으로써 색깔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인 '안·이·비·설·신·의'의 6가지 방법 역시 외부 파동에 대한 독특한 Q팩터에 근거하고 있다. 내가 눈으로 빨간색으로 인식한다는 메커니즘 역시 빨간 사과에서 반사된 파동이 나의 시각세포에게 반응하고, 빨간색에 대한 Q팩터가 큰 세포의 분자가 빨간 색 파동에 의해서 진동함으로써 받아들여진 에너지가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져 뇌 세포로 전달되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 귀 역시 같은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귀는 가청 파동에 대해서만 Q팩터가 큰 세포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음파에 대해서는 공진할 수 없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 박쥐의 귀는 초음파에 대해서는 큰 Q 팩터를 가짐으로써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초음파로 태아를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태아의 몸이 초음파에 대해서 Q팩터가 작은 물질로 되어 있어 초음파를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이 인식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메커니즘, 존재들끼리의 관계 양식, 그리고 우리가 첨단 시설로 이용하는 수많은 기계들이 이러한 파동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Q팩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존재가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인연의 원리일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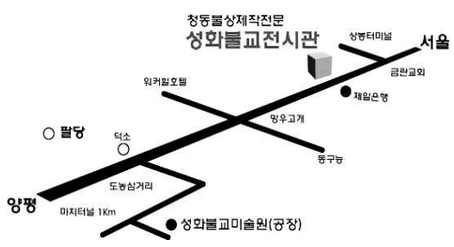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일주문



봉은사서 정초기도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은 2월 5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병술년 정초산림기도에서 법문한다. (02)3218-4801~5



경실련 공동대표 유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1월 21일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9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에 유임됐다.



인드라망 공동대표로 추대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21일 서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센터에서 열린 2006년 회원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성도의 의미' 주제 법문

수원 아란야선원장 지묵 스님은 1월 21일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에서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의 의미'를 주제로 법문했다.



가족합동법회 봉행

서울 법장사 주지 법장 스님은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법장사에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합동법회를 봉행한다.



불심회 지도법사 취임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월 23일 서울구치소 정규직원들로 구성된 불심회 회원들과 지도법사 취임식 및 새해 첫 법회를 봉행했다.



'부모님과 산사문화체험' 실시

서울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1월 20일 서산 부석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산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금강경 주제로 법문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은 2월 19일 오후1시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삶 속의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낙성 및 부처님 점안법회

영동 영국사 주지 청원 스님은 2월 6일 오전 10시 영국사에서 낙성법회 및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043)743-8843



대불청 새 대의원의장에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부 이상만 前 회장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불청 새 대의원의장에 당선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정범(총무원 총무국장), 일관(포교원 포교부장), 자광(용인 반야선원 주지), 일면(군종특별교구 주지), 계성(군종특별교구 부주지), 법장(교육원 교육부장), 동선(총무원 기획실장) 스님. 뒷줄은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군법사들.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 첫 회의 … 업무현황 파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월 26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 내 회의실에서 교구 최고 심의 기구인 상임위원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 결산 및 2006년 예산안,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안), 인사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위촉된 상임 위원 21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해 상견례를 가졌다.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군종 교구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다"며 "제도정비를 통한 교구체계 구축 등 당면 과제들을 열심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本社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성료

본사가 주최한 제11회 신행수기 시상식이 1월 21일 사내 법당에서 열렸다.

15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을 출품한 김두만씨 등 9명이 대상(유마상),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춘광,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대한불교 진흥원 신진욱 법사, 신행수기 수상자 모임인 '신수회' 이남숙 회장 등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더 많은 불자들이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들을 다른 대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철주 기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2월의 환우 조용천씨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의 환우로 선정된 조용천(사진)씨는 지체장애 2급 신용불량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골수이식은 물론이고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해 약물에만 의존해 있는 실정이다.

조씨는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02)734-8050/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이은비 기자

탤런트 고현정씨 동국대에 1억 쾌척



탤런트 고현정(사진)씨가 모교인 조계종립 동국대에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번 쾌척은 지난해 11월 결성된 동국예술인 모임(회장 이덕화) 동문들이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을 위해 10억원을 약정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고씨는 광고촬영 수익금을 모아 전달했다.

고씨는 1월 23일 모교를 방문해 직접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조용히 성의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측에 전달한 후 전달식에 불참했다. 기금은 이날 현덕영(연극영화학과 동창회장)씨가 홍기삼 총장에게 전달했다. 동국대는 고씨가 기부한 1억원에 학교측이 20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후배사랑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도선사 청년회 탄자니아에 생필품 전달



도선사 불교청년회(회장 이의석 · (주)록원 대표)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1월 26일 해외포교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도선사 불교청년회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포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판매한 연등 수익금을 모아 1월 26일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현지에서 포교 중인 동봉 스님에게 보냈다.

이번 후원사업에는 청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매월 적립한 금액을 보시한 사실이 밝혀져 온정을 더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도선사 불교청년회는 올 한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자원봉사, 신입회원 교육프로그램, 초파일 장엄등 제작에 힘쓸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

진주 사암련 지관 스님 초청 신년대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대종사 초청 신년대법회가 1월 25일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진주협의회(회장 불암)가 주최하고 진주사암연합회가 주관한 법회에는 3500여 명이 동참했다.

지관 스님은 "인재불사와 포교에 진주지역 불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사암련 자비의 쌀 전달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호암)는 1월 24일 성북구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사회복지관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틈새가정에 쌀 2050㎏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성북구사암련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의 쌀 모으기'를 전개해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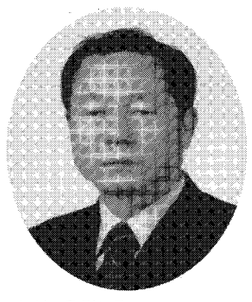
룸비니합창단 법주사서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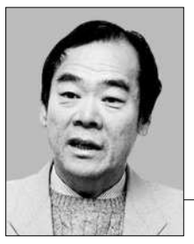
의정부 회룡사 룸비니합창단(단장 노영선) 단원 31명과 자모회원 10명은 1월 21~22일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단원들에게 불교적인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는 룸비니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탑돌이, 새벽예불,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화제의 신간
다시 보는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불자 세상보기

이 근 후
열린마음 클리닉 원장

자살, 뒤집으면 '살자' 인걸

"자살 그리고 살자" 그냥 자살이란 글자를 뒤집어 본 것이다.

삶과 죽음이 곧 이 뒤집음과 같은데 죽고 삶이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중얼 거려 보지만 우리 같은 범속한 사람에겐 죽음과 삶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 요즈음 들어 자살이란 용어가 대중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쏟아지고 있다. 자살하는 이유들도 다양하지만 자살하는 연령또한 점점 어려지기 시작한 것도 문제다.

자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자살이라니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지." 물론 자살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자살을 택했을까." 이 말 또한 자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나타낸 말일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 이런 상반된 느낌을 표현하지만 바탕에는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자살 사이트라는 것도 인터넷에 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자살을 예방하는 곳도 있고 자살을 돕는 사이트도 있다. 예방하는 사이트는 '죽을 용기로 살기를' 자살을 돕는 사이트는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라며 도움을 주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는 자살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행위는 아니다. 불가에서도 생명의 존엄한 가치와 유아독존의 자존감을 설파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왜 그들이 자살에 이르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자살로부터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화살 맞은 사람을 두고 왜 무슨 화살에 라는 다툼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최악의 살인이다' 라거나 '자살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말장난으로 죽은 자의 마음에 또 한번의 상처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곤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살아있는 사람 마음대로 죽은 자를 단정한다. 그렇게들 단정해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까.

자살을 미화하거나 죄악시하거나 어느 것도 자살자의 진정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산 자가 해야 할 일은 화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뽑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몫이 산자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들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불자는 자살하는 사람 자살 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다시 찾게 할 방편을 찾는데 마음을 써야 한다.

이런 방편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 있고 또 사회나 국가가 대신해야할 방편도 있다. 자살 소식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표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고 사는 속성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불자다. 이젠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자살자나 산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편을 함께 찾아 나서야할 절명한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방편이 공론화 되어 창출이 되든지 간에 우리들이 간과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자존감이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겸허하게 높이는 자세 바로 그것이 불성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불성의 크기와 무게는 서로 다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갖는 불성을 진장한 자신의 몫으로 키워 나가도록 돕는 그런 방편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방편이다.

모든 원인이 자살자의 몫이 되어서도 안되고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죽은 자나 산자의 공통된 몫으로 우리 마음속에 처절하게 남을 때 생명의 존엄과 자존감이 불성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새해엔 우리 모두의 몫으로 생각하는 한해를 삼아 보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는 화합과 자비의 상징이어야 한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교육의 장을 만들어 원력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운영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체계적인 신행교육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많은 불자들을 양성한 교육기관으로 1991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내실 있는 전통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로써 불교가 기복종교니 미신이니 하며 무지한 이들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신앙의 바탕 위에 올바른 교리체계를 익혀 참된 불교수행의 길을 연마할 수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설립되면서 불자들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부산불교대학 사태를 보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개척정신으로 원력을 모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부산불교의 큰 희망을 일구어 온 공헌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학사 이전이라는 상황에서 운영권을 놓고 운영위원장과 학장간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제3자의 개입으로 더욱 난감한 상황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대단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관련자의 면모를 보면 부산 불교계의 상징적 어른들이다. 다들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지만 결국에는 탐욕심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불교계의 시선을 인식해 편견을 방하착(放下着)하고 심기일전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불교는 인욕과 화합이 가장 위대한 승가상이다. 기자회견도 할 것 없고 대외적이 발표도 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놓고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원만한 타결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종단에 등록된 신도교육기관만이라도 종단에서 잘 보살피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중재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교를 신행하고 부처님의 공부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악성리플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 형제 · 부부 ·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인터넷상에서 꼬리말을 달수 있는 게시물에 꼬리말을 나쁘게 올리는 것을 뜻하는 악플(악성리플)이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이 14명을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기소된 악플 행위자들이 대부분 10대가 아니라 40~60대이고 금융기관의 중견 간부, 대기업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악플이 생겨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아무에게나 나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욕설, 저주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일종의 경종인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도 많지만 실명제 등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물질의 나눔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장아함경〉

천수경의 첫 구절은 '정구업진언'이다. 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하물며 악의적으로 남의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겁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두식(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자정치인 더 늘어나야

불자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준비가 늘고 있다는 '현대불교' 562호 신문을 읽고 상당한 공감을 느꼈다. 지역 곳곳에서 우리의 생활과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불자 정치인들을 좀더 많이 소개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치라는 것은 대중의 의지를 모아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계도 스스로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1세기는 상생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역과 사회, 제 계층이 하나로 더불어 살수 있도록 묶어내는데 불교만큼 이상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가 없다. 이를 실현시킬 불자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흐름은 국민자치와 참여정치다. 전통과 문화 마인드를 가진 불자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덧붙여, 이제는 더이상 극단적 종교편향을 일삼는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불자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윤기(인천 서구 백석동)

김종국 해인사 참배 기사를 보고

인기가수 김종국씨가 해인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한다. 연예인이 사찰을 찾았다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뉴스거리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사회 현상들을 반추해보면, 유명연예인에 열광하고 그가 입었던 옷이나 악세사리가 불티나게 팔리는 세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우상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따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예인이 사찰을 찾고, 불교 신자임을 알린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간접적이지만 불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불자들이 즐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 포교에도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몇달전에도 이영애씨가 마곡사를 방문한 기사를 현대불교신문 1면에서 본 기억이 있다. 찾아보면 불자연예인이 의외로 많다. 불자 연예인을 발굴하고 그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도 신세대 포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호(충남 공주시 사곡면)

경인방송 특정종교 주도 안된다

경인지역 민방인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 선정이 유예됐다. 특정종교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굿티비 컨소시엄의 상식 밖 언행에 불교계의 우려가 컸던 탓에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던 차였다.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비록 타종교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 방송을 인수하기 위해 인적 · 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 속에서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만 앞세운다는 것이 자칫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옹졸한 모습으로 비쳐 질지 모른다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굿티비의 주주 구성에서 미디어 관련 회사는 기독교방송 1곳뿐이라 사실상 특정종교의 방송이 될 것은 자명하다. 아직도 종교인구수에 비해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 전파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 타종교와 불교계가 대등한 수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자 선정이라면, 특정종교의 민방인수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앞서 그동안 불교계는 무얼 하고 있었나하는 철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불교계가 남의 발목잡기만 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지우고 스스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나그네(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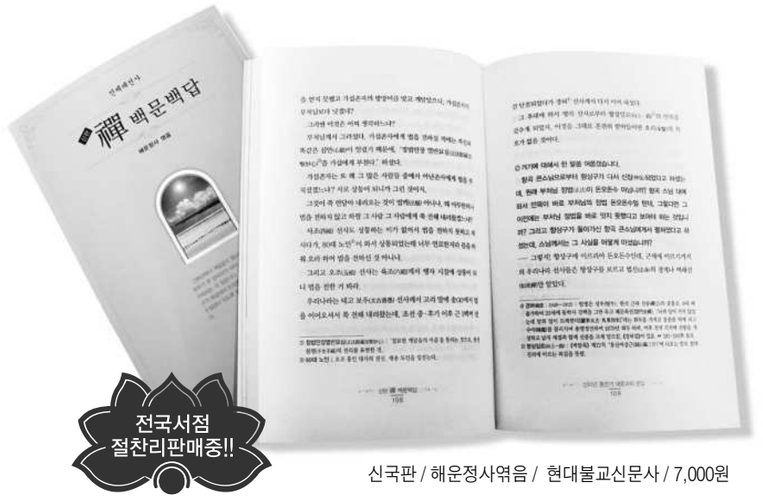


신판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갈등 흔적 없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납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송담(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선(禪) 백문백답 !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해운정사엮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yosiamun@buddhapia.com

부처님 열반지 주변 건축물

철거 방침에 스님들 반발

주정부, 관련법 근거로 사찰·진료소 철거 통보
스님들, 법원에 재심 요청…세계 각국에 호소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불법이라며 이를 철거키로 한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현지 스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철거 결정이 내려진 건축물들은 사찰, 진료소, 휴게시설 등으로,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이루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여 세워진 것이다.

지난해 주정부는 "이 건물들이 지역당국에 의해 인가된 설계의 일부가 아니며, 1990년 이후에 자리잡은 것"이라면서 "인도 내의 고고학 유적지를 다루는 고고(考古) 관련 법률에도 보호 대상 기념물주변 100m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결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현지 스님들은 부처님 열반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들을 법적인 잣대만으로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거결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정부는 2005년 12월 25일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자 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철거결정 재심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집행을 일시 보류시켰다.

현재 이 문제는 주정부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는 당연한 일인데도 스님들이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행중인 기아네스와르(Gyaneshwar) 스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건물들을 부술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 주재 몇몇 대사관과 세계 각국의 불교 단체들에 호소문을 보냈으며, 이번 사태를 세계 곳곳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시나가르는 룸비니(Lumbini), 보드가야(Bodhgaya), 사르나트(Samath)와 더불어 불교의 4대성지로 알려져 있다.

이은희 기자



쿠시나르가에 위치한 열반당(Nirvana Temple)의 전경. 주정부는 5세기경 조성된 열반상이 안치되어 있는 이 건물 인근에 들어선 사찰과 진료소 등을 철거키로 해, 스님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계 最古한문경전 中서 발견

"한문으로 기록된 불경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전이 랴오닝(遼寧)성 따리엔(大連)에서 발견되었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1월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뤼순(旅順)박물관과 일본의 류코쿠(龍谷)대학 공동주최로 2005년 10월에 열린 '뤼순 박물관 소장 신지앙(新疆) 출토 한문 불경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각국 전문가 40여명은 이 불경을 '세계 최고의 한문 경전'으로 인정했으며, 이번 발견의 종교적 · 학술적 의미까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경전은 서기 296년에 편찬된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의 일부로, 뤼순 박물관에서 14개의 잔편(殘片)을 보존 처리하여 책으로 만들어냈다.

<제불요집경>은 '모든 법이 공(空)'임을 설한 경전으로 축법호(竺法護) 스님이 266~313년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296년 편찬 사본이 발견되어 번역 연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은희 기자

"서구인들 부처님 역사 왜곡"

인도 역사학자, 기원전 1887~1807년 생존 주장

"서구의 역사학자들이 알렉산더대왕의 인도 정벌 가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처님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인도 역사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의 일간지 뉴인드프레스(Newindpress)'는 1월 12일 인도 역사학자 코타 니티아난다 사스트리 박사의 주장을 이와 같이 보도하면서 사스트리 박사가 자신의 부친인 역사학자 코타 벤카타체랍이 쓴 <부처, 밀린다 왕 그리고 암티요카의 시대(Age of Buddha, Millinda & Amtiyoka)>라는 논문을 인용해 부처님이 기원전 1887~1807년 살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처님은 마가다 왕국의 제 31대, 32대와 33대 왕이었던 크세마지트(Kshemajit), 빔비사라(Bimbisara) 및 아자타사투(Ajatasatu)와 동시대인이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 증거뿐만 아니라 푸라나(인도의 성서시) 기록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고 밝혔다. 세계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 주장이 확인될 경우 불교 역사가 새로 정립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희 기자

말레이시아서 여성불자대회

오는 6월17~21일 샤우 셍 룸 전시관서

2006년 샤카디타 여성불자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샤카디타 대회장 쏘모(사진) 스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1월 14일 마하비하라 사원과 말레이시아 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만찬에서 제 9차 샤카디타 대회를 6월 17~21일 말레이시아의 샤우 셍 룸(Sau Seng Lum: Puchong) 전시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쏘모 스님은 "샤카디타가 다중문화국가에서 개최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올해 대회를 계기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평화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카디타는 1987년 인도 붓다가야에서 결성된 세계최대의 불교여성단체로, 격년마다 샤카디타 대회를 개최해 각국의 여성불자 및 출가자들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해왔다. 이은희 기자

'인도주의 불교와 경제' 주제
美 웨스트대학서 불교학회

제 7차 국제인도주의불교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stic Buddhism)가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웨스트 대학에서 개최됐다. 웨스트 대학은 1991년 미국 최대의 사찰인 서래사를 세운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인도주의적 불교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이번 학회를 주도한 대만 불광산사 미국지부 서래사 주지 휘츠(Hui Chi)스님은 "경제학 연구와 불교수행은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처럼 불교수행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학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성운 스님(대만 불광산 총회장)의 실천적 불교비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학회 참가자들은 인도주의적 불교가 정신계에 역점을 두는 데서 출발한다는 스님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참선·명상과 건강의 관계

마음수행의 질병 치유효과 속속 드러나
정신의학 차원 뛰어넘어 과학계 화두로

최근 KBS 제1TV의 '마음' 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에서 '마음과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난치병의 치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의료 과학과 뇌 촬영 기법의 발달 덕분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참선[명상] 수행을 하는 스님들을 신비하게만 바라보던 서구의 과학자들도 아시아 출신 스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MIT 대학에 설립된 '뇌(腦)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의 심장 전문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들이 티베트 스님들과 함께 '명상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놀랍게도, 그동안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실토한다.

한편 미국의 지역언론인 '스타 트리뷸(Star Tribune)' 1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던 미국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명상수행이 유행처럼 번져나간다. 미니애폴리스의 법률회사에 소속된 변호사 로버트 제그로비치(Robert Zeglovitch)는 10년 이상 명상 수행을 해왔다. 요즈음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 챙김[正念]' 수행을 지도하며 불교를 강의하는데, 수요가 넘쳐난다.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일반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명상 수행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일간지 '뉴스데이(Newsday)'는 1월7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뉴욕의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샤론 플레이셔(Sharon Fleisher)는 '냉정을 잃지 않고 문제 학생을 잘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고 싶었다. "명상센터에 가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명상에 입문한 그녀가,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명상 센터의 학생이 아니라 운영 이사가 되었다. 그녀는 "명상이 교실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참을성이 많아지고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제 자신을 훨씬 더 잘 맞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 그 중에서도 40세가 넘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명상 수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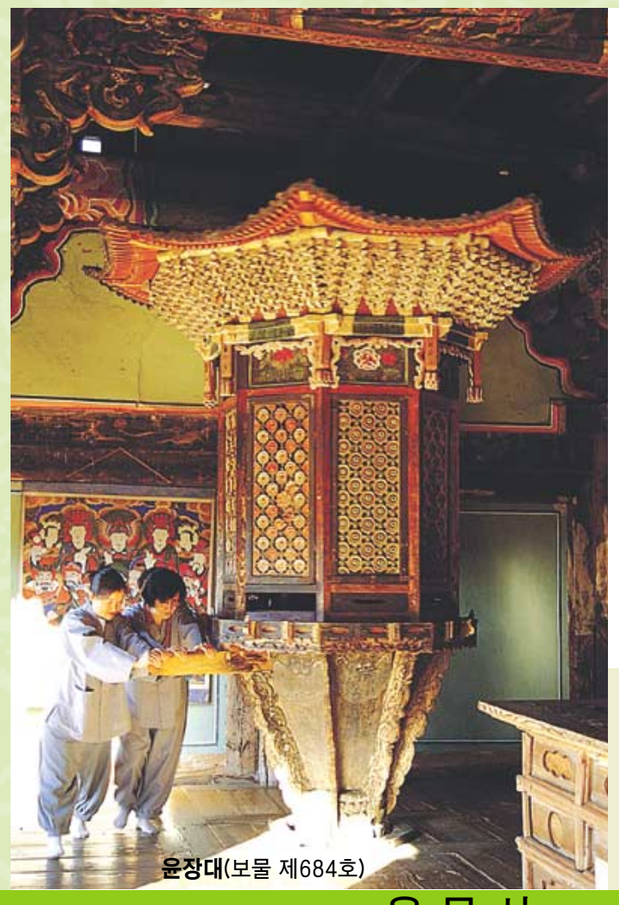
세계 정상을 달리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참선 수련 덕분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다. KBS TV의 특집 '마음'에 소개되었듯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선수 이원희도 마음 훈련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참선 · 명상과 건강의 관계'는 정신의학을 넘어 과학계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의 불교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선은 좋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자랑만 하지 말고 과학계와 진지한 대화를 계속하고, 그들이 공동 연구나 사업 동참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 불교계가 내세우고 있는 '선(禪)의 생활화 세계화'라는 불교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강한 세상'을 이룩하여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또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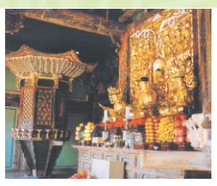
이병두씨는 한국외국어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덕성여대 오산대 명지대 강사와 (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서적 번역과 불교계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영어로 읽는 법구경>, <담마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등의 번역서가 있다.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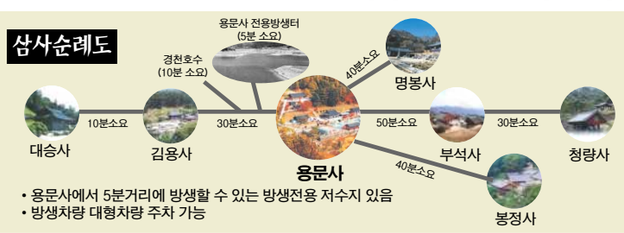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갈대밭에 숨어 철새들의 활동을 탐조하고 있는 철원평야 철새지킴이 진익태씨. 그는 "새와 사람의 공존방법을 모색하다보면 분명히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철원 '두루미 박사' 진익태씨

"새들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죠"



18년째 철새 보호에 앞장, 달력 만들어 보급
"순한 눈빛 · 아름다운 깃털 보노라면 넋 잃어요"
두루미학교 열고 관찰 요령 · 용어 등 정보 제공
인식 부족 · 조류독감 공포에 탐조객 줄어 걱정


두루미학교 수업장면.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비무장 지대(DMZ)가 인근에 있고, 드넓은 평야에 낙곡이 많아 '새들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철원. 이곳 갈말읍 토성리에서 '철새 지킴이' '두루미 박사'라고 불리우는 진익태(48)씨는 젖소 50여마리를 키우고, 논 밭 8000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복합영농인이다.

31대째 철원을 지켜온 토박이 농사꾼인 그는 철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특히 두루미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는 농한기라고 하는 겨울에 더 바쁘다. 철새들의 삶의 터전인 철원평야를 누비며 먹이를 챙겨주는등 보호활동을 한 지도 벌써 18년째다. 철새들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탐조객들이 요청하면 안내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오히려 1년중 눈코 뜰새없이 가장 바쁘게 사는 때가 됐다. 그의 일과는 항상 빠듯하다. 새벽 4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젖소의 우유를 짜고 짬을 내어 농사일을 한 뒤 아침 7시 30분이면 철새를 지키기 위해 철원평야로 출근한다.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와 다시 우유를 짠 뒤 그날 하루 일과와 자료를 정리하면 밤 12시에 취침에 들기 일쑤다.

"탐조 망원경에 포착된 새의 눈동자를 보면 그 순한 눈빛에 저절로 빨려들고, 깃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는 그는 1999년부터 직접 찍은 철새사진으로 엽서와 달력, 책자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철새 먹이구입을 위한 사진 전시회도 서울 춘천 철원에서 다섯차례나 개최했다. 98년에는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한 · 일 사진전에 초대되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초등학생과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새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기 위해 철원 두루미학교도 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탐조 요령과 준비물을 소개하고 철새 관련 용어를 비롯 철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들의 핀잔도 들었고 가정일을 등한시하다보니 부인과 불화도 겪었다. 하지만 변함없이 철새를 보호하는 그의 올곧은 활동과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 부인 김주월(44)씨와 이웃들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그가 철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2월. 집 부근인 남대천에서 죽은 오리 한 쌍을 발견해 박제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부터다. 어느날 전문가로부터 박제된 오리가 백두산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62년만에 처음 발견된 희귀조인 호사비 오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가까이서 보아온 철새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철새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차츰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하얀 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긴 부리와 곧게 뻗은 긴 목 그리고 우아하고 날렵하게 빠진 두루미의 모습은 고고한 정신을 숭상하던 옛 선비의 자태로 여겨졌습니다. 예로부터 두루미가 천년을 산다고 '학'이라 하는데 실은 50~60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국제자원보호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루미는 전 세계에 걸쳐 15종 뿐인 희귀조. 이중 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여섯 종류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그는 1992년 2월 9일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베리아 흰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두루미 이외에도 작은 황조롱이 등 조류도감에도 없는 미조(未鳥) 세 종도 촬영해 세상에 알렸다.

그가 살고 있는 철원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일본 이즈미시를 경유하는 일종의 중간기착지이다. 그래서 철새도래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철원평야를 찾는 겨울철새는 두루미 재두루미를 비롯해 청둥오리 기러기등 30종 10만여마리. 이 중 두루미는 800마리가 월동하고 이동시기엔 4000마리까지 목격된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같은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철원이 유일하다.

그는 올 겨울 아픔을 많이 겪고 있다. 철새들에게 첩첩산중으로 고난이 닥쳤기 때문이다. 12월에는 먹이가 없이 새들이 탈진해 죽기도 했다. 폭설로 저수지가 얼어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AI)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철새들이 조류독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먹이 기탁자들과 탐조객들이 줄어들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철원 두루미축제를 열었지만 일반인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새들은 높은 창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열로 바이러스가 거의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철새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닭과 오리에 감염되는 가금 인플루엔자(influenz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철새들과 공존을 모색하던 인근지역 주민들도 일반 사람들의 색안경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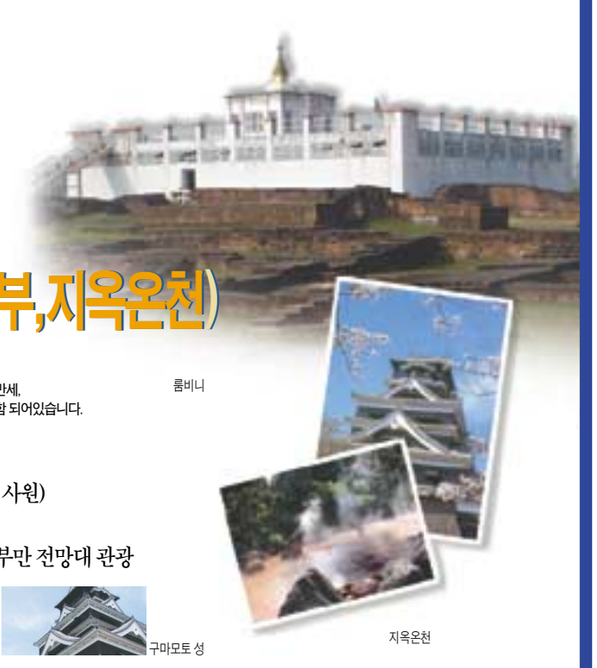
"철새들이 떠나기에 앞서 2월에 고칼로리의 먹이를 섭취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람들의 옆에는 항상 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들의 서식환경이 좋아야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철원= 김원우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인도불교성지순례 (룸비니,니르바나,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 2월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20만원 동참금205만원

제1일 델리도착
제2일 델리, 럭나우,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헤트)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룡못 | 아쇼카 석주 순례.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흙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토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룸비니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아소산,벳부,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가이드및기사팁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향발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궁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제3일 사루마와시 원숭이쇼 | 아소활화산 | 쿠사센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옥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제5일 KTX 84 | 서울역


지옥온천

구마모토 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3> 마조의 선맥이 동쪽으로 가다

부산 일광에 있는 묘관음사는 향곡(1912~1978)선사의 열반지이다. 영정도 모셔져 있다. 절친한 도반이었던 성철선사의 '향곡을 보내며(哭香谷兄)'라는 조사(弔詞)는 역설적 미학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

슬프다! 종문의 흉악한 도적놈아/천상천하에 너같은 놈 몇이나 되리/인연이 다하여 손을 털고 떠났으니/동쪽 집의 말이 되었는가, 서쪽 집의 소가 되었는가/쯧쯧. 갑을병정무기경(甲乙丙丁戊己庚)이로다.

묘관음사의 조사전에는 다른 선원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영정이 모셔져 있다. 마조선사와 남전보원, 백장회해 3인을 함께 모신 것이다. 그런데 그 화면구성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맨오른쪽 끝에 마조선사가, 가운데 남전보원, 왼쪽에 백장회해가 앉아있다. 역사적으로 마조의 3대 제자는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으로 알려져 있다.

스승이 오른편 구석에 보처(補處)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제자인 남전보원이 가운데 우뚝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의아하다.

조사탱화의 기본구도에 대한 미술적 안목도 없으면서, 애써 모셔놓은 남의 절 조사영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완성 후 마지막 찹나에 긴장이 풀린 불모가 그 이름을 잘못 기록했을지도 모르겠다. 즉 3인의 이름에서 잠시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 짐작으로는 서당지장을 마조도일로 오기(誤記)한게 아닐까 한다. 만약 맨 정신이었다면 더 깊은 뜻이 있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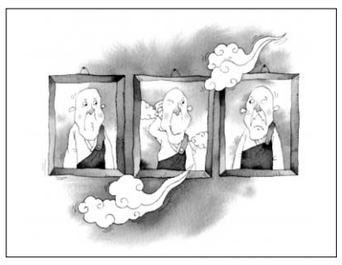
비록 그 영정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서당지장은 한국선종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도의국사는 왕씨이고 북한군(北漢郡: 현 서울)출신으로 선덕왕 5년 784년에 당나라로 건너가 40여년을 그 곳에서 살게 된다. 그 때 이름은 '명적(明寂)'이었다.

오대산 문수도량을 참배한 이후 육조단경 설법처인 보단사(寶壇寺)에서 다시 계를 받았다. 선종승려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때는 각 종파마다 승복 색깔이 달랐다. 그래서 종파를 바꾸는 것을 '옷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영당을 참배하였다.

여기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영당 입구에 명적이 서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참배고 나오니 역시 저절로 닫혔다. 때마침 바람이 두 번이나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육조께서 당신의 적손(嫡孫)으로 인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었다.

하지만 그 때 이미 육조와 마조는 열반했다. 마조가 활약했던 강서 홍주 개원사에는 그의 제자 서당지장 선사가 마조가풍대로 법을 펴고 있었다. 명적은 서당지장의 문하에서 안목이 열렸고 스승의 인가를 받으면서 '도의'라는 법호를 받게 된다.



마조가풍 이은 서당지장, 도의국사 인가하며
"이 사람 아니고 그 누구에게 법 전하리"

서당지장은 도의를 인가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아니고서 그 누구에게 법을 전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육조혜능 선사도 남방출신이라 중원사람들에게 오랑캐 소리를 들었는데 신라 변방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랴. 선어록 곳곳에 등장하는 "화살이 신라를 지나가 버렸다"는 속담은 '이미 늦었다' '턱도 없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런 풍토 속에서 스승에게 이런 찬사를 받았으니 그 인물됨의 출중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장회해 역시 그를 보고서 "마조의 선맥이 모두 동국으로 가는구나"라고 한 마디를 더 거들었다. 이 언급처럼 신라 구산선문의 대부분은 마조계열이다. 즉 마조도일의 법맥이 해동 조계종의 원류이다. 그래서 해동선종 최초 전법지 설악산 진전사 조사전에는 마조와 서당지장의 영정도 함께 봉안해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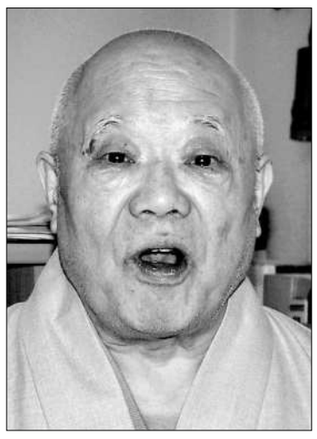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내가 이미 부처' 자각해 드러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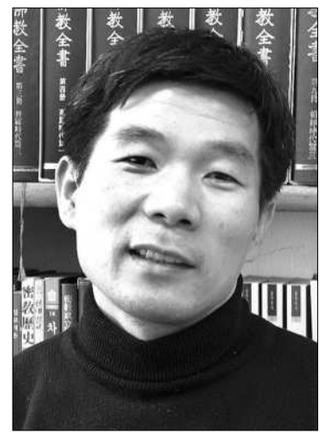
좌선을 통해 본래불성을 스스로 깨닫는 묵조선(默照禪). 침묵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기 불성을 들여다보는 수행법이다. 화두를 들고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간화선(看話禪)과는 '들어서는 문과 가는 길' 부터 다르다. 때문에 간화선은 묵조선의 이 같은 수행법을 놓고 "나무나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고목의 선(대혜 종고)"이라 비판까지 했다.

그럼, 묵조선은 '죽은 선(死句禪)'인가? 그간 수행자를 만나보기도, 배울 기회도 드물었던 묵조선 수행이 최근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깨달음이 곳곳에 드러나 일상사 모두가 공안이란 '현성공안(現成公案)'과 본래불성을 자각케 하는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원리를 고갱이로 삼은 묵조선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묵조선 수행의 보급에 힘쓰고 있는 묵조선종 종정 범해 스님과 묵조선 연구자 김호귀(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법사에게 '묵조선'에 대해 들었다.

묵조선 수행에 관심 고조



범해 스님



김호귀 법사

좌선을 통해 '진불(眞佛)' 자각

묵조선 수행의 핵심은 무엇일까? 좌선을 통해 본래성불을 자각하는 '본증자각(本證自覺)'에 있다. 몸으로는 묵묵히 좌선으로 일관하는 '묵(默)', 마음으로는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조(照)'가 묵조선 수행의 고갱이를 이룬다. 범해 스님은 묵조선의 기본 선지를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에게 본래 불성이 있지만, 깨치질 못해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라며 "끝없이 닦아 그 빛을 내야 비로소 자신에게 진불이 있음을 깨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호귀 법사는 묵과 조를 몸과 마음에 배치했다. 몸으로는 묵묵히 좌선하고,

무념 무상으로 일관하되
물 흐르듯 여여한 상태서
일상사 공안으로 삼아

마음으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성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과정에서 묵조의 대상을 하나의 주제로 선택, 마음속으로 자각할 때까지 좌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탁주(濁酒)와 찌꺼기'

범해 스님은 묵조와 간화의 관계를 '탁주(濁酒)와 찌꺼기'로 비유했다. 탁한 술을 맑은 유리병에 담아 한 밤을 지내면 자연히 찌꺼기가 가라앉아 맑은 청주로 변하는데, 화두라는 '약물'을 탁주에 타거나 할과 방으로 이리저리 흔들어 찌꺼기를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초심자에게 할과 방, 그리고 화두로써만 선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갓난 아이에게 곧바로 걸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묵조선에서는 청정한 그대로 찌꺼기를 가라앉히면, 불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 묵조선에 대한 간화선의 비판은 과연 폄하인가, 아님 편견인가?

범해 스님은 "묵조선이 없이 간화선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화선 입장에서 화두의 필요성을 드러내려고 하니, 자연히 묵조선에 대해 비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황금 덩어리와 산돼지

스님은 묵조선풍을 드날린 남송대 굉지 선사(1091~1157)가 비유로 들었던 '황금 덩어리와 산돼지'를 말했다. "땅속에 있는 황금 덩어리(묵조)를 산돼지(간화)가 파내면 파낼수록 황금 빛은 더 빛난다"는 굉지 선사의 말을 언급하며, 묵조선을 무시하고 간화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법사는 중국 남송대 당시 간화선 비판을 지금의 비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간화선 일색의 선수행 풍토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삿된 선'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김법사는 묵조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이유가 없고, 다만 묵조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법사는 "묵조선은 중생 스스로가 깨침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활용하고 드러내는 측면에서 묵조선은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준다"고 말했다.

깨침의 상태를 돌이켜보라!

묵조선의 키워드인 '현성공안'과 '회광반조'는 무엇일까? 범해 스님은 묵조선의 대표어록인 중국 원대 만송 행수 선사가 지은 <종용록(從容錄)>을 예로 들며, 현성공안은 완만한 경사처럼 부드럽고 유순한 공안관이라고 말했다. 무념·무상으로 일관하되, 물 흐르듯 여여(如如)한 상태에서 일상사를 공안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법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성공안은 수행의 결과로 드러난 깨침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공안 그대로가 진리가 된다고 말했다. 가령 감나무에서 감이,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 있는 이 사실이 바로 현성공안이라는 것이다. '일체중생실유공안(一切衆生悉有公案)'이란 셈이다.

좌선의 좌(坐)는 '생동하는' 좌

좌선을 강조하는 묵조선. 그럼 일할 때 걸을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범해 스님은 좌선의 '좌'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좌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를 '앉는다'는 개념보다 '지(止)' '정(定)'의 뜻으로 이해해야 요지부동의 묵묵하고 적적한 경지로 좌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상사 모든 상황에서 '생동하고' '움직이는' 좌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법사도 좌선이란 말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앉아서 수행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김법사는 발심과 호흡을 강조했다. 올곧은 발심은 잘 가다듬은 호흡에서 완성되고, 이후 몸 수행인 좌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선(行禪)과 선어록 읽기도 병행

과중한 업무와 번잡함.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묵조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범해 스님은 "시간 나는 대로 그 현장에서 5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서 선의 세계로 빠져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곧은 발심·호흡 중요
'묵조명' '종용록' 등
게송·어록 반복해 읽어야

김법사는 굉지 선사가 지은 <묵조명> 등과 같은 게송이나 어록의 독송과 묵조선의 대표적인 어록인 <종용록>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겉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후회와 망상, 땀과 함께 흘려 보냈죠”

교사불자회 경인지부 임원단

3천배 철야정진 현장

“몸을 굽히고 일어설 때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더군요. 육체적 고통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호흡을 조절했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절 할 때는 몰랐는데 마치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흘린 땀 속에 후회, 망상, 삿된 마음이 모두 씻겨내려 갔다는 것을 말이에요.”



“땀이 흐르는 만큼 삿된 마음도 녹아납니다.” 1월21일 분당 하얀마음선원에서 진행된 교사불자회 경인지부 임원단의 3천배 철야정진 현장. 참석한 교사들은 ‘하심’ 하고 모범불자로 학생들 앞에 서겠다는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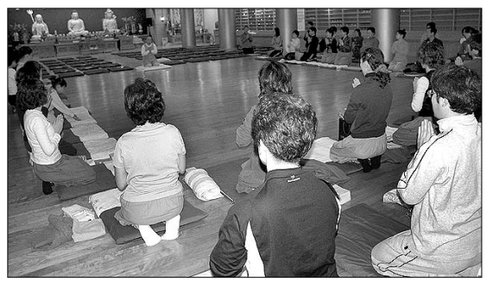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경인지부 재무국장 윤영단(52 · 삼선중) 교사. 1월 21일 오후 7시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 분당 하얀마음선원(주지 덕봉)에서 3천배 철야정진에 참여한 윤 교사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해맑게 웃었다. 그 얼굴에서 ‘신행열기’가 느껴졌다.

이 날 3천배 정진에 나선 것은 윤 교사만이 아니다. 교사불자연합회 경인지부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리더’ 10여명이 함께 하얀마음선원으로 ‘집합’ 했다.

그럼 교사들이 이렇게 ‘절 수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끔 자신을 돌아봐야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은 몸을 숙이고 나를 낮춤으로써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3천배 정진에 앞서 청견 스님으로부터 ‘올바르게 절하는 법’을 배우는 교사불자들.

▮설렘 속 두려움, ‘잘 해낼수 있을까?’

1년 넘게 3천배 정진을 해온 김금숙(54 · 서일정보산업고) 교사는 ‘하심(下心)’에다 무게를 둔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보니 표정도 밝아졌다.

이번 3천배 정진에는 윤 교사나 김 교사처럼 개인적으로 절 수행을 해온 불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이 첫 도전이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그러다보니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표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옆에 있는 사람을 도반삼아 쳐다본다.

그렇게 먹은 마음, 굳게 지키려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슬슬 ‘절 괴담’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절을 너무 많이 하면 관절염에 걸린다더라’, ‘허리와 무릎이 약한 사람은 절하면 안 된다더라’는 말이 3천배 도전 현장에 오니 연이어 떠오른다.

▮“발가락 손바닥 느낌에 집중하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도반들에게 ‘절 고참’ 윤 교사가 “제대로 배우면 괜찮다”는 말을 건넨다. 그렇게 뜻 모를 걱정과 절 수행을 한다는 설렘으로 들뜰 즈음, 청견 스님(서울 법왕정사 주지)이 죽비를 들고 들어온다.

“발가락 느낌 손바닥 느낌, 모두 집중하고 절하세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부정적인 마음은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관두세요. 좋은 마음으로 절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이지요.”

긴장했던 마음 대신, ‘끝까지’ 하겠다는 투지가 살아난다. ‘나’를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차린 표정이다.

시작은 비슷하다. 첫 한 두 시간은 ‘체력’으로만 절을 해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몸놀림이 현저히 갈린다. 구참자와 초심자의 경험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점점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땀은 그야말로 ‘비오듯’ 쏟아진다. 쉬는 시간에 마시는 물은 ‘감로수’다.

▮체력의 한계 넘어 정신 맑아지고…

고비는 없었을까. 물론 있었다. 저마다 ‘근기’가 달라 힘든 지점도 각기 다르다. 대체로 고비는 새벽 4시. 교사들은 ‘그 시간이 되자, 정말 육체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절은 육체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정신을 올곧게 하기에 육체를 넘어선 수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역시 윤영란 교사.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8배조차 하기 힘들어 했던 윤 교사지만, 몇 번의 3천배 정진으로 이젠 능숙한 절 수행자가 됐다.

힘들게 계속됐지만 오전 7시까지 이탈자 없이 모두 절을 마쳤다. 함께 모여 같은 몸짓으로 수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아침 7시, 포기자 한 명 없이 회향

“정말 108배에서 1080배, 3천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 닦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고, 절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정말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경자(47 · 정수초등) 교사는 떨어진 땀방울만큼이나 값진 회향의 기쁨을 얻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는 비단 박 교사 뿐만이 아니다. 교사불자연합회 선생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또 다시 정진하리라 다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오로지 깊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던 자신을 믿고 따른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천배 정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3천배 회향 후, 임원단 교사들은 ‘1년에 2차례, 3천배 정진을 정례화 시키자’ 하자고 결의했다. 수많은 직장불교단체 회원들이 그들만의 상황에 맞는 신행활동으로 친목도 다지고 개인의 믿음도 실천하고 있지만 이들은 ‘절’로써 절로 뭉쳐진 것이다.

▮연 2회 3천배 정진 정례화 뜻 모아

엄범순(45 · 한사랑학교) 교사는 모범 불자로 청소년 포교에 나서겠다며 한 걸음 더 나간 다짐을 내보인다.

“우리는 항상 어린이 · 청소년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더 써야지요. 때때로 나 자신을, 번뇌를 녹여내는 절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나가도록 정진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Tip 3천배 정진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 각자 원력을 세우며 ‘발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요
▲ ‘바른 자세’의 절을 배워요– ‘절’ 수행 책, 스님 말씀 등 참고
▲ 땀을 많이 흘려요–여벌의 옷, 수건, 양말 등
▲ 체력보강이 필요해요–간식, 물, 이온 음료 등

일터가 도량입니다

“죄만 미워해야지…”

인천 중부경찰서 이판열 경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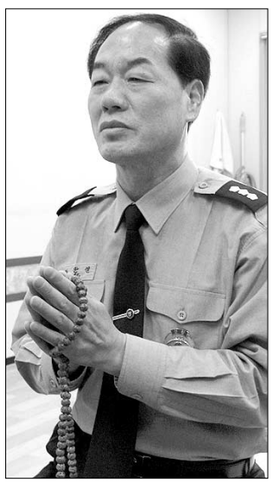
인천역 주변과 차이나타운이 내려다보이는 인천중부경찰서. 졸음이 쏟아지는 오후, 4층에서 조용하게 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온다. 경찰불교회 중에서도 신행 잘하기로 소문난 인천 중부경찰서. 그곳 ‘열린법당’의 정돈된 도량에서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에게 ‘마음’을 내어 놓는 불자가 있다. 이판열 경무과장(58 · 경정 · 사진)이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이 과장의 사무실에 생필품이며 떡가래가 가득 쌓여있다. 사무실이든 성격이든 뭐든 깔끔하기로 유명한 이 과장은 얼기설기 놓여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우리 불교회에서 명절 때마다 십시일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릴 물품을 준비합니다. 참 다행이지요, 우리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요.”

중부경찰서 불교회 회장으로, 경찰서 불심을 이끌고 있는 이 과장의 미소 속에서 일터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지 읽을 수 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찰서를 지켜온 이 과장. 수사계, 조사계를 거쳐 이제는 경무과장이 됐다. 중학교 시절부터 꿈꿔온 경찰, 한 눈 한 번 팔지 않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인다. 은퇴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동안 경찰로서의 자긍심이 컸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저런 일들이 스쳐지나간다.

“우리 일이 나쁜 일 한 사람을 가려내고 또 잡는 일이라 자칫, 사람을 못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될 뻔 했지요.”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일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과장의 마음을 덜컹 내려앉게 만들었던 범인들도 많이 있었다. 믿는 마음으로 설득하자 범인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하다가도 다시 잡혀들어 올 때는 근원적으로 회의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다 잊어버렸다. 불교에 귀의하고부터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에 있든 주인 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가르침. 이 과장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말이다.

이 과장은 지난해 말, 연합포교사가 됐다. 2001년 중부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제대로 불교를 알고 싶고, 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공부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서둘러 포교사고시를 치렀다. 일터불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은 시간 동안 해야겠다는 결심에서다. 2년 동안 경인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에 매진해온 그에게 불교공부는 ‘생활’이었기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인불교대학에서 ‘법사’ 3년 과정을 신청할 정도로 이 과장의 불심은 깊어져 간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실천하면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 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2. 6
월 · 화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선(禪)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에 해당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공부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바로 알고 깨쳐야만 하니 이것을 선(禪)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선가귀감> 5장에서는 말한다.

世尊 三處傳心者 爲禪旨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 선(禪)의 근본 뜻이 되었다.

여기서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존경받을만한 분'이라는 뜻으로서, 부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세존이 가섭에게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설명이 필요없이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이 통하여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가섭의 공부를 인가했다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마음으로 법을 전해 받은 것, 이것이 선종의 시작이 되었다.

'세존' 세상에서 존경 받을만한 분 의미
삼처전심(三處傳心)은 선종의 근본 뜻

다자탑전 분반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인도 비사리성(毗舍離城) 서쪽에 있는 다자탑 앞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설법이 중간쯤 진행될 때 차림이 허름한 가섭이 먼 길에서 돌아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자 대중들은 그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오라! 가섭이여" 하며 당신이 앉던 자리 절반을 내주고 가섭을 당신 옆에 앉게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 절반을 가섭에게 내준 일을 선가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의 공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처님이 당신의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았다'라고 하여 '다자탑전(多子塔前) 분반좌(分半座)'라고 한다.

염화미소

부처님이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영취산은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유명한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다.

산 모습이 독수리처럼 생긴데다가 실제로 독수리도 많이 살고 있어서 붙게 된 이름인데 '영산(靈山)'이라고도 한다.

이 영취산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법회 중간에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 한 송이를 갑자기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였다. 모든 대중들은 느닷없이 일어난 부처님의 이런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그 대중 가운데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채고는 빙그레 웃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섭에게 전하겠노라"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영취산 법회에서 꽃을 집어 들어 보였다'는 '영산회상(靈山會上) 거염화(擧拈花)'라고 한다. 뒷날 부처님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 이 일을 두고 '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 말하기도 한다. 또 꽃을 드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고 하여 '염화미소(拈花微笑)'라고도 한다.

곽시쌍부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라수나무가 마주 서 있는 자리에 관을 모셔 두었다. 열반하신 뒤 칠일이 지나서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섭이 뒤늦게 도착하였다. 슬픔을 억누르며 가섭이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정성껏 찬탄하자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뒷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 일을 '쌍수하곽(雙樹下槨) 시쌍부(示雙趺)'라고 하여, 선종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징표로 삼았다. '쌍수(雙樹)'는 나무가 마주 서 있는 것을 말하고, '곽(槨)'은 부처님을 모신 관을 말하며, '쌍부(雙趺)'는 부처님의 두 발을 뜻한다. 이 내용을 보통 곽시쌍부(槨示雙趺)라고 줄여 말한다.

선종에서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이 '삼처전심(三處傳心)'을 들어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다고 이야기 한다.

그 법이 28대 달마대사까지 내려와 중국의 혜가 스님에게 전해지고, 육조 혜능 스님 때에 꽃이 활짝 피어서 한국에까지 전해져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은 근본 자리에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삼처전심' 또한 근본을 알고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북본(北本) <열반경>에도 실려 있다.

佛告諸比丘 有無上正法付囑摩訶迦葉 迦葉當爲諸比丘之大依止 猶如如來爲諸衆生之依止處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높고도 높은 바른 법'이 있는데 가섭에게 이 법을 전하겠노라. 여래가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가섭은 모든 비구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원주, 별좌, 도감스님은 무엇하는 분?

절집에는 소임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중들이 모여 살다보니 제각기 맡은 일이 제법 됩니다. 그 가운데 절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원주(院主), 별좌(別座), 도감(都監) 등이 있습니다. 흔히 절에서 하룻밤을 머물려면, 원주스님을 찾아 허락을 받지요?

왜 그럴까요? 원주는 절에 살고 있는 대중들의 숫자를 파악해 소요되는 식량과 반찬, 부식 등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 ·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 한 해의 절 집 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해야 하니, 알뜰한 살림솜씨를 보여야 합니다. 본래 원주는 말 그대로 한 사찰을 총괄하는 주인으로서, 주지스님에 버금가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역할이 축소돼 살림살이를 도맡는 소임으로 변했죠.

별좌스님은 원주 일을 도우면서 주로 음식을 만들고 배분하는 일을 맡습니다. 도감스님은 사찰의 금전출납과 회계, 농사일 등을 맡으며, 지금도 큰절에서는 농장, 토목공사 등 큰 일을 담당합니다. 별좌든 도감이든 그 역할에서만큼은 원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7강 : 야부도천의 <금강경> 2장 송

오늘 <금강경> 야부송 2장을 읽는다. 본문을 따라 세 곡조를 지었다.

1.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하고 찬탄한 대목을 두고, 야부는 이렇게 읊고 있다.

如來不措一言, 須菩提便興讚歡. 具眼勝流, 試著眼看. 隔齋見角, 便知是牛. 隔山見煙, 便知是火. 獨坐巍巍, 天上天下. 南北東西, 鑽龜打瓦. 卟.

"여래는 한 마디도 않았는데, 수보리가 나서서 탄성을 지르고 있다. 안목 갖춘 뛰어난 무리는 똑똑히 볼지어다. 담 너머 뿔이 보이면 소인 줄을 알고, 산 너머 연기가 일면 불이 난 줄 알아야지! 홀로 산 정상에 앉았노라니, 천상천하로다. 남북동서란 거북을 뚫고 기와를 두드리는 일인 즉, 쯧."

해설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한 마디씩만 보태자면

– '희유'라는 말에, "아하, 그거"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지.

2.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제어 항복시켜야겠습니까"라고 물은데 대해 야부는 이렇게 읊었다.

這一問從甚處出來. 伴喜我不喜, 君悲我不悲. 鴈思飛塞北, 燕憶舊巢歸. 秋月春花無限意, 箇中只許自家.

"이 질문은 대체 어디서 나왔누.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너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기러기는 변방의 북쪽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고, 제비는 제 옛집을 그리워한다. 가을달 봄의 꽃에 이는 무한한 정, 그건 다만 아는 사람만이 알 뿐이다."

–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맷집. 본래 자리를 향해 고개 돌린 삶.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본다.

3. 부처가 "내 이제 설해 줄 테니 들어라" 하고, 수보리는 이에 대해 "그렇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한 대목을 두고 야부는 이렇게 읊었다.

往往事因叮囑生. 七手八脚, 神頭鬼面. 棒打不開, 刀割不斷. 閻浮踔躑 幾千廻, 頭頭不離空王殿.

"왕왕 일은 부탁을 거절 못해서도 생긴다. 손은 일곱, 다리는 여덟 개에, 귀신 머리와 도깨비 얼굴이라. 몽둥이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칼로 쳐도 잘리지 않는다. 인간세 뛰어넘기 몇천 번인가, 그래 봐도 결국은 공(空)의 궁전 안인 것을…"

– 부탁을 했으니, 무슨 말이든 해야겠지…그러나, 그 소식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네.

야부의 스승 도겸

인터넷 '붓다뉴스'에는 그동안 횡설수설한 내 <금강경 강의>가 열려 있다. 거기 '혜경'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질문이 오래 올라 와 있다. 저번 야부의 <금강경송> 1장을 몇 차례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야부라는 인물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나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고, 자료를 뒤질 시간도 없어 훌쩍 몇 달이 지났다. 이 글을 통해 격화소양, 언 발에 오줌 몇 방울은 되었기를 바란다.

뒤져 보아도 그에 관한 신통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인천보감(人天寶鑑)>과 <오등회원(五燈會元)>에 적힌 단편을 정리해 드리기로 한다.

그는 12세기 선승 도겸(道謙)의 제자이다. 도겸이 누구인가.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가령 스즈키의 명작 <선 입문(Introduction to ZenBuddhism)>에도 실려 있다.

도겸은 <벽암록>의 저자인 원오극근 밑에서 배웠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낙담한 그는 친구인 종원과 마지못한 길을 떠난다. 도중에 그는 울면서 매달린다. "내 일생 참선을 했지만 근본 소식을 얻지 못했다. 나를 좀 도와다오."

친구 종원이 안타깝게 말한다.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나도 못해주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무어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똥 누는 것, 오줌 누는 것, 그리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일! 다섯 가지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한다. 그는 나중 불교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 했고, 선의 기행과 파격 또한 지옥 갈 속임수라고 질타했다.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에 짐짓 이렇게 딴전을 피웠다. "흰 구름 다한 곳이 푸른 산인데, 저 길손, 또 다시 청산 밖에 있노라."

야부, 오랑캐에서 진리의 귀족으로

위의 두 자료도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그에 의하면 야부는 군인이었다. 궁수로 근무했다 한다. 이 점이 예사롭지 않다. 출신은 곤산의 적씨(狄氏)였고, 이름이 적삼(狄三)이었다. 모를 일이다. 여기 삼(三)은 대가족 집안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경덕(景德)의 도겸선사를 찾아가 법(法)을 묻자, 예의 그 조주 무자 화두를 들려주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알겠느냐?"

새벽부터 밤까지 직무도 보지 않고 화두를 안고 낑낑대는 것을 보다못한 상관이 화가 뻗쳐 곤장을 쳤는데, 볼기짝을 맞는 순간에 적삼은 홀연히 깨쳤다. 이에 도겸이 그의 이름을 고쳐주었다.

"이제까지 너는 적삼(狄三)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도천(道川)이다. 지금부터 등뼈를 곧추세워 정진한다면 그 도(道)가 시냇물(川)처럼 불어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방심(放心)하면 한심한 인간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내가 짐작컨대 적(狄)은 성이기도 하지만 '오랑캐'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문화 되지 않은 종족에 대한 경멸이 거기 담겨 있다. 그 오랑캐의 자식이 깨달음을 통해 진리(道)의 자식이 된 것이다.

그가 남긴 작품은 이 <금강경> 송이 유일하다. <오등회원>에는 이 책이 건염(建炎) 초 1127년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의 나머지 삶은 베일에 싸여있다. 그가 남긴 두어 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群陰剝盡一陽生, 草木園林盡發萌唯有衲僧無底缽, 依前盛飯又盛羹.

"여러 음(陰)들이 떨어져 나가고 양(陽)의 기운 하나가 생겼네. 초목과 원림에 우르르 싹이 돋네. (그 북새통에) 다만 납승에게 밑바닥 없는 그릇이 하나 있어, 여전히 밥을 담고 국도 담아 먹는다네."

절벽에서 손을 놓는 자가 대장부

백범 김구의 노래

<백범일지>에 야부의 노래가 실려 있다.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水寒夜冷魚難覓, 留得空缸載月歸"는 유명한 구절이다. 나중 구절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시조로 풀어 더욱 유명해졌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백범의 스승 고석로가 인용한 것은 그러나 처음 두 구였다.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장부는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

인디아나 존스는 절벽 앞으로 발을 내디뎌 성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른을 위한 동화 2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봐



내 새를 날려줘
이윤학 지음 | 문학동네 |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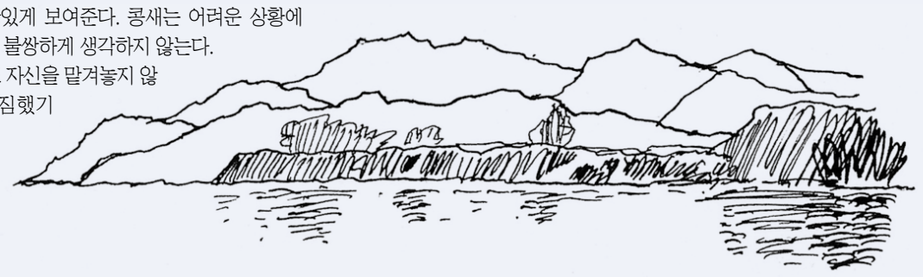
'마음이 말해주는 것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해.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건 힘든 일이란다. 네가 어른이 될수록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슬픈거지. 마음이 얘기해 주는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윤학 시인의 어른을 위한 동화 <내 새를 날려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킨 삶의 문제를 어린아이의 눈으로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부모가 가난해서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모네 집을 떠돌며 사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인 콩새의 이야기는 어려서 고생해본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과 감동을 준다. 어린아이가 헤쳐나가기에는 버거운 삶을 작가는 맑고 아름다운 감성과 재미있는 문장으로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콩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자신을 맡겨놓지 않겠다' 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콩새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가난하고 슬픈 삶이지만 사실은 소중한 '선물'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 콩새는 삶에 유난히 시달린다. 하지만 콩새는 그런 난폭한 삶에 일방적으로 짓눌리지 않고 건강한 개구쟁이 짓으로 대들면서 생활을 헤쳐나간다. 그러므로 개구쟁이 콩새의 못된 행동과 마음속에는 삶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가 숨어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새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의 마음에 갇힌 새는 물론 어려운 이웃의 새까지 하늘높이 날려주는 콩새의 지혜를 따라가 보자.

이윤학 시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제22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독특한 발상… 생각이 깊어지네



페르 예스페르센의 철학동화
김유철 옮김 | 닥터필로스 | 9800원

세계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키고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철학동화. 덴마크의 작가 페르 예스페르센이 쓴 철학동화 모음집 <페르 예스페르센의 철학동화>가 발간됐다.

'별똥별' '삶이란 무엇일까' '정의' '마음' '희망' '풀밭' '사실과 허구' 등 17편의 철학동화는 현실과 환타지를 섞어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책 뒷부분에는 '어린이와 함께 읽기 위한 도움말'을 수록해 어떻게 읽고 토론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도 해준다.

이 동화들이 유난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들을 짧고 단순한 이야기 속에 담아놓았기 때문이다. 독특한 발상과 진지한 생각이 듬뿍 담겨있다.

책의 일곱 번째 이야기 '대화' 편을 보자.

"왜 어떤 사람은 잔인하고, 어떤 사람은 선할까? 어떤 사람은 검고, 어떤 사람은 하얄까?"

"무슨뜻이니?"

"난 지금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어. 왜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설명해 줄수 있니?"

"아니 그럴수 없어. 그냥 느낌일 뿐이야."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식은 대화체이다. 작가는 대화형식의 글을 통해 주제에 대한 대립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플라톤의 <대화>처럼 어려운 논증은 없다. 보통의 철학서와 달리 지적인 수고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여 철학적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인문학으로 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이주행외 옮김

이 책은 쉽게 접근해 사고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고 지적인 유행을 피하고, 다양한 행위의 포괄적인 이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서이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왜 실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실천을 촉진하는 데 훌륭한 참고서의 역할을 한다.

인류학, 문화 연구, 언어학, 매체 연구,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의사 소통 연구 과정을 포함하는 학문적인 통찰력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하고 있는 뛰어난 책이다.

(최도욱, ypbooks.co.kr)

도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한 에너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푸른숲, 한비야 지음

나이가 많기 많이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자라서 등등 무언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도전하는 이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버린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할까. 한비야 님이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안에 큰그릇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와 맞물려 돌아가진 않는다. 걸어서 세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랬지만, 그녀는 5년을 긴급구호 현장에서 일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할 정도로 나의 그릇은 크지 않기에, 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싶다. (jmd0220,book.naver.com)

느긋하게 살면 손해라는 편견을 버려라



아날로그 성공모드 순정아이북스, 김은혜 지음

뭐든 빠르게 움직여야 성공하는 세상 혼자서 아날로그를 따지면서 느긋하게 움직이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은혜 앵커는 디지털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아날로그로 삶을 변형해서 살아가면 어떨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뭐든 계획을 잘 세워서 생활을 한다면 마음껏 누리고 싶은것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것이다. 중요한것은 자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yoo7546,bandibook.com)

책속의 밑줄긋기



○… 농부에서부터 예술가나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자들은 한결같이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다. 행동은 결심의 나타남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인데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결심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못할까? 그것은 스스로 실천하는 훈련이 안되어서다. -<우리를 철들게 하는 108가지 이야기> 242쪽, 김종욱 엮음, 예지



○… 자신의 인생곡선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용기있는 직면과 치료적 실천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 걸음일 뿐이다. 행복한 미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저항을 극복하면서 용감하고 끈기있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만이 자기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부모- 나 관계의 비밀> 128쪽, 김태형 전양숙 공저, 새뜰심리상담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사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채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이 시대의 아부 선사로 불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회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 서울선원 - 반야심경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1시 <02-522-0122>
* 광주선원 - 선문염송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 <062-944-4088>
* 부산선원 - 금강경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2시30분 <051-545-2460>
www.zenparadise.com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福田函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학 울음소리 선판(禪板) 두드리니 …



학명집
연관 스님 편역
(사)성보문화재연구원

불교개혁 실천했던 학명 스님 사상 조명
법어 · 문답 · 전법게 등과 행장 담아

"우리들이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은 본의는 번뇌를 끊고 생사를 여의며 불법을 배우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거늘, 이 문안에 들어와 본분사는 확연히 알지 못하고 이름만 승려이고 마음은 속인으로 행동하니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면목인가?"

'독살이하는 승려에게 훈함'(불교, 62호, 1929년 8월호)이라는 글에서 백학명 스님(1867~1929)은 불교의 모순을 개탄하고 개혁할 방책을 강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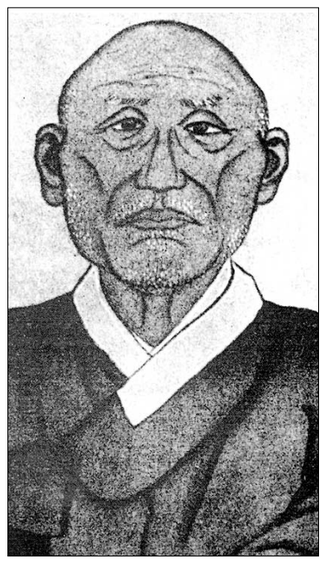
학명 스님은 승려에 대한 정의를 '출가위법(出家爲法) 하는자'로 보고, 우선 승려는 일대사 인연으로 오직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우칠 뿐이라고 단언했다. 때문에 이를 이행치 않는 스님은 '외도'라고 보았다.

고난의 근대기에 선농불교를 통해 불교개혁을 실천했던 선교 겸비의 선지식으로 알려진 학명 대선사. 행적과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잊혀진 스님으로 남아 있었던 학명 스님의 행적과 사상, 선농불교를 알려주는 기록등 행적을 접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실상사 연관 스님이 편역하고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이 발간한 <학명집>은 계종(啓宗) 백학명 스님의 상당법(上堂法語) 4편, 문답(問答)기록 3편, 전법게(傳法偈) 5편, 왕생가등 가송(歌頌) 18편, 달마예찬등 찬(讚) 10편, 원불교 박중빈 교조에게 보내는 편지등 서간(書簡) 5편, 내장선원 규칙등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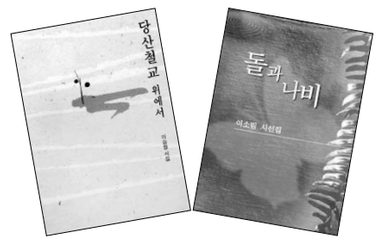
부록으로는 연관 스님의 '학명 대종사 행장', 前 조계종 종정 동산 스님의 '대원적 학명선사 열반', 前 서래선원 조실 해안 스님의 '용맹정진', 이능화(불교사학자)의 '백학명 대선사를 추모함', 석정 스님의 '백학명 선사의 달마도',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백학명 선사의 선농불교', 김종진 동국대 강사의 '학명선사의 불교가사'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백학명 대선사 연보, 내장사 학명선사 사리탑명,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의 후기등이 들어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스님은 내소사, 월명암, 백양사를 전전하며 선풍을 일으키고, 내장사에서 반농반선을 주창하시어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계종(啓宗)의 학울음 소리(鶴鳴, 학명)를 만인이 들을 수 있도록 선판(禪板)을 두드려대니 이에 산승이 문자로 화답함이라"고 썼다.


근대 대표적 선지식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학명 스님 진영.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신작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 '돌과 나비'



시인 이승철(48) 씨의 신작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솔, 6500원)와 소림 스님의 시선집 **<돌과 나비>**(한누리미디어, 7000원)가 발간됐다.

이승철 시인이 5년만에 발간한 3번째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는 잔잔한 일상에서 길어올린 사연과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 현장에 대한 핏발 서린 증언등이 응축된 시어로 실려있다.

특히 시집 마지막 43번째 시인 '내 청춘의 비망록'은 17쪽이나 되는 장편의 시로 치열하게 살아온 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소림 스님(광양 서산사 주지)의 시선집 <돌과 나비>는 그동안 스님이 발표한 시 300편에서 100여편을 고른 것. 스님은 1973년부터 2004년까지 5권의 시집을 발간해왔다.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2



3분 테일즈-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신선해 옮김 | 한언커뮤니티 | 9800원

나무밑에서 잠을 청하던 비구니가 흐드러진 벚꽃이 달빛을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마을사람들에게 값진 자연의 선물을 줘 고맙다고 머리 숙여 인사하는 일화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세계최고라고 거들먹 거리는 똥파리 이야기까지.

<3분 테일즈-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에 소개된 32편의 이야기들은 3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짧게 기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절제와 겸손, 정직과 덕목을 깨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서 전해지는 지혜의 샘

이 책에는 겨자씨를 구하려는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은 키사 고타미,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 무례한 사무라이를 제도한 일본 하쿠인 스님, 글을 모르지만 마당을 쓸면서 깨달음을 얻은 춘다카등 인도와 중국, 티베트, 일본등 아시아 각국에 전해지는 불교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홀로 생각을 정리하며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머리를 추스러야 할때도 있다. 힘들고 지친마음에 고요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오랜세월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향기로운 불교이야기이다. 책을 읽으며 순간의 명상에 잠겨볼 것도 권한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정원규 옮김 | 불광출판부 | 1만원

바쁜 생활이 계속되다보니 초발심을 일으킬 때와 다르게 인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어간다. 이런때 중국 오대산에 은거하며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묘법 스님의 인과 이야기는 처음 흥미를 느끼다가 뒤에는 망치로 얻어맞는듯한 충격을 느끼게 해준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에서 묘법 스님은 인과법을 깨닫고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사실적으로 얘기한다. 즉 "수행인에게는 조그만 잘못도 우리 몸의 기를 막히게 하여 불편하게 하며, 고기를 먹으면서 염불하면 백년을 염불해도 부처님과 상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과 깨달으면 고통 사라진다

또 태아가 지장경 듣기를 좋아하니 임신하면 지장경 독송을 하라는 것과 방생으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등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해결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스님은 "불법을 받아들여 자기 과거의 모든 악업을 진정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하늘 가득한 큰 죄라도 소멸 될 것"이라는 불교적 해답을 준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인과'에 주목해 보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과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행해야 할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중관-유식' 대립에서 통합으로

대승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려면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 불교에 이르기까지 이 양대산맥을 넘지 않고서는 대승불교의 어떠한 사상에도 정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관과 유식>은 일본 경도대학 교수를 역임한 나가오 가진이 40여년간 연구해온 성과물을 총 정리해 역은 책이다. 나가오 가진은 통상적으로 중관과 유식을 무와 유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를 일신하고 중관과 유식을 융합의 견지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해온 학자로 이름나 있다.

책을 옮긴 김수아(벨기에 루벵대학) 연구원은 "25편의 논문은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와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관과 유식
김수아 옮김
동국대출판부
2만6000원

새로나온 책



■ **무엇이 보이는고**(강병호, 온누리, 8000원)= 만화가 강병호씨가 '여성불교'에 3년간 연재한 만화 '산중방담'을 묶었다. 산중방담에는 부처님을 비롯해 옛 성현의 말씀을 알기쉽게 만화로 그렸다. 이 만화의 주인공 묵공 스님은 이세상의 어느 것 하나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과 깨달음이 진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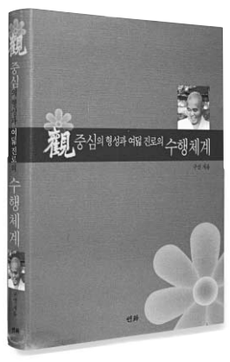
■ **깨달음의 전기**(연정렬, 대한불교사상연구회, 비매품)= 한성대 연정렬 명예교수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쉽고 평이하게 소개하기 위해 펴낸 소책자. 1부 경전과 성전에는 대승불교사상, 수행의 언행록, 원효의 유심안락도, 오늘의 시각에서본 유식론, 재가자 수행법, 토인비의 종교관등이 실려있다. 이밖에도 2부 소논문, 3부 유가의 경전, 4부 도가와 불교사상으로 구성돼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현지궁현지사, 자재만현스님, 1만5000원
-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철우스님, 8500원
-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도솔, 능행스님, 95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스님, 3500원
-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치, 월호스님, 9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見性을 넘어 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아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종영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산본) :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성질환과 정신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선정 / 여덟진로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중심의 일 心 → 無心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識 → 無念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위각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위각 (미세망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위각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옴수련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척추순화 (척추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갈비뼈 순화 (갈비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뼈순화, 체약
교류성의 확 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점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 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 식 의 틀 깨 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중극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매의 증득

※ 이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세상 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바랍니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다시에 모여 연신 행복을 부르짖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문인들. 왼쪽부터 평론가 권혁웅, 시인 박찬일 · 박찬, 소설가 정찬, 시인 홍은택, 소설가 윤동주, 평론가 오창은씨.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작가들

“심심해서라도 글 쓰게 돼”

문인들의 ‘꿈의 공간’ 3년간 150여명 거쳐 가
‘주변 풍광 좋아 글 잘 나온다’ 행복한 비명도
대화 나누며 작품 구상 · 공유 · 검증도 이뤄져

만해사 행자승은 스물두 살, 곱상한 얼굴에 근력이 참 세지 험한 일 꽤나 겪어봤다는 그는 디지털 행자승, 엠피쓰리 다운받아 씨디로 노랠 굽지 이어폰 귀에 꽂고 세상과 접속하지 온갖 장르 섭렵한 그의 훼이버릿 싱어는 크라잉 넛, 밤색 승복을 펄럭이며 말 달리지 하루 두 번, 영혼의 갈기털 휘날리며 말 달리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행자승의 법고法鼓소리 참 예술이지 드럼 치듯 백팔 비트로 읽어가는 그의 독경소리 참 경쾌하지 크라잉 크라잉 행자승은 스물두 살, 호두알 머리 속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

(홍은택의 시 ‘행자승의 근황’)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의 겨울은 뜨겁다.

최장 4개월을 머물 수 있는 이곳은 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꿈의 시설’.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숙식비는 모두 무료이다. 문을 연 2003년부터 3년 동안 150여명의 문인들이 거쳐 갔다. 거쳐간 문인들은 알게 모르게 ‘만해의 제자’가 되기도 한다.

문인들이 모여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해마을의 창작집필실과 소설가 박경리씨가 운영하는 토지문화관의 집필실 단 두 곳이다.

현재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는 김민기(희곡작가) 박찬 홍은택 이윤설 박찬일(이상 시인) 김병용 윤동수 정찬(이상 소설가) 평론가 오창은 권혁웅씨 등이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문단의 중진급들이 한지붕 아래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진풍경이다.

“세 끼 밥이 맛있고 숙박시설이 황홀해. 기자양반은 여기 김치 먹어봤어? 환상이야.”

소설가 윤동수씨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 머물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먹거리 얘기부터 꺼냈다.

“배고파야 글을 더 잘 쓸 텐데 너무 잘 먹는 것 같다”며 박찬 시인도 먹을거리 예찬에 동참한다. 여기저기서 밥이 맛있어서 살이 쪘다는 둥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는 둥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는 둥 행복한 비명들이 들려온다.

먹고 자고 쓰고 세 가지만 하면 되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글이 잘 써진다는 홍은택 시인은 3~4일에 한 번씩 입주한 동료문인들과 문학과 인생, 경험담 등을 논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온 내력이 줄줄이 따라 나오는데다가 술을 마시면서 상상력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동안 가슴 속에 챙겨놓았던 작품 구상을 꺼내 공유하고 검증하기도 한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열 사람의 문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번째 입실해 재수생(?)이라는 홍 시인은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을 행복한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심심해서라도 글을 쓰게 돼. 풍광 좋지, 생활 걱정 안 해도 되지, 술동무 있지. 집필실서 머물다 나간 이들 중에는 책 내는 이들이 많아.”

문예지에 발표할 소설을 준비 중이라는 정찬 소설가는 “12선녀탕 계곡이 워낙 좋아서 등산 삼아 운동 삼아 산책을 즐기며 건강을 챙긴다”며 주변 풍광의 매력을 설명한다. 그만의 건강비법인 줄 알았더니 12선녀탕 가는 길은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식구들이 즐겨찾는 코스였다.

1월 4~16일 창작집필실에 머문 황지우 시인의 흔적은 홍은택 시인의 머리 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황지우 시인 모자를 빌려썼는데 내 평생 이렇게 맞는 모자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야. 황 시인이 흔쾌히 모자를 주셔서 내가 가졌지.”

창작집필실에는 비밀이 없다. 방마다 열린 창문 밖으로 모든 대화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때맞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윤동주 소설가가 등장한다. 박찬일 시인은 “어떻게 착하게만 살겠냐”며 단번에 반박을 한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간의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24시간 라디오를 가족 삼아 살았다는 윤동주 소설가는 “라디오를 버리고 여기 오니까 생활이 달라져서 로비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끔 친구들이 위문을 오면 같이 하루 놀기도 한다”고 고백한다. “살아서 천국을 보는 것 같다”는 윤동주 소설가는 이곳에서 장편 소설을 집필 중이다.

10년째 물들여온 초록색 앞머리를 보여주며 “내 안에 초록 있다”를 외치는 박찬 시인은 “여기 있는 동안 술을 끊고 차로 연명하고 있다”며 “서울서 일주일을 붙잡고 있어도 다 읽을까 말까 한 책을 하루 이틀에 다 읽어버릴 정도로 집중이 잘 된다”고 밝힌다.

시작(詩作)거리를 들고 들어왔다는 박찬일 시인은 “내가 만해마을과 인연이 깊어서 2박3일 일정으로는 자주 왔었다”며 “창밖으로 보이는 산줄기는 무궁무진한 시어를 전달해 준다”고 한마디.

오창은 평론가는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편집회의 하러 서울 올라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이곳이 좋다”며 이곳에 머무는 문인들 모두 떠나기 싫어한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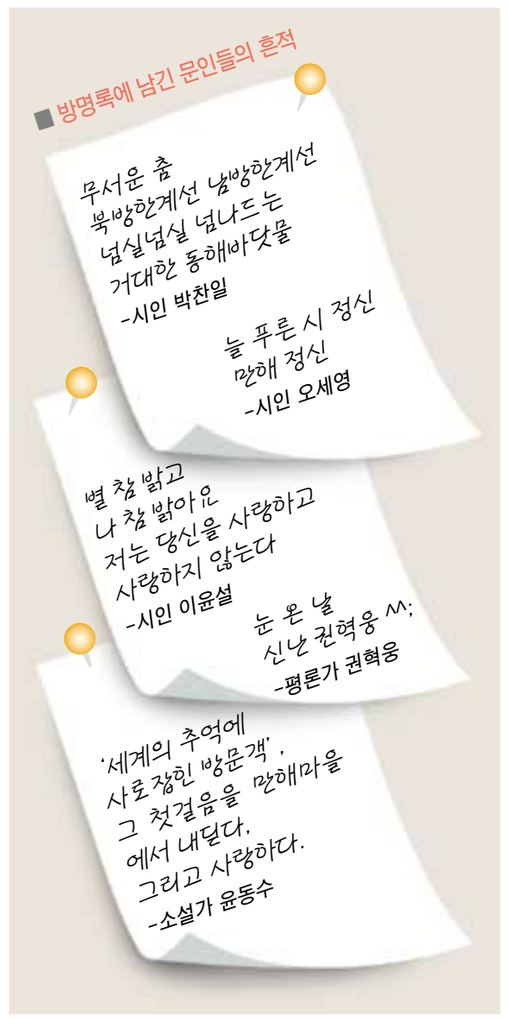
새벽 5시와 저녁 7시, 만해마을에 울리는 범종 · 법고 소리는 집필실 식구들에게 평온의 소리이다. 김민기 희곡작가, 정찬 소설가, 이윤설 시인 등은 매일 아침 예불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70년대를 풍미한 포크음악의 대부이자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 김민기 희곡작가와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시상식 참석차 서울에 간 이윤설 시인은 만나지 못했다.

만해 스님이 주석했던 백담사와 가까이 있는 터라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식구들은 “알게 모르게 불교에 젖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간이자 시든 소설이든 그 결과물을 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마법의 공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지 덧붙여 이곳 식구들은 사찰에서도 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인들에게 사찰이 문을 열어주면 사찰과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게 될 것이고 넓은 의미로 포교도 된다는 것이다.

문인들에게 최대 찬사를 받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그 찬사에 걸맞게 입방 경쟁도 치열하다. 대기 중인 문인들도 많다. “오세영 시인은 지난해 열흘 남짓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좋아 2월 1일 재입방을 예약해 놓았고 박남원 시인, 이문재 시인, 박기동 시인, 박선욱 시인 등도 줄줄이 입방 예정”이라는 만해마을 운영위원장 이상국 시인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열정과 민족애를 잇는 만해학파들의 보금자리”라고 은근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인제/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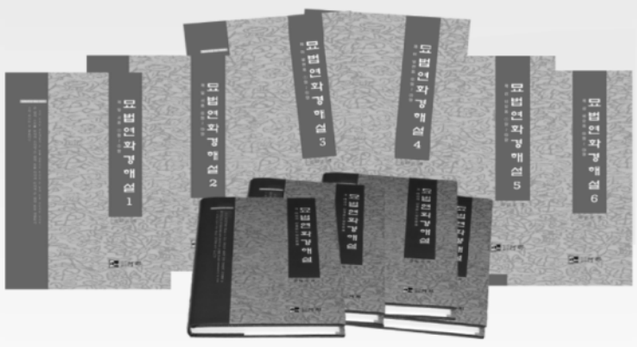


◇ 무량의경 Ⅰ / Ⅱ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 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알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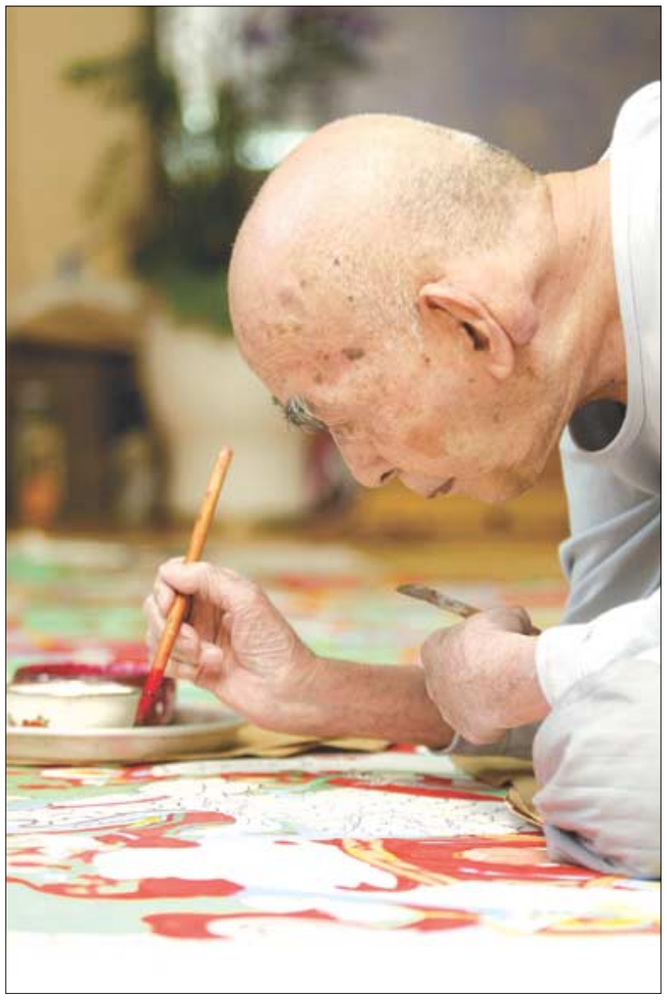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도서출판 阿那

“한 길 묵묵히 걸어 보게나”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만봉 스님 (단청장)



일단 작업에 임하면 꼬박 두시간은 몰두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97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낀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만봉 스님.



스님이 쓰는 갖가지 도료와 붓.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 탱화”

제자 셋과 온종일 작업 … “곰 같이 느긋하게” 강조

단청장 만봉(萬奉) 스님. 올해 97세가 된 스님은 여전히 손 떨림 하나 없이 탱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숨을 고르면서 보여주는 붓놀림이 섬세하면서 예사롭지 않다.

1999년에 만나 뵈었을 때도 작업에 여념 없었던 만봉 스님은 지난 7년이란 시간을 한 걸음에 뛰어넘은 듯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림 삼매에 들어 있었다. 97세라는 나이에도 안경도 안 쓰고 신문을 보는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요즘 스님은 석가모니불 상단탱화를 그리고 있다. 밀려드는 작업 요청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스님은 기자의 요청에 마지못해 붓을 놓았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는 스님은 밑그림인 초(抄)에서부터 부처님 상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독려하며 전 과정을 손수 그리고 있었다. 특히 20여명에 달하는 불 · 보살 · 신중의 얼굴은 스님 몫이다.

“아무래도 예전보다야 힘들지. 생기나면 작업을 참 열심히 해. 붓을 쥘 수 없는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쁜 날도 있지. 일할게 많은데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안타까워.”

스님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늦게 잠자리에 들 때도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공양을 하는 스님은 방송뉴스와 신문을 꼼꼼히 살펴본다. 제자들이 ‘뉴스마니아’라고 부를 정도로 스님은 뉴스를 좋아한다. 시사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사연이야 말로 스님에게는 큰 관심사이다. 스님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같이 놀라고 같이 걱정하는 보살의 마음 그대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듯 했다.

오전 10시, 스님의 화실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업 열기가 피어오른다. 붓끝에서 살아나는 불보살들의 세계. 색색의 화려함이 밑그림을 덮어나간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내리 두 시간은 ‘초인적’으로 몰두한다.



제자에게는 자상하면서도 엄하게 가르친다.

간혹 제자들의 질문이 날아들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몸소 시연까지 보여주며 지도해준다. 꼼꼼하게 제자들의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는 스님은 자못 엄하다. 그렇게 엄한 스님도 쉬는 시간에는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오전 작업 후 잠시의 휴식과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서 1시 30분부터 다시 작업에 들어간다. 스님의 작업은 2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3시 30분경 다담 시간으로 한숨 돌리고 다시 6시까지 붓을 든다.

“부처님 그리는 것은 한두 번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재주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2~3년 하고 더 진득하니 작업하지 않고 가 버리지. 자꾸만 그리면서 익숙해져야 하는데…. 여러 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천 장씩 그려야지.”

스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탱화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쉽게 싫증낸다며 스님은 “그림 그리는 마음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 참지 못하고 장사꾼처럼 굴면 안 돼”라고 말한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기에 얼마 전에는 엉덩이에 종기까지 생겼다. 그나마 처음엔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다. 작업에 방해된다고 스님이 아픈 것을 숨겼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스님이 아픔을 토로했을 때는 수술을 해 종기를 도려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고령인 스님에게 수술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약물치료를 했다. 보름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스님은 매일 하는 관음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도를 그려달라는 불자들이 많아. 참 좋은 일이야. 직접 모시고 염심히 기도하면 요즘같이 힘든 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스님은 틈만 나면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왼다.

요즘 스님은 신선도를 많이 그리신다. 제자들로부터 “우리 스님 신선 되시려고 그런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말을 들으면서도 말이다. 올 가을엔 작업한 불화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계획 중이다. “매년 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하고 싶어. 지난해 작업한 것도 있고, 한 70여 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날짜랑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 꼭 해야지.” 스님은 밀려오는 불화요청 속에서도 개인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으뜸 가르침은 무엇일까? “곰같이 느긋해야 탱화할 수 있어. 잔재주 많은 토끼는 탱화를 할 수 없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스님은 제자들이 잔재주나 부리는 토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제자들에게 곰이 되기를 가르친다.

스님에게 불모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꿈꿔본 적은 없는지 물었다. “다른 것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 길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고… 한눈팔지 말고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해. 불자들도 믿고 노력하고 꾸준히 신행 해야지. 개인생활도 마찬가지야. 한 길 묵묵히 가면 거기서 우주의 진리도 보이는 법이야. 옳은 일 열심히 해야 해.” 스님은 어떤 방법의 수행도 성불로 가는 길이라는 데서는 돌이 아니라며 꾸준히 정진하는 삶을 거듭 강조했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리는 거지 뭐.”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70여년 불화작업 혼신

만봉 스님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16년 봉원사로 출가한 스님은 지금도 신촌 봉원사에 주석하고 있다. 여덟살 때 금어 예운 스님의 제자가 돼 단청과 인연을 맺었다. 24년 불교전문강원을 수료하고 1926년 금어 자격을 취득했다.

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된 이래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봉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998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끊임없이 불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은 2004년 불국사 석굴암의 의뢰로 가로 2m 세로 7m 크기의 괘불 작업을 하기도 했다.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켜간 영험의 도량



천연기념물 223호 은행나무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켜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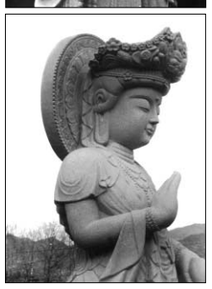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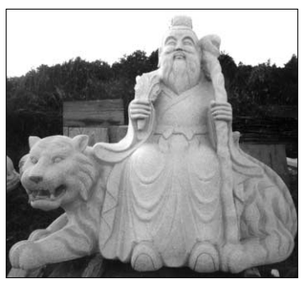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뭐든 잔꾀 부리지 말고 해야 결실

만봉 스님의 가르침

하루 종일 화실에서 불화에 매달려 사는 탓에 불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문 같은 것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니 화두니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나한테 주어진 그림을 잘 그리려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간 외에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가피를 베풀어주는 보살이예요. 인간의 고통을 항상 살펴주고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보살이기도 하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불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탱화를 그릴 때 관세음보살도를 많이 그립니다.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도를 보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밑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입니다. 불화나 단청 작업을 하는 동안 늘 부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 역시 불화를 많이 보면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옛 불화나 단청을 보세요. 세월 때문에 빛은 바랬어도 며칠 전에 그린 듯 생생한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기운은 지극한 신심으로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혼이 배지 않으면 아무리 잘 그렸어도 죽은 그림일 뿐입니다.

혼이 배게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그리고 신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수행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자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면 허망하게 사라져

불법 만난 인연 소중히 여기고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불자들의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새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절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만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이들은 다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부와 명예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또 그것이 사람의 심성을 그릇되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노력을 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생에서 그 결과를 볼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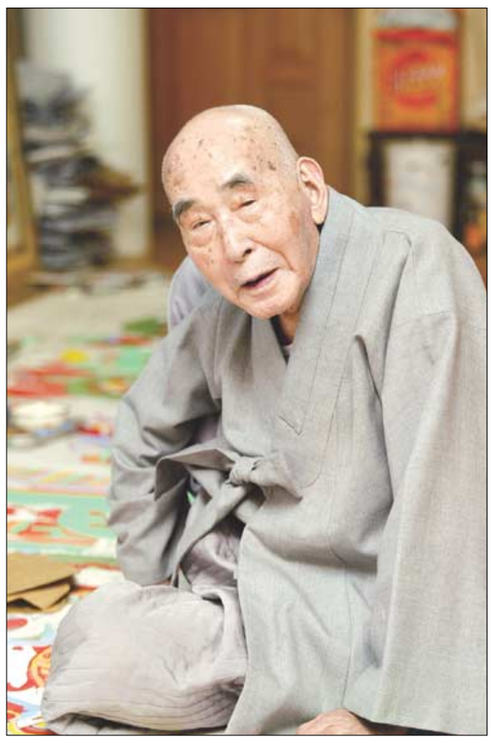
제게도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도움을 바라는 이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면 허망하게 두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제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탱화 하나 멋지게 작업해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욕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맡은 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공덕으로 여깁니다.

신심으로 정성껏 작업한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의 환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단청이나 불화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장엄스런 부처님 세계를 엿보는 것도 불자의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청이나 불화 그리는 일도 치열한 수행입니다. 수천 번의 초를 그리고 그 필력을 스스로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기며 하는



무슨 일이든 '일을 한다' 는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해야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만봉 스님.

것도 아니란 겁니다. 일이 아니게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꾸준히, 의심 없이 잔꾀 부리지 않고 해 나가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크건 작건 따질 필요도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계산은 털어버리고 스스로의 행업을 가식으로 타락시키지 않도록 언행일치를 해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요새 자꾸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일을 한다' 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공사를 마구 해 온 업보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많이 맡아서 많은 댓가를 받고 빨리 해치우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발생된 하자가 있으면 그걸 뇌물로 해결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만큼이나 나약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발심이 아무리 장해도 행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 발심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갑니다. 귀하고 귀한 부처님법을 부처님과 만났으니,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무량의 선업을 닦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타행을 하고 수행하고 신심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0>



세상의 독기를 마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성 안의 다른 종교인들이 대책회의를 벌였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보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독실하게 믿는 시리굴 장자더러 부처를 집으로 초대하게 합시다. 집안에 큰 불구덩이를 만들어 부처와 그 제자들이 발을 집안으로 내딛는 순간 타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는 독을 넣어서 불구덩이를 피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순간 숨통이 끊어지게 만듭시다."

시리굴 장자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 뒤에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장자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한 일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기에 부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달래주며 장자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우리가 쏟아낸 탐욕과 이기심에 절은 세상의 독

덜컥 마셔버린 한 수행자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앞서 가지 말고, 나보다 먼저 음식을 먹지 말라."

장자의 집 앞에 도착하신 부처님. 막 발을 들어 문턱 위에 올려놓는 순간 불구덩이는 저절로 맑은 물이 가득 찬 못으로 변하였고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가볍게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허공을 밟은 자취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뒤를 돌아보고 제자들을 향해 연꽃을 밟고 들어오도록 일렀습니다.

시리굴 장자는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음모에 넘어갔는지를 깨달은 장자는 이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를 닦겠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 시리굴 장자는 다음 일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려야 할 음식에 전부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래와 제자들은 결코 남의 해침을 받지 않는다. 그대는 이미 마련해놓은 음식을 차려내오너라."

장자가 떨리는 손으로 독이 든 음식을 내오자 부처님은 조용히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성스러운 부처와 법과 승가는 세상의 독기를 죽인다. 세상의 독이란 탐욕과 성냄. 그러나 여래에게는 영원히 독기가 없으니 성스러운 삼보는 독기를 죽인다."

이렇게 게송을 읊고 나서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독이 든 음식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몸에 들어가 아무런 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시리굴 장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부처님께 독을 베풀어 큰 과보를 얻을지언정 그릇된 견해에 빠진 자들에게 단 이슬을 주어 그 죄를 받지는 않겠습니다."(증일아함경 41권 마왕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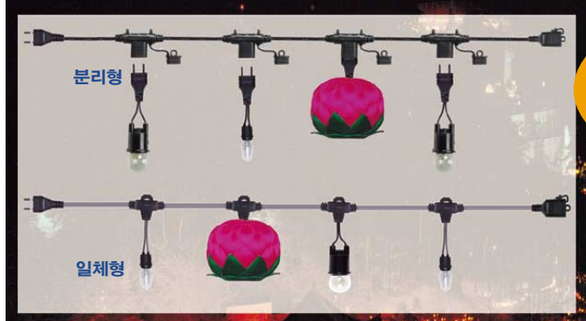
세상에는 탐욕과 성냄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빨리 그 독에 면역이 되어야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온화한 정신으로는 세상을 끌까지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적당히 욕심과 성냄에 물들고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당신도….

독이 든 음식을 기꺼이 삼킨 부처님은 오히려 독기를 품었던 이를 교화할 수 있었고, 혼돈의 뱀이 내쏜 독이 세상에 퍼지기 전에 죄다 삼켜버린 청경관세음보살은 얼굴과 목이 파랗게 변한 것으로 그만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수행자가 극단적인 탐욕과 이기심에 절은 세상의 독기를 더럭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찌우는 음식도 거부하고 생명을 되돌릴 치료조차도 거부한 스님은 바싹 마른 낙엽 같은 몸으로 백기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힘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의 단식은 대중의 관심과 아군을 끌어 모으지만 저 '촌스럽고 힘없고 볼품없는' 한 수행자의 단식은 냉소와 손가락질을 살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려니 그런 내가 무서워집니다. 스님이 삼켜버린 세상의 독 속에는 내 것도 들어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션 시 공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中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中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中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 약쑥향양초 3호(돈타대) 3.4中 × 22.5cm 연소시간 約 2시간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물에 띄어서 사용가능)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Tea Sommelier

- '티 소믈리에' 아세요?-

전문인이 도와주니 차 맛 나네

와인 감식 전문가란 뜻으로 차에 개념 도입
전문 매장 등에서 품질 감별, 차 정보 제공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운영하는 마르코폴로 무역클럽의 티 소믈리에 강윤희씨가 손님에게 제공할 차를 우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 차는 어떻게 마셔야 될까?" "기름진 음식에는 어떤 차가 어울릴까?"

최근 세계 각국의 차들이 수입됨에 따라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수십여 종이 넘는 각 차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어떻게 해야 차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등장한 신종 직업이 바로 티 소믈리에(Tea Sommelier)다.

소믈리에(Sommelier)란 원래 와인 감식 전문가를 뜻하는 말로, 와인의 구매와 관리 · 서빙뿐만 아니라 고객의 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을 '차'에 도입한 것이 '티 소믈리에'다.

티 소믈리에란 용어가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이 호텔리어 민지현 성은영씨를 '티 소믈리에'로 명명하면서 부터다. 이후 차 전문 매장이나 호텔 중식당 등에서 차 품질을 감별하거나 고객에게 차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차를 우려내주는 사람을 통칭해 '티 소믈리에'라 부르고 있다.

정식 교육기관 없어 中 다예사 자격증 취득
" 우리 차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 선행돼야"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운영하는 마르코폴로 무역클럽에서 일하는 강윤희(32)씨는 2003년부터 전문 티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코폴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중식당 청해에서부터 차 서빙을 맡아온 강씨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을 뿐 아니라 중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전문 티 소믈리에의 길을 걷게 됐다. 틈틈이 한국차인연합회 다예랑다도원 김미려 원장으로부터 차문화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며 티 소믈리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강씨가 하는 일은 전문 카터를 가지고 다니며 고객이 주문한 요리에 어울리는 차를 추천하고, 주문을 받아 차를 우려내 제공하는 것. '차 우려내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 차의 특성에 따라 찻잎의 양과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은 물론 다구 사용법과 우리는 순서 등의 다법(茶法)도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처음에는 차 우리는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차 용어, 수백여 가지에 이르는 다구 이름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는 강씨는 이제 차 우리는 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

"고객에게 공양(供養)한다는 마음으로 차를 우리다 보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맛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티 소믈리에란 직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만큼 더 열심히 배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 소믈리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청담동 차 전문카페 '천재향'에서도 티 소믈리에를 만날 수 있다. 50여 가지의 차를 판매하고 있는 천재향에서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천재향에서 취급하는 차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1차 교육과 외부 수탁을 통해 이뤄지는 2, 3차 교육을 통해 차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다법을 익히게 된다.

이 밖에 서울 인사동의 '아름다운차박물관'과 태평양이 운영하는 차 전문까페 '오설록티하우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티톡스(tea talks)' 등에서도 티 소믈리에가 고객의 차 선택과 감별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티 소믈리에가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티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정식 교육기관이나 자격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티 소믈리에가 되려는 사람들은 중국차 전문가나 차 전문단체 등에서 교육을 받은 후 중국 다예사(茶禮師)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다예사란 다관(茶館) 등에서 차를 우리고 맛을 감별하는 차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나 단체 등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예사 자격증이 차에 관한 전문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몇 개월간의 교육만으로 차 우리는 기술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차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다예연구중심 김영숙 원장은 "차문화 전반에 걸친 지식과 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티 소믈리에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4. 보이차의 종류



보이병차를 대나무 껍질로 포장하는 모습.

"이곳의 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이 마시는 차는 찻잎을 찐 후 덩어리 모양을 만든다. 그들은 이를 보차(普茶)라고 부른다."

명나라 사람 사조제(謝肇淛)의 <전략(滇略)>에 기록된 글이다. 이 글은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글로 보일 수 있지만, 필자의 눈에는 보이차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는 글로 보인다.

첫째, 여기서 말한 '보차(普茶)'는 보이차를 말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보이차에 관한 사료(史料)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둘째, '전(滇)'이라는 곳은 지금의 운남(雲南)을 가리킨다. 즉 보이차의 원산지는 운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차의 모양은 줄기 형태가 아닌 덩어리 상태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전략(滇略)'에 많은 보이차 이야기 수록
운반의 편의성 위해 다양한 긴압차로 제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찻잎을 우려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운남 지역에서는 덩어리 형태의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차에 대한 총애는 청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조공으로 바치는 공차(貢茶)의 가지 수는 무려 여덟 가지다. 이중 가장 큰 것은 마치 사람의 머리모양과 같은 것으로 무게는 자그마치 다섯 근이다. 이를 '인두공차(人頭貢茶)'라고 한다. 지금도 금과공차(金瓜貢茶)가 하나 남아있어 항주의 중국농업과학원차엽연구소(中國農業科學院茶葉硏究所)에서 소장하고 있다.

청나라부터 흥하기 시작한 보이차의 인기는 청나라와 함께 스러져 갔다. 보이차가 공차로 지정된 것은 1729년 옹정(雍正) 10년 때의 일이다. 그러나 정권말기에 도달하자 혼란과 소요로 인하여 공차는 방화와 약탈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에 1908년 광서(光緖) 30년 때 공납을 폐지시켰으며, 200년 동안 궁중의 영욕과 함께 했던 보이공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진다.

조공으로 바쳤던 공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의 사업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운남에서 보이차를 운영하는 상점들이 상당했다. 대부분 이무(易武)라는 곳에 모였다. 대체로 품질 좋은 것은 해외로 갔고, 질이 낮은 것은 티베트, 몽골, 위구르 등 빈민지역에 팔았다.

차라는 것은 원래 잎으로 만든 줄기형태인데, 운반할 때 부피가 크고 쉽게 끓어지는 단점도 지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방법이 바로 찻잎을 압착하여 긴압차(緊壓茶)로 만드는 것이다.

보이긴압차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둥근 형태의 원차(圓茶)이다. 원차의 무게는 357g이다. 예로부터 일곱 편을 묶어 대나무껍질로 포장하는 것이 전통방법이다.

둥근 형태의 원차는 70년대 접어들어 이름을 '칠자병차(七子餠茶)'로 고쳐져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또 다른 형태의 보이차가 보이는데, 사발처럼 생긴 타차(沱茶), 심장모양처럼 닮은 긴차(緊茶) 그리고 네모난 모양 중 벽돌처럼 생긴 전차(磚茶)와 정사방형의 방차(方茶)가 있다.

가장 오랜 정통을 지니는 차는 병차와 방차이다. 특히 방차는 공차로서 청대부터 '복록수희(福祿壽禧)'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어 '사희방차(四喜方茶)'라고도 불린다.

예로부터 티베트로 공급하는 차는 심장처럼 만든 긴차였다. 모양이 버섯처럼 생겼다하여 '마고두(蘑菇頭)'라고도 한다. 1967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모양을 벽돌처럼 바꾼 것이 전차에 관한 유래이다. 긴차는 1986년 당시의 반선(班禪)라마의 요청으로 다시 만들어져 오늘날 시장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그릇처럼 생긴 타차는 1902년 운남 하관(下關)의 차상들이 둥근 형태의 '구냥단병차(姑娘團餠茶)'라는 작고 둥근 보이차를 그릇 모양으로 개조하여 만든 것이 유래다. 타차는 지금 사천(四川), 중경(重慶) 지역에서도 만든다.

■ 한서대학교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중국차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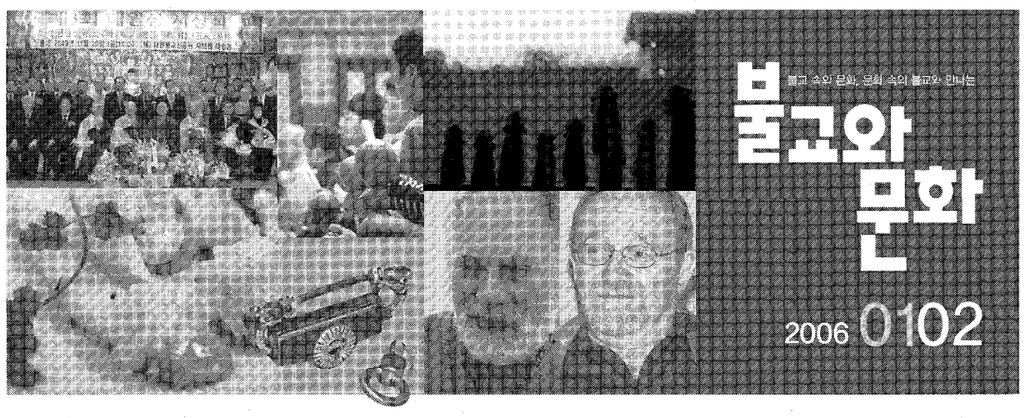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컬러(183×235), 288페이지
가격 : 24,000원
저자 : 김경우

|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6 산사의 풍경소리 | 성전 스님이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신년호 특별 설문조사 | 2006 오늘의 한국불교
– 누가 한국불교를 주도하는가
지난 2000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한국불교 현황 설문조사.
2006년 새해를 맞아 『법보신문』과 공동으로 현시점에서 어떤 인물과 단체가 한국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길거리에서 미국불교의 미래를 보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미국 동서부 일부지역 불교계 탐방 두 번째 편.
1. 현실불교를 구현하는 젠 피스메이커 오더와 수행자 클래스만
2. 특별 인터뷰 | 세계 석학에게 듣는 불교학의 미래
– 인도 · 티베트 불교학자 버지니아대학 제프리 홉킨스 교수

특집 | 의료혁명과 생명윤리, 그 경계와 접점
생명조작과 불교생명윤리
외국 불교학자가 보는 유전공학과 불교윤리
과학과 의료 현상에 대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때

종범 스님의 기초 불교교리
5. 참다운 보살행이란 무엇인가

열린불교, 열린경영 | 대표적인 도심사찰의 성장 비결
❶ 능인선원 리포트 – '공공(公共)의 마인드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능인선원'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제주도 외딴집, '허늘연꽃'에 가면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쇳대박물관(Lock Museum)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Celestial Music for Yoga

현장 속으로 |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억불시대 수행열전 | 유생들도 감탄한 강학(講學)의 전통과 그 풍경

오래된 지혜 | 생활 속의 불교설화 ❶
복전 이야기 – 내 곁에 널려 있는 그것

2006년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지혜로 차려내는 한겨울의 절집 별식 네 가지 – 무시래기밥 외

건강에세이 | 막힌 기(氣)를 소통시켜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자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1 | 서울의 마애불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명절 스트레스 요가로 훌훌~



요가연구소가 추천하는 간단 요가 ABC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잠시. 장거리 운전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음식 장만, 손님치레, 선물 장만 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을 잇는 것이 바로 명절이다. 오죽하면 명절 연휴 끝에 소화불량과 두통,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명절증후군'이 생겨났을까. 하지만 또 다시 일상을 마주한 지금, 힘들다는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연구소가 추천하는 간단한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보자. 최근 요가의 심리·신체적 치료효과를 규명한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요가 프로그램의 심리적 효과>란 논문을 쓴 요가연구소 왕인순 전임연구원은 "요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무리하게 동작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에 맞는 수준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동작을 따라 해본다. 요가자세가 자신에게 무리라고 느껴지면 당장 중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몸을 이완시킨다.

몸과 마음의 변화 알아차리면서 따라 해야
무리함 느껴지면 동작 중단하고 몸 이완을

● 준비운동

요가를 시작하기 전 발목, 발가락, 무릎, 허리, 어깨와 손목, 손가락, 목을 차례로 부드럽게 풀어준다. 관절과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실시한다.

● 요가자세

① 산 자세: 두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똑바로 선다. 양쪽 발꿈치와 엄지발가락이 만나도록 한 후 두 손을 펴서 아래로 향하게 한다.

② 손을 위로 한 산 자세: 산 자세에서 두 팔을 쭉 펴 머리 위로 올린다.

③ 서서 앞으로 굽히는 자세: ①번 자세로 선 후 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손이 발에 닿도록 한다. 무릎은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준다.

④ 개 기지개 켜는 자세: ③번 자세에서 발을 뒤로 뺀 후 손·발은 잘 펴서 앞을 향하게 한다.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머리를 바닥에 댄다(그림 ①).

⑤ 서서 앞으로 굽히는 자세: ④번 자세에서 ③번 자세로 돌아간다.

⑥ 다리 뻗치기 자세: ①번 자세로 선 후 점프하며 다리를 넓게 벌리고 두 팔은 옆으로 벌린다. 허리를 굽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시선은 위를 본다. 머리를 바닥에 댄다(그림 ②).

⑦ 박쥐 자세: 다리를 펴고 똑바로 앉은 후 두 다리를 옆으로 벌린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검지와 중지로 엄지발가락을 걸어 잡고 몸을 앞으로 숙인다.

⑧ 나비 자세: 다리를 펴고 똑바로 앉은 후 두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서로 붙게 한다.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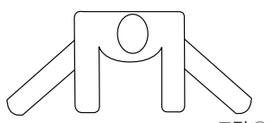


그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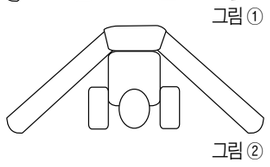


그림 ②

⑨ 무릎에 머리 닿기 자세: 다리를 펴고 앉은 후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다. 몸을 앞으로 굽혀 두 손으로 왼발을 잡고 몸통을 늘인다. 반대편도 실시한다.

⑩ 등 펴기 자세: 다리를 펴고 똑바로 앉은 후 두 팔을 들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두 손으로 발을 잡는다.

⑪ 누운 나비자세: 등을 대고 누워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다. 숨을 마시며 양 무릎을 옆으로 벌리면서 구부려 양 발바닥을 붙인다. 양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늘여준다. 숨을 내쉬며 자세를 푼다.

⑫ 쟁기자세: 등을 대고 누운 후 엉덩이와 다리를 올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받친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머리 위쪽으로 내린다(그림 ③).

⑬ 송장자세: 반듯이 누워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벌린다. 두 팔은 약간 벌려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눈을 감고 턱은 가슴을 향하게 한다.

한 가지 자세를 수련하고 나면 소요된 시간만큼 이완 상태에서 몸을 바라보도록 한다.

● 호흡

송장자세에서 자신의 자연스런 호흡의 흐름을 바라보며 몸을 이완한다. 들숨은 자연스럽게, 날숨을 천천히 깊고 고르게 호흡한다. 다음으로 들숨은 천천히 깊고 고르게, 날숨은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마지막으로 들숨과 날숨을 동일하게 해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 상태를 바라보며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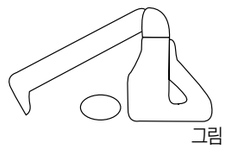


그림 ③

● 이완

송장자세로 몸 전체를 이완하고 각 신체 부위를 순서대로 자각하면서 마지막에는 몸 전체를 바라본다. 자연스런 호흡의 흐름과 호흡에 따른 몸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후 몸을 천천히 움직여 깨운다. 약 15분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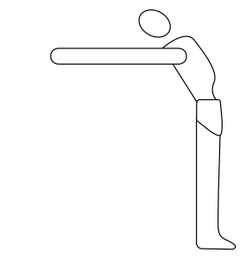


그림 ④



그림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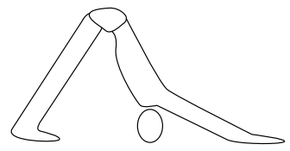


그림 ⑥

태양경배자세

12가지 자세를 차례로 취하는 태양경배자세는 에너지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빈혈, 요통이 있는 사람은 몸을 천천히 가볍게 움직이도록 한다.

먼저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고 서서 합장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합장한 손을 위로 쭉 뻗어 뒤로 넘긴다(그림 ④).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 천천히 숨을 내쉰 후 허리를 앞으로 가능한 깊이 숙인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 무릎을 펴고 양손은 왼쪽 발 양 옆에 짚고 정면을 본다. 이때 등도 곧게 편다. 나머지 다리도 펴서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숨을 내쉬며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놓고 가슴은 양손 사이에 내려둔다. 숨을 잠시 멈춘 후 두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상체는 최대한 위로 들어올린다(그림 ⑤). 다시 발끝을 세워 엉덩이를 위로 쭉 치켜 올린다. 숨을 내쉬며 최대한 배를 끌어당기고 동시에 발뒤꿈치를 바닥에 내려준다(그림 ⑥). 지금껏 한 동작을 하나씩 거꾸로 실행하며 처음 체위로 돌아온다.

interview

빈곤여성 대상 요가 심리적 효과 입증

왕인순 요가연구소 전임연구원

15년간 여성노동자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써온 요가연구소 왕인순 전임연구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요가를 시작한 왕 연구원은 요가를 통한 심신 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나서 '요가연구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자활후견기간에서 요가를 지도하며 그들의 치유과정을 목격한 왕 연구원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 제출한 논문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요가프로그램의 심리적 효과>이 그것이다.

왕 연구원은 "자활센터에서의 요가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이나 재활센터 등에서 여성을 위한 치유 요가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4>

녹차 소금과 녹차 기름



언젠가 죽염(竹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시기가 있었습니다. 죽염이 좋은 이유는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나무 마디에 넣어 여러 번 숯으로 구워내면서 나트륨 성분이 많이 휘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염이니, 구운 소금이니 하는 '웰빙 소금'이 유행하는 것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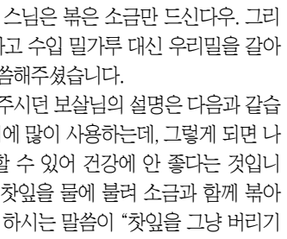
예전에 한 사찰에서 3가지의 흰색 음식을 피하는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소금을 볶고 있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보살님, 소금을 왜 볶으세요?"라는 나의 질문에 보살님은 "우리 스님은 볶은 소금만 드신다우. 그리고 흰설탕 대신 흑설탕을 좋아하고 수입 밀가루 대신 우리밀을 갈아서 만든 것만 드신다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내게 알려주시던 보살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소금을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많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우려 마신 찻잎을 물에 불려 소금과 함께 볶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찻잎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만들기 시작했는데 음식에 이용하니 그 맛이 너무 좋아 계속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 마신 찻잎을 버리기 아까워서 만들기 시작한 녹차소금이나 녹차기름이 지금에 와서는 '웰빙 식품'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보살님께 배워온 방식을 응용해 녹차소금과 녹차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차소금이나 녹차기름은 음식의 잡냄새도 없애주면서 음식의 깊은 맛을 내주는 것은 물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 상승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녹차소금과 녹차기름을 이용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웰빙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만드는 법



<녹차 기름> 재료: 식용유 1ℓ, 녹차잎(불리지 않은 마른 잎) 1큰술

① 식용유를 큰 냄비나 프라이팬에 끓인다.(이때 팔팔 끓을 때까지 끓여 주어야 한다.) ② 식용유가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1분 정도 지나서 녹차 잎을 넣어준다 ③ 기름이 식으면서 찻잎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완성.(녹차 잎이 가라앉으면 기름을 밀폐용기에 부어 보관한다.)



<녹차 소금> 재료: 꽃소금 1컵, 녹차가루 1큰술

1. 꽃소금을 프라이팬에 넣고 중불에서 계속 볶아준다.(색깔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
2. 소금이 갈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1분 정도 지난 후 녹차가루를 넣어서 남은 열로 계속 볶아준다.
3. 다 볶아진 녹차소금을 절구에 빻아 가루로 내면 완성.(절구가 없으면 분쇄기로 갈아도 무방하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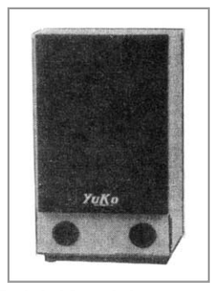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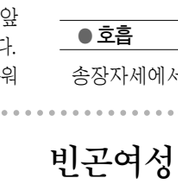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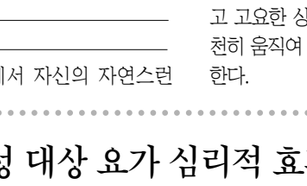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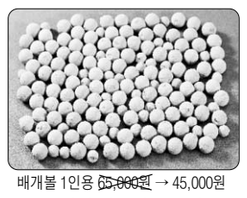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 ↓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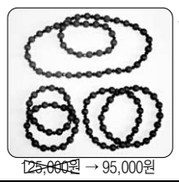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원앙부인 통해 아낌없는 보살행 표현



안락국태자경변상도(安樂國太子經變相圖). 조선전기 1576년作. 일본 청산문고 소장.

불화 속의 명장면 (2)

日 청산문고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아미타불이 이끄는 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향하는 원앙부인과 안락국태자.



◀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린게 된 원앙부인과 이별하는 사라수대왕.

알고 가는 이도 끊어진 이런 혼미한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면서 왔느냐. 대자비 원앙새와 공덕 닦는 내 몸이 정각(正覺)하는 날에 만나보리라

〈월인석보:제244곡〉

'안락국태자경' 내용 월인석보에 가곡·언문주석으로 실려

한글 화기(畵記)와 함께 표정 몸짓 풍부하고 섬세하게 묘사

국철 노선은 아예 다니지 않고 매우 뜸한 지방 완행열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일본 시코쿠 오지의 한 책방. 힘겹게 발품 팔아 찾아온 노고를 보상 해 주려는 듯, 참으로 특이한 설화형식의 오색선명한 조선시대 궁정불화 한 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족자 그림이 펼쳐지면서, 유려한 금글씨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초창기 훈민정음의 설명과 함께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언문의 명문을 읽어가며 장면 장면들을 따라 가보니, 사라수대왕과 원앙왕비의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과 애절한 사연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 작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범마라국 임정사(林淨寺)의 광유성인(光有聖人)은 승렬비구를 서천국 사라수대왕국에 보내 찻물 길어오는 시중을 들 팔궁녀(八宮女)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사라수대왕(沙羅樹大王)을 청하게 됩니다→ 사라수대왕은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고 선근을 닦고 무상도를 구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나섭니다→ 이때 원앙부인도 동행하게 되는데, 멀고 험한 여정 중에 심한 발병이 나고 또 만삭의 몸이라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죽림국 자현장자의 집에 계집종으로 팔아 보시케 해달라는 부인의 청대로,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금 4천근에 팔리게 됩니다→ 사라수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이름을 '안락국'이라 지어주고, 서로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자라는 언약을 하고 이별합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종으로서의 고생과 학대를 받는 원앙부인→ 안락국이 일곱 살 되던 즈음,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장자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만, 그만 실패하여 얼굴에 숫돌물로 문신을 당하는 끔찍한 형벌(자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여, 임정사로 향하는 힘겨운 여정이 오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상봉하는 아들 안락국→ 그러나 기쁨도 잠시, 원앙부인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사라수왕은 하릴없이 아들을 귀가를 재촉합니다(글머리에 소개한「월인석보:제244곡」은 그 헤어짐을 슬퍼하여 부른 왕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시 죽림국으로 돌아오자 소를 치는 한 목동의 노래가 아득히 들려옵니다→「아버지가 그리워 천리만리 찾아가더니 돌아와서는 어머니를 찾을 길 없구나, 그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 고독한 안락국이여」→ 깜짝 놀라 (말 그대로) 보리수 밑에 가보니, 자신의 탈출로 장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몸이 세 동강으로 베어진 어머니의 시체가 낭자하였습니다→ 안락국은 동강난 시신를 한 데 모아 이어놓고 엎드려 울며 서방을 향해 합장하니, 하늘이 진동하고 48용선이 내려와 이들을 태우고 극락세계로 향하였답니다.

세조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월인석보:권8(1459년)>에는, '원앙부인극락왕생연'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이 31절의 가곡(월인부)과 언문주석(상절부)으로 실려 있습니다. 약 1미터 길이 화폭의 본 작품에는 제작(1576년) 당시의 한글 화기(畵記)와 함께 총 22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그 표정과 몸짓들이 참으로 풍부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 가장 상단의 발원문에서 주상전하와 왕비전하(즉 선조와 의인왕후)와 더불어 공의왕대비·덕빈저하·혜빈정씨 등 다수의 비빈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축원이 확인되어 왕실의 왕비 및 후궁과의 밀접한 관련이 추정됩니다. 또 "사라수구탱(沙羅樹舊幀)이 오랜 세월을 견디느라 희미해지고 좀먹고 마멸되어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이를 다시 그려 걸었다"라는 문구에서 본도보다 더 오래된 원본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면면히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왕실에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져 사랑받았던 이 이야기는, 한글창제 후 최초의 국문불전으로 손꼽히는 <석보상절>이 편찬된 시점에서부터 아마도 왕실의 여인들에게 널리 애독되었던 당시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선덕여왕 때(643년) 광유성인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임정사 창건설화('기림사창건연기문'과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에서도 본 설화와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원효가 중창하여 기림사로 개칭한 이 사찰은, 조선전기 대대적인 사찰의 혁파가 집행될 때에도 해인사와 더불어 경상도지역에 살아남은 4대 사찰중 하나로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사찰입니다. <안락국태자경>의 그 저본의 출처를 둘러싸고, 국어학자들 간에는 중국 출처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설화로, 자생적 변문(變文)으로 의견이 모아져 더욱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에서 그려진 안락국태자전은 고대소설의 모태로서 또 서사무가의 주제로서, 국문학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설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광유성인은 석가모니불이시고, 광유성인이 거느린 오백제자는 오백나한이시고, 사라수대왕은 아미타불이시고, 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이시고, 안락국은 대세지보살이시고, 승렬비구는 문수보살이시고, 팔궁녀는 팔대보살이십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경전의 마지막 단락. 그러고 보니 작품 내용에 복선이 너무 많았군요. 바로 '극락(極樂)'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안락국(安樂國)', 부부 금슬이 유달리 좋다는 '원앙(鴛鴦)' 등. 결국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 안락국태자의 정체는 '아미타삼존'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불보살들이 중생교화를 위하여 지상에 화신하여 내려와 한 편의 연극을 벌이고 간 듯 한 느낌입니다. 사라수대왕은 속세의 정을 끊고 무상도를 위한 수행 끝에, 안락국태자는 행원을 위한 정진 끝에, 원앙부인은 아낌없는 보살행(보시) 끝에, 모두 열반에 들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도 이 설화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원앙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앙부인은 남편과 이별할 때, 춥고 배고플 때 그것이 아물라고 왕생게(往生偈)를 지어줍니다. 이 왕생게는 남편 사라수대왕의 오래고도 고된 수행을 버티는 힘이 되고, 아들 안락국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주문이 되고, 또 그를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음의 화신인 원앙부인의 모습에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두 희생하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소연(한국미술사연구원 연구원)

중생들의 극락왕생 염원과 애절한 사연 화폭에 가득

우리나라 자생 설화로 국문학·문화예술사적 가치 뛰어나



승렬비구를 따라 범마라국 임정사로 향하는 여덟 궁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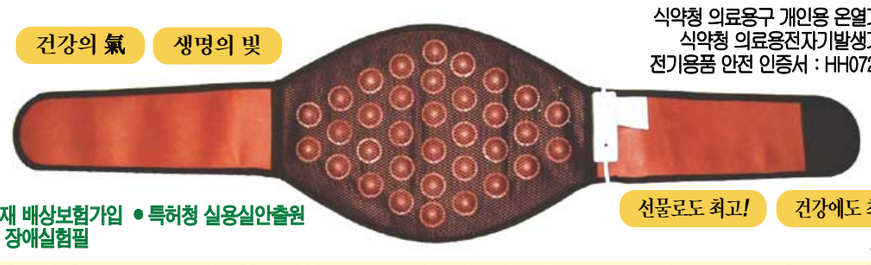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의 氣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황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조성택)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잘 죽기'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오진탁)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욱)
부활, '웰 다잉'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신표)
근사체험(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 단
율장은 금서인가 (마성 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광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광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틱낫한의 프럼빌리지 선수행 고찰 (김은종)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 불교평론 광고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4, 010-7339-8688, 팩스 02)737-0696



여러분 한분 한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태초

밝게 살고 싶어요!

문 해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선원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정초 촛불재를 접수하면서 제 마음에 서원이 생겼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무명으로 어두워진 내 마음에 불을 밝혀서 저의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물론 조금조금씩은 저도 모르게 바뀌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안도감은 들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밝히는 우리들의 서원의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밝음을 주듯 그렇게 제 마음이 밝아져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한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님, 한 발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답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가면서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뜻으로 들으시고, 말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면서 행하는 그런 습을 길렀으면 합니다.

첫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쌀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망상이 전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이죠. 여러분 빼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태초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만 듣고 그냥 '내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행을 못한다면 그거는 말하나 마나 건성 도는 일입니다.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서로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 없는 무심(無心)의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자비심으로써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맡겨 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정말이지 부모 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된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죠.

우리가 항상 집안에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자식들한테도 부적당한 말을 하는 한편,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긋나고 흩어져서 춥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차원의 그릇이지만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제가끔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그러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맞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잘하시려면 평등한 마음으로써 항상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을 항상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만 말 없는 데를 통해서 서로 접견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말로 듣게 하지 말고, 뜻으로 해서 뜻으로 듣게 한다면 무심으로써 바로, 그 전달 없는 전달이 됨으로써 가정은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이 마음 속 생명들도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충대충 얘기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말로만 배워서 행을 못하고 가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신차려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에 살던 참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에게 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섭류를 터득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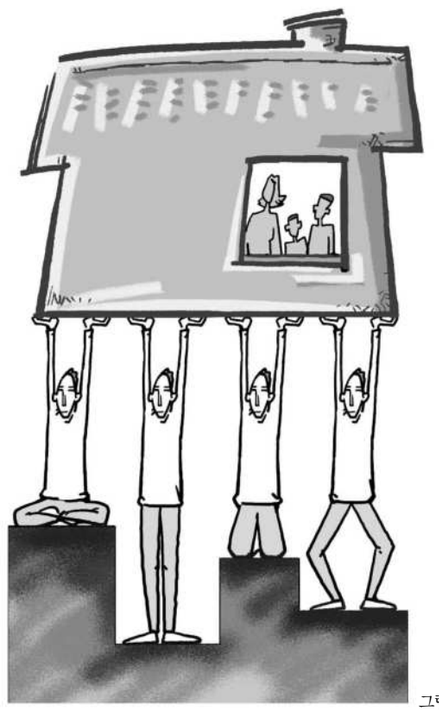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계발하고 증득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

둘째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꿔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연구 재료죠. 우리가 꼭 연구를 한다 하고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정돈하고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내 마음 한생각에 모두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위법이나 무위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에 밝은 그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게 밝음을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촛불을 들고 켜고 하는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이건.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나요?

문 미국 사회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에서는 불교 이론으로 대답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막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진화 과정이 지수화풍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화풍은 무엇에서 생겼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계통에서는 지수화풍을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 쪽에서는 지수화풍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할 때 그럼 '마음이다, 마음이 지수화풍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니 거기서 좀 막힙니다. 큰스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우리가 지수화풍이다 하면 지수화풍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애당초에 흙, 바람이 불어서 말리고 또는 비와 물기 이런 것이 다 혼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온기가 생기죠. 온기가 생겨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수화풍이 점점 그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부터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지수화풍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생명 아닌 게 없고 지수화풍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지수화풍은, 즉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과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얼른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생명과 마음, 이 마음 중도, 즉 말하자면 생명과 육신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막힐 게 없습니다. 항상 둘이 아닌 그 까닭에 바로 생명이라고 하고 바로 지수화풍이라는 이 뭉쳐진 물질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 그 물질계의 지수화풍 자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수소폭탄이니 핵폭탄이니 또는 인공위성이니 모든 이런 거를 우리는 개발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육식, 즉 말하자면 이 육근이 있으면 육진이 있고, 육진이 있으면 육식이 있어서 이 육식이라는 자체는 모든 의식 자체에서 나오는 전체, 전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세계의 한마음, 외부의 모든 것이 다 한마음, 생명 이 자체가 불(佛)이니만큼 마음내는 거는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마음내는 거를, 즉 말하자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거를 영혼이라고 하고, 본래 자성불이라는 거는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우주 전체의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돼 있어서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근본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그것도 없었겠죠.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가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종교도 없고 바로 나 자신도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론으로만 그게 꺼지지 '나'라는 자체의 그 '참'이라는 거를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로 태초고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고,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공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만 가지 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自神)'입니다. 각자의 '자신' 속에서 만 가지 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먼 길을 떠날 때에, 부모가 빌어 주는 본인이 하든 '한마음 주인공! 당신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바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믿을 때에 바로 지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이 나오고 만 가지 말이 나오고 만 가지 말을 듣기도 하고 만 가지를 보기도 하고 이러니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부처 중생이 들이 아니게끔 여러분은 그대로 실상이라는 거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그대로 안다는 겁니다. 만법을 그대로 들이고 내고, 한 군데서 들이고 내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고 있으니 바로 자유인라는 뜻입니다. 그 도리대로 자유스럽게 못 산다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도 걸리지 마세요. 이 몸은 작게 친다면

☞30면으로 계속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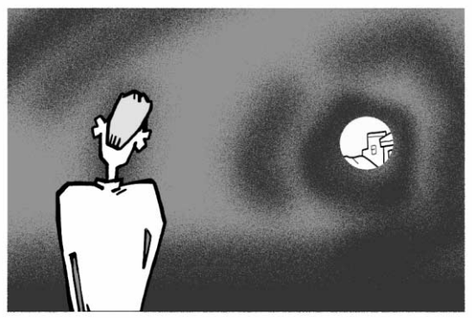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망상이 전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

☞29면에서 계속

조그만 집이기도 하지만 조그만 혹성이기도 합니다. 이 혹성 속에는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면 잘 돌아갈 것이고 못 쓰면 못 돌아가니, 그것을 말해서 모두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지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성이 나를 이끌고 갈 뿐이고, 그 자성이 체가 없어서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했지마는 천차만별로 일체 다 바로 광대무변한 그 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죽는 거는 아닙니다.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 그 지수화풍마저도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데 모아서 하나가 하늘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되는가 하면 그것이 흩어져서 요런 졸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는 공부는 마음을 모아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밀물 썰물이 되듯이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고정되게 있지 않으면서도 하늘을 받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다시 또 출현을 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들이고 내는 그 자유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그냥 끝간 데 없이 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바로 대 보살이 돼서, 보살이라는 건 이름입니다. 어느 큰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큰 나라의 인군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라는 이름 자체가 부처가 아니라, 자유스럽게 걸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자유인이며, 바로 그것이 청정한 천백억 화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배워서 행을 못하고 가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 살기가 복잡해요!

문 스님, 너무 살기가 복잡해요. 보이고 들리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부터 매체란 매체는 모두 국민적인 영웅이라며 모 교수를 치켜세우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면 그것 또한 거짓이고 음모였다고 하니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온통 거짓투성이처럼 느껴집니다. 진정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미망에 헤매지 않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세상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짓는냐에 문제가 아주 소소영영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잘될지를 모르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텐데' 하고 한용운 스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거니깐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또 그걸 아는 분들은 자기가 그냥 결정을 지어도 되고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정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정에서 사시지만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야 가정도 충만하고 사회도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내가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한 사람을 집안에다가 갖다 놓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한참 고생을 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깐 내가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만이 충만치 못한 사람을 갖다 넣어도 충만하게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렇고 얼마나들, 돌부처도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고 사명대사니 서산 대사니 어떤 스님이든지 다 나서서 군대를 이어 줬고 한국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애당초에 물이 요렇게 조금 새는 거를 갖다가 탁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서 조금조금 흘러 내리는 거를 막질 못했기 때문에 확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 천에 없어도 마음이 부자라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은 영령들도 다 한 공체가 되고 공심이 되니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불법에는 20세기 21세기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물질세계에서 볼 때는 날짜도 20세기니 21세기니 사람이 기축(基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질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돌아가는 걸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냄새 맡고 똑바로 움죽거려라 하는 얘기죠. 그러되 자기를 리드해 가는 자기의 주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계의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라는 것은 내 하나의 마음이라면 우주와 은하계 모두, 북두칠성이나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의 뜻이 우리들의 근본처에 바로 바로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안다면, 아는 게 없이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없다고 하고, 한 게 없다고 하고, 할 게 없다고 하고 말할 것도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는 "내 마음이 복잡해서 복잡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내놓거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 주마." 이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어떤 성인들은 머리를 팍 때리면서 "아야!" 그러면 "야, 아야 그러는 놈은 누구냐?" 하고 야단을 쳤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틀림없는 모두 여러분의 그 부처를 아주 밝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누가 행복을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만 화살을 꽂는다면, 바깥으로 화살을 꽂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으로 화살을 꽂아서 그 안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모두 입자가 나가서 자기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죠. 몸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상대가 안되니까 보여서 일을 하게끔 되는 시자 역할을 하는 것밖엔 안되죠. 그러나 자기가 시자 노릇을 잘한다면 자기가 행복한 거죠. 세상에는 나 하나를 세울 게 없어요. 나 하나만 이렇게 귀중하고 나 하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천하와 우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시는데 내 앞에 닥치는 대로만 놓고 가시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도의 길을, 진리를 참구해서 알게 되면 더더욱 가정이 점점 맑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벗어나질 못해서 이 중세계의 고난 속에 천차만별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허허바다에 배띄워 놓은 거와 같이 살고 있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고요. 그 마음이 벗어진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을 한 손가락으로 받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기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 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공동)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천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 전 대 학 교 철 학 과 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처방한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불어나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됐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실분은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방은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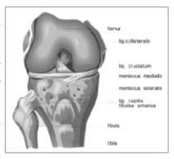
윤량한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끝이 아닌 인연을 따라 (상)

강호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림 · 문병성

신앙에 대해 고민할 무렵 현각 스님 만나
관세음보살 정근 후 마음의 고통 사라져
"깨달음 위해 정진하라" 가슴 깊이 새겨

저는 요즘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 짓고 제 자신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며 틈틈이 봉은사 청년회 도반들과 연꽃등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 봉은사 도량을 한 바퀴 돌고 도량 주변을 휘 돌아봅니다.

봉은사…. 참으로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도시 빌딩 숲 안, 푸른 산자락 터에 자리 잡은 도량 봉은사. 이 안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여 도반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지난 과거, 묘한 불법과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봉은사에서 활동하기 전, 저는 순간순간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의 아련한 과거이며 추억이고 만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난 과거의 아름다웠던 젊은 날을 글로 남겨보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익명의 사회 봉사자였습니다. '인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안고 밝은 세상을 꿈꾸며 몸으로 실천하기를 좋아했던 익명의 봉사자.

그런데 사실 그 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소망은 이웃으로부터 소외받은, 가난과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성당에서 혼자 몰래 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눈물의 서약과 더불어….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 안에서 제가 찾았던 진리를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 있다고 믿었을 당시에는 그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마음이 사라지자 제가 여태까지 꿈꿔오고 믿어왔던 삶이 하나의 꿈, 환상이었던가 싶었습니다. 정말 제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꿈이구나…. 그냥 난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살리라.'

저는 어쩌면 그 당시 마음에 자유가 없는 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활동하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 보니, 제 주변에는 함께있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갈만한 곳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도움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경전 <숫타니파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제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힘들어 할 때 도움을 주신분이 계십니다. 서울 화계사 현각 스님과 화계사 국제선원의 여러 도반들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현각 스님 또한 미국에서 출가하시기 전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낯선 불교, 다른 스님들보다 심적으로 현각 스님을 가까이 여기게 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가톨릭에서 구도의 길로 들어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계사에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괴로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절에 다니는가?'

'전에 믿었고 사랑했던 신을 배반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갑작스레 찾아와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관세음보살 정근 소리가 내 안에 깊숙이 들리더니 왠지 모를 편안함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의 고통이 눈물에 씻겨서 편안해졌습니다.

눈물의 관세음보살 정근 후 국제선원에서 현각 스님 법문을 듣고 난 뒤 스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께서는 그 때 저가 가지고 있던 아상을 깨주셨습니다.

"신(God)!! 없는 걸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때 숭산 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있었고 저의 생각이 진리에서 벗어난 망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신을 죽이지 못하면 참된 신을 만날 수 없으며 신은 이름도 모양도 없으며 말도 문자도 없다'라는 선(禪)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계룡산 무상사에서 무심스님께 '광공(光空)'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계룡산 무상사는 산수가 아름답고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명을 받고 5일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공양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홀로 현각 스님의 <만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다시 화계사를 찾아 현각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그 동안의 법명 받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스님께서는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스님을 스승님으로서 모시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니 스님께서는 오히려 "저한테는 인생의 커다란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 번쩍 놀랐습니다. 이름 높으신 스님께서 제게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하심이구나.'

말씀 도중 현각 스님은 저에게 출가를 권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용맹정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속의 집착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스님은 크게 웃으시더니 "훌륭한 생각입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안내 : 구독료 월 5천원 / 납부방법 : 1. 전화요금합산 2. 자동이체 3. 지로
신청문의 : 고객1팀 02)2004-8211~2 / Fax 02)737-0697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고성/거제 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충북지사	대전 / 충북 일원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탈종공고

● 사찰명 : 보리암
● 주 지 : 지명(이금복)
●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327-16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뤄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이연공고
(離緣公告)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全南亭) ● 사찰명 : 수진사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79
권윤기(權淸潭) ● 사찰명 : 관음사
이민순(李妙圓) ● 사찰명 : 관음사

위 2인은 총화종단 소속 사찰로서 종단 발전에 헌신해 왔으나 불기 2550년(서기2006년)양력 1월 26일자로 세속인연과 불교법연이 소멸되었기에 절연 되었음을 이연공고 합니다

불기2550년(2006년) 1월 26일

관 음 사 창건주 이민순(묘원)
주 지 권윤기(淸潭)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담아
큰 그릇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 장 효천스님 고 문 승욱스님
부회장 삼해스님, 혜만스님
감 사 정혜스님, 불산스님
간 사 진홍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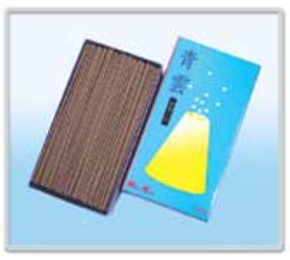
■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원 장 승욱스님
■ 통도사자비원 노인요양원 원 장 정법스님
■ 통도사자비원 노인양로원 원 장 남곡스님
■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원 장 원묵스님
■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 장 혜만스님
■ (사)불교사회복지 성양원 이사장 정혜스님
■ 사단법인 불교감로심장회 이사장 불산스님
■ 마산중리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진홍스님
■ 사회복지법인 내원 반야원 원 장 법수스님
■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원정스님
■ 마산정인사 금강노인복지관 이사장 원행스님
■ 마산정법사 무료급식보현의집 원 장 지태스님
■ 창원자비사자비공양의집 원 장 명종스님
■ 무료급식의 집 부처님 나라 원 장 본응스님
■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요양원 원 장 최 분 이
■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 원 장 유 지 희
■ 사회복지법인 삼소원양로원 원 장 하 영 숙
■ 사단법인 새생명광명회 이사장 김 기 원
■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원 장 효천스님
■ 남 해 자 활 후 견 기 관 관 장 법수스님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52-1번지 협의회 사무국
전화 055)863-1701 / 팩스 055)863-0758

수리수리 마하 수리~ 불교용품 없는 것 없이 다 판다~ 마하몰!! www.mahamall.co.kr

마하몰 병술년 새해 천연향 식물성양초 특가전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출시 예정인 **약쑥초**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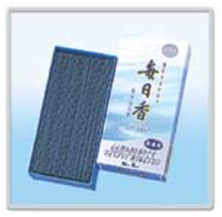
청운(青雲)아모레
₩30,000
출시기념 사은품증정
세이운아모레 1개(50sticks)



화풍 5종 세트
₩42,000



명향 5종 세트
₩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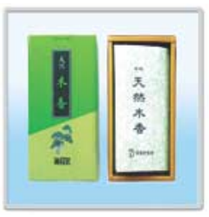
매일 아쿠아
₩18,000



신 매일향
단 : 8,000원, 장 : 6,000원



참솔향
₩12,000



천연 목향
단 : 8,000원, 장 : 6,000원



자연목향 자단향(단대)
₩8,000



담소원
₩12,000



명심향
₩6,000



천연목향지관
₩8,000



한방지관향
₩8,000



백화향 선물세트
₩50,000



견성향
- 지관단-참숯무연아로마 15,000원
- 지관장-참숯무연아로마향 12,000원



신 선미향
개당 ₩2,000
세트(10개) ₩16,000

양초



식물성무공해 등초(대)
₩78,000
- 규격 : 길이 12.5cm×지름 3.1cm
- 수량 : 240개입(120세트)



무공해식물성양초(돈타레)
₩95,200
- 규격: 5.6 cm×27cm
- 수량 : 40개입



무공해식물성양초(원기둥)
₩75,600
- 규격: 7.4 cm×29cm
- 수량 : 12개입

향로 촛대



청자칠보투각향로
₩39,800
- 국보 제95호로 12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청자향로의 재현품



고급청동향로
- 大 높이325mm×폭430mm 100만원
- 中 높이240mm×폭350mm 60만원
- 小 높이150mm×폭200mm 30만원



반야심경 향로
- 小 높이4.5cm×지름6cm 30,000원
- 大 높이5.5cm×지름9cm 40,000원



사진틀 위패
₩140,000
- 재질 : 알마시카
- 크기 : 350×240×500mm



쌍용초
- 길이 30cm×지름 8.3cm
- 수량 : 16개입



반야심경 초
- 길이 10cm×지름 7.4cm
- 수량 : 64개입



용초
- 길이 31cm×지름 7.3cm
- 수량 : 20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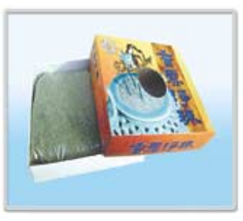
황동 촛대향로 세트(大)
₩648,000
- 촛대 : 넓이16.5cm×높이55.5cm
- 향로 : 지름 30cm×높이22.5cm



황동 촛대향로 세트(中)
₩500,000
- 촛대 : 넓이16.5cm×높이39.5cm
- 향로 : 지름 24cm×높이 22cm



황동 촛대향로 세트(小)
₩90,000
- 촛대 : 넓이6cm×높이 11cm
- 향로 : 지름6cm×높이 5.5cm



향로용 유리알(향운정주)
1kg ₩10,000원, 5kg ₩45,000원
- 순수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밀납양초세트
₩30,000
- 세트구성 : 1호 2개, 2호 2개, 3호 2개, 4호 2개, 양초받침 2개

밀납양초

1호 ₩50,000
- 지름 59mm×높이 180mm
- 1박스 10개입(5쌍)
- 연소시간 : 약 72시간

2호 ₩60,000
- 지름 59mm×높이 14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50시간

3호 ₩40,000
- 지름 47mm×높이 13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30시간

4호 ₩32,000
- 지름 47mm×높이 100mm
- 1박스 20개입(10쌍)
- 연소시간 : 약 24시간



청동 촛대향로 세트(소형)
₩105,000
- 촛대 : 넓이 9cm×높이12cm
- 향로 : 지름9.5cm× 높이7cm



황옥 촛대향로 세트(大)
₩750,000원
- 촛대 : 넓이13.5cm×높이46cm
- 향로 : 지름 25cm×높이19.5cm



황옥 촛대향로 세트(小)
₩570,000
- 촛대 : 넓이13cm×높이31.5cm
- 향로 : 지름 20cm×높이 15cm



개인용 백자, 청자향로
₩12,000
- 지름 8.9 cm×높이 5 cm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서적의 모든 것 www.yosiamum.com

인터넷 불교 서점 여시아문 닷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세상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여시아문에~

국내최대,최고의 인터넷 불교서적 전문몰 여시아문, 여시아문에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여시아문은 2000년 10월 오픈하여 국내최대의 불교서적은 물론 불교정보를 바탕으로 불자님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도서 정보, 외국도서주문, 회원할인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계 최초의 전자북서비스를 오픈하여 IT시대의 불교계 선두주자로 불자님들에게 다양한 최신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해외도서 사이트인 왓더북닷컴과 외국도서 독점공급체결!!
해외불교서적은 물론 인도 도서와 일반 외국도서까지 국내 최저가격 판매, 택배배송으로 편리하게!!

[도서분류]
경전, 법문, 교리, 선, 불교학, 불교사, 명상, 불교문학, 한글대장경, 교양도서, 일반서적, 법보시서적 일체 …

[주문방법]
- 온라인 여시아문을 통해 도서를 검색하여 주문 가능
- 인터넷 주문이 불편할 경우 전화나 팩스로 주문 가능

[법보시 도서] ▶법보시 공양이란?

영가천도, 49재, 결혼, 학업성취 등 뜻이 있는 날이나 기원하는 서원(발원문)을 담아 부처님전이나 승단 또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모아 보시를 베푸는 것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법보시 단가]

① 30권이상~50권이상 - 10%할인 ② 100부이상 - 20%할인

[단, 법보시도서외 도서를 법보시하시거나,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법공양문은 100부이상일 경우 무료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단, 독경용 도서에 사찰명 인쇄 시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❶ 독경 및 서원(발원)에 법보시하기 좋은 도서[경전도서]



◀금강반야바라밀경
가격 : 각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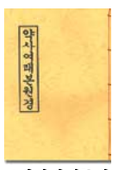
천지팔양신주경 ▶
가격 : 각2,500원
종류 : 한장본, 포켓용,수첩용

❷ 영가천도 및 기일에 법보시하기 좋은 도서[경전도서]

-〈장수멸죄경〉은 여러 경전들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풀이나 나무 줄기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적인 구성의 경전입니다.



◀장수멸죄경
가격 : 각2,500원



▲약사여래본원경
가격 : 각2,500원 종류 : 한장본,포켓용,수첩용



가격 : 각3,500원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인데 줄여서 〈약사여래본원경〉 또는 〈약사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혹은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에서 건져주고자 하는 약사여래의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❸ 염불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도서[경전도서]

-불교에서 많이 읽혀지고 기본적인 경문들을 수록한 것으로 불경에 대해 초보자인 불자들도 법당에서 독경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문집이며, 이런저런 경에 대해 복잡하게 찾을 필요없이 기본적인 경문을 수록하여 크지도 않은 부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불경을 독경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독송집
가격 : 4,000원

천지팔양신주경 ▶
가격 : 5,000원

❹ 사경공덕에 좋은 도서[경전도서]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하며,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사경에 임하는 일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가격 :1,500원

가격 :3,500원

가격 :5,000원

가격 :4,500원

가격 :6,000원

<운주사 사경시리즈>
반야심경사경 : 3,000원
부모은중경사경 : 2,300원
이야기불교한자사경 : 5,500원

여시아문 고객센터 02) 737-0695 (02)2004-8220

농협 053-01-265785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